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2008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2008년 11·12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CONTENTS

11 2008 November

1주차 11.03-11.09

1. 대내정세 — 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1
가. 6자 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일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8

2주차 11.10-11.16

1. 대내정세 — 22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28
가. 6자 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34

3주차 11.17-11.23

1. 대내정세 — 3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49
가. 6자 회담 관련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51

4주차 11.24-11.30

1. 대내정세 — 5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65
가. 6자 회담 관련 나. 북·중 관계
다. 북·러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70

인쇄 : 2008년 11월 발행 : 2008년 11월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인 :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 북한연구실 편집간사 : 권혜진 연구원
등록 : 제2-02361호(97.4.23) 주소 :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 <http://www.kinu.or.kr> 디자인 인쇄 : 두일디자인 2285-0936
(비매품)

12 2008 December

1주차 12.01-12.07

1. 대내정세 — 7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85
가. 6자 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일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91

2주차 12.08-12.14

1. 대내정세 — 98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06
가. 6자 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러 관계
마. 북·일 관계 바.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11

3주차 12.15-12.21

1. 대내정세 — 11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27
가. 6자 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북·일 관계
마. 북·러 관계
3. 대남정세 — 133

4주차 12.22-12.28

1. 대내정세 — 136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47
가. 6자 회담 관련 나. 북·미 관계
다. 북·중 관계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50

5주차 12.29-01.04

1. 대내정세 — 154
가. 김정일 동향 나. 정치 관련
다. 경제 관련 라. 사회·문화 관련
2. 대외정세 — 164
가. 북·미 관계 나. 북·중 관계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166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1.03-11.09

11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경제 관련
- 나. 사상교양 관련
- 다. 인사
- 라. 기타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관련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공연 관람(1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대 2곳을 시찰한데 이어 중앙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하며 연일 공개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김 위원장은 북한군 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 등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새벽 보도. 그러나 통신은 공연의 정확한 일시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과 ‘은하수’, 만수대예술단,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등 북한에서 정통 음악과 무용을 공연해 온 예술단체들이 참가
- 공연 수행에는 최태복·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리광호 당 중앙위 부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 등이 함께 관람

● 김정일, 군부대 사진(11/5,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오전 2시쯤 “김 위원장이 인민군 2200부대와 제534구분대를 시찰했다”며 관련 사진 2장을 내보냄. 통신은 그러나 지난 2일처럼 이번에도 시찰 시기와 구체적인 장소는 밝히지 않음.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534군부대는 평양 근교에 위치한 군수 부대로 추정된다”며 “북한 보도를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은 2001년 9월 이후 이 부대만 10번째 방문했다”고 밝힘. 김 대변인은 “사진에 시기(늦가을)를 추정할 수 있는 (단풍 등) 배경이 있고 김 위원장이 계절적으로도 맞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나 올해 찍은 사진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변
-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맨 앞줄 가운데에 서 있고 150여 명의 군인들이 옆과 뒤로 도열해 있다. 왼쪽 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은 사진 속에서 ‘차려 자세’로 왼팔과 오른팔을 모두 늘어뜨리고 있음. 차려 자세지만 왼손은 주먹을 쥐지 않았고 오른손은 약간 뒤로 감춰져 있고, 오른쪽 입 꼬리도 왼쪽보다 조금 올라간 것처럼 보임. 정보 당국

자는 “김 위원장이 오른쪽에 힘을 주고 서 있는 것 같다”며 왼쪽이 불편한 것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에 주목

- 조선중앙TV도 5일 오후 김 위원장이 두 부대를 찾아 훈련을 참관하는 사진 14장을 포함해 총 28장의 사진을 내보냄. 특히 중앙TV가 내보낸 14장의 김 위원장 사진에는 그가 뒷짐을 지고 훈련을 참관하거나 걸어가며 오른팔을 치켜들거나 오른팔을 어깨 약간 위로 쳐든 채 군간부들에게 얘기하는 모습, 각각 남녀 군인과 얘기하는 장면, 특히 잔디밭 위에서 오른손 손바닥을 들어 아래에서 받치 듯 든 왼손 손바닥을 치는 박수 모습이 포함돼 있음.
- 김 위원장은 회색 파카에 열은 갈색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굽이 높은 구두 대신 밑바닥이 평평한 구두를 신었고 수행 간부들과 부대 지휘관들은 군복을 입었으나 김 위원장만 건강을 감안한 듯 요즘 날씨에 비해 두툼해 보이는 파카 차림이었음.

● 김정일 치료설 佛외과의사, 평양 방문 시인(11/5, 후지 TV)

- 최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치료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인 뇌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사비에 루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평양을 방문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일본 후지TV가 5일 보도
- 후지TV의 보도에 따르면 루 박사는 10월 24일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행 CA121 항공기를 탑승하려다 이를 포착한 취재진이 “평양에 가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를 시인, 그러나 루 박사는 평양행의 목적이 김 위원장의 치료를 위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남.

● 北, 김정일 축구 관전 해외보도 대대홍보(1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축구팀 간 경기를 관람했다는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동정을 다룬 해외언론의 보도를 주민들에게 홍보
- 방송은 중국의 신화통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영도자께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셨다”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동정을 취급한 것을 비롯해 홍콩 대공보, 러시아의 이타르타스와 에코모스크비방송, 영국의 로이터통

신과 BBC방송, 미국의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니혼게이 지신문, 도쿄신문, 마이니치신문, 아사히신문, NHK방송이 보도했다고 소개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두 선언 이행” 거둬 주장(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북남 공동선언은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남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정책화”하고 있다며 두 선언의 이행을 거둬 촉구
- 신문은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떠들면서 ‘실용’의 간판 밑에 북남대결을 정책화”하고 두 선언의 “이행의 앞길에 차단봉을 가로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로 인해 “북남관계는 갈수록 험악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

● 北, ‘백두산 혁명전적지’ 동계 답사 시작(11/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근로자, 대학생, 소년단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겨울철 답사’가 시작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 첫 답사에는 평양시와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주민들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량강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집결한 뒤 혜산시의 사적지를 둘러보고 압록강 기슭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고 보도. 방송은 답사자들이 항일 빨치산의 회상기 학습, 합창경연, 예술소품경연 등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 ※ 백두산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은 1956년 6월 처음 시작됐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심 고취가 목적

● 김정일, 몽양 딸 여원구에게 80세 생일상 보내(11/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일 몽양 여운형 선생의 딸인 여원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에게 80세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방송은 생일상을 받은 여 의장과 그의 가족들이 “강성대국 건설과 조국통일 위

업 수행에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을 굳게 다짐했다”고 보도

※ 북한의 대표적 여성계 인사인 여 의장은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부의장 등을 맡고 있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면담했고 2002년엔 서울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회에 참석했었음.

● 北내각, '사회보장법 시행규정' 채택(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내각이 '사회보장법 시행규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통신은 이 규정에 “사회보장금의 지불 대상과 기준, 사회보장자의 우대, 사회보장 수속, 사회보장금의 지출, 사회보장 기관의 조직운영, 보조기구의 생산 및 공급 등 사회보장 사업을 더 잘해나가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과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고 설명
- 통신은 “사회보장제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사회보장자들에게 국가의 부담에 의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잘 차려지게 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게 됐다”고 강조

● 노동신문,李大통령 ASEM 발언 비난(1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동족 압살을 위한 비열한 청탁 놀음’ 제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북핵의 조기폐기와 북한 개방을 위한 지원·협력을 요청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거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며 반공화국(반북)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는 국제공조 청탁 놀음”이라고 반발

● 北TV, 김정일 6, 7월 시찰 기록영화 방영(11/4,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6~7월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 등의 여러 시설을 현지지도하는 장면을 모아 새로 제작한 기록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주체 97.6~7)’를 방영. 이번 기록영화는 김 위원장이 평양시 대동문영화관과 옥류관, 청류관 등의 대형식당, 평북 대계도 간석지 건설장, 자강도 자연보호구 등을 방문해 지도하는 모습을 담음.

- 조선중앙TV는 10월 27일에도 김 위원장의 5월 중 현지지도 장면을 모아 만든 기록영화를 방송했었음.

● 민주조선, “남북관계는 밧줄당기기 아니다”(11/4,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4일 ‘북남관계가 밧줄당기기 경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원칙없이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는 “북남관계 문제를 서로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밧줄당기기 경기처럼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끼리의 관계”로 “북과 남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것”이지 “누가 끌어당기고 끌려가는 식으로 문제를 설정”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토지정리로 수천 정보 경작지 새로 확보(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사회주의 조선의 대지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8년 토지정리 사업을 지시한 이후 “수십만 정보의 토지가 정리돼 수천 정보의 새 땅이 생겨났다”고 9일 주장
- 이 기간 강원도와 평안북도, 황해남도에서는 토지 20여 만 정보가 정리돼 9만1천여km의 논두렁이 5만3천여km로 줄고, 151만5천여개였던 논배미는 55만7천 여개로 줄어 6천120여 정보에 이르는 새 경작지를 얻었다고 신문은 설명, 평안남도, 평양시에서는 토지 9만4천400여 정보를 정리해 1천530정보의 새 땅을 얻어냈다고 보도
- 노동신문은 또 지난 10년동안 “서해안 일대에서 대자연 개조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져 수천 정보의 간석지가 개간”됐으며 그 결과로 “수십km의 해안선이 줄어들고 10개의 섬이 육지로 변했다”고 주장. 황해남도 강령군의 청수도 간석지, 평안남도 온천군의 금성 간석지 건설이 끝났고, 평안북도의 대계도 간석지 건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신문은 소개

● 금융위기 속 北채권가격 3개월 새 반토막(11/8,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 가격이 최근 3개월새 ‘반 토막’이 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북한에 돈을 빌려준 서방은행들이 이의 일부라도 찾으려고 1994년부터 발행한 북한 채권의 현재 거래가는 액면가의 10분의 1정도인 1달러당 12센트인데, 이는 3개월 전 25센트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도
- 방송은 “북한이 서방은행에 갚아야 할 빚은 모두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 채권은 2002년 핵문제가 터진 후 10센트대로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30센트까지 오르기도 했었음.
-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 금융 중개회사인 이그조틱스사의 스투어트 컬버하우스 수석경제분석가는 “지지부진한 6자회담의 진행과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금융 위기가 북한 채권의 거듭되는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고 설명. 미 국무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북한채권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 그는 “국제적 신용위기, 불안감 등이 모든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면서 “금융위기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6자회담에서 어떤 진전이 있어도 북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들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망

● 北, 쌀 수확 200만t…작년 대비 70% 증가(11/7,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 소리 방송)

- 북한의 올해 쌀 생산이 지난해 120만t보다 70%가량 많은 200만t 가까이 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앙리 조세랑 세계정보·조기경보국장이 언급
- 그러나 그는 7일 방송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쌀과 옥수수 잡곡 등을 모두 합한 곡물 생산량은 북한의 작황을 실제로 최근 조사한 결과 FAO의 ‘11월 식량전망 보고서’가 추정한 540만t에 “전혀 근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 이와 관련,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수해와 만성적 식량난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대북 긴급 식량지원을 위해 최소 6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

- 마커스 놀란드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최근 공동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전체 인구의 3~5% 가량인 60만명이 기아로 사망한 1990년대 상황 정도는 아니지만 “기아와 관련한 사망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강조
- 한편 북한의 임신부와 어린이 지원사업을 펼치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긴급지원국의 패트릭 메코믹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올해 12월까지 1천500만 달러를 목표로 모금했지만 지난달 말 현재 목표액의 45%인 678만 달러가량 확보했다면서 일부 사업의 취소나 축소 가능성을 시사

● 北, 2009년부터 월1회로 시장 규제(제248호, 오늘의 북한소식; 11/6, 연합)

- 북한의 내각이 2009년 1월부터 매월 1일 하루만 시장을 열도록 하겠다는 지시문을 하달했다고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6일 주장, ‘오늘의 북한소식’ 248호에서 “이 문건에서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백성들이 무질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통제와 범규칙을 강화하고, 중앙당의 결정에 도전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 북한 당국은 특히 평양시를 이번 조치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10월 10일부터 모든 구역에서 매달 10일, 한달에 한번만 시장을 열도록 했으며 이는 그동안 매달 1, 11, 21일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소식지의 설명, 소식지는 평양의 한 간부의 말을 인용, 이번 조치는 “(장사) 나이를 제한하던 것에서 한 차원 더 강화된 것으로, 앞으로 시장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중앙당의 의도”라고 소개
- 북한 당국은 평양시의 공장 노동자 대상 강연회를 통해 “2009년 2월부터는 나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모든 물건 값이 지금보다 완전히 떨어지고 나라 경제가 성장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로 “더 이상 장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강연회에서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조치를 잘 알고, 근로자들이 쓸데없는 말썽과 의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며 “청진시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

● 北, 南원자재 비누·신발 등 주민에 공급(11/4, 자유아시아방송)

- 남북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따라 북한에 제공된 원자재로

만들어진 비누와 신발 등의 제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라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4일 보도

- 방송은 남한에서 지원한 경공업 자재로 만든 비누와 신발 등이 평양시와 신의주 등 북한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된 결과, 최근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은 “빨랫비누의 향이 좋고 거품이 잘 일어 속옷과 내의류 등 고급 의류를 세탁하는데만 사용했다”면서 “역시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원료로 만든 신발이 일품이다”는 평가가 주민들 속에서 나온다고 설명
- 중국의 대북 무역업자도 “(북한 당국이) 1가구당 한달에 빨랫비누 2장과 세숫비누 한장씩을 공급했고, 개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운동화 1켤레씩 줬다”면서 “운동화는 품질이 좋아 시장에서 한 켤레에 2만원, 빨랫비누는 1천 5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보도

● 北, 2022년까지 과학기술 5개년계획 연속 추진(2008년 11월, 조국)

- 올해부터 과학기술발전 제3차 5개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이 되는 2022년까지 5개년계획을 연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북한의 리의구 국가과학원 부원장이 언급
- 이를 위해 과학기술 투자를 국가총생산액의 3% 정도로 끌어올리는 여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리 부원장은 소개, 리 부원장은 올해 시작된 제3차 5개년계획의 목표에 대해 “과학기술발전의 기여율을 30% 수준에 올려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재의 기여율이 어떤지는 설명하지 않음.
- ※ 북한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2차례의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추진했고,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2차례의 5개년 계획을 진행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황남 장수산에 40km 탐방로 조성(11/2, 노동신문)

- ‘황해 금강’으로 불리는 북한의 장수산에 40여km의 ‘윤환선 탐승도로’와 전망대가 만들어지고 탐방객들을 위한 여관과 민속놀이장 등이 건설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신문은 ‘서해 명산 장수산에 새로 건설된 윤환선 탐승로를 따라서’라는 기행문을 통해 지난 2003년 6월 이곳을 시찰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2년여의 공사 끝에 “100여 리의 율환선 탐승도로를 새로 닦아 놓았다”고 보도

● 김책공대 홍수예방 프로그램 개발(11/6, 조선중앙방송)

-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센터가 홍수의 진행 과정을 예측해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큰물(홍수)피해 방지 지원체계’를 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6일 보도. 이 체계는 ‘숫자식 지도(디지털지도)’를 3차원적으로 모형화한 뒤 홍수 발생 우려 지역의 지리·지형 정보와 기상수문기관이 제공한 강수량, 강물의 수위와 유속, 저수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홍수의 진행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짐.

● 조선옷전시회 개막(11/4, 조선중앙통신)

- 제6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리주오 경공업상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전시회에는 1천600여점의 의류가 일상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으로 나누어 전시되며 전시회기간 옷만들기에 대한 강연도 진행됨.

● 북한의 교예단 최고상 수상(11/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교예단이 중국 우한에서 10월 31일 끝난 제8차 우한국제교예(서커스)축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4일 보도

● 北문학지, “생활을 밝게 그리자”(10/25, 문학신문)

- ‘문학신문’ 최근호(10.25)는 ‘생활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라는 평론을 통해 “생활을 미화 분식하는 것도 진실성에 손상을 주지만 무겁게, 어둡게 그리는 것 역시 진실이 아니다”며 문학작품 창작에서 ‘낭만’과 ‘희망’을 담을 것을 작가들에게 주문
- 신문은 비료부족으로 북한 당국이 힘을 쏟고 있는 퇴비 생산에서 놀라운 실적을 올린 한 농장원을 다룬 단편소설을 사례로 들어 이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독자들을 감동시키려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비바람이 억세게 부는 날, 달 없는 캄캄한 밤의 풀베기”를 주로 그렸으며, “주인공들은 너무도 근엄하며 오직 일에 대한 말만 주고받는다”고 지적하

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소설을 인위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평

- 신문은 작가들에 대해 “피상적인 관찰, 주관적인 견해로 눈에 띄는 생활의 이런저런 형상을 본질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생활의 진실이라고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생활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낙관이고 확신이며 오늘에 대한 낭만”이라고 밝은 면을 그릴 것을 주문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힐, “6자회담 조속 개최 합의”(11/7, 연합)

- 미국 행정부가 정권 이양기에 들어간 가운데 6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이 뉴욕에서 연쇄 접촉을 갖고 북핵 검증 이행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뤄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전망
- 힐 차관보는 6일 저녁 뉴욕의 한 식당에서 김 특사가 배석한 가운데 리 국장과 식사를 겸해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북핵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실히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6자회담을 최대한 빨리 열고자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힘.
- 힐 차관보는 지난달 평양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다며 “과학적 절차에 의한 검증이 시료채취를 포함한 다양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서로 완전히 이해했고 양측간에 실질적인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료채취에는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6자회담 틀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임.
- 리 국장은 검증문제의 진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까지 진전이 있었는데 더 무슨 진전이 필요하냐. 이미 다 합의됐는데..”라고 답변
- 힐 차관보는 6자회담 일정과 관련 “날짜를 정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장국인 중국이 날짜를 최대한 빨리 정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6자

회담 날짜를 정하는 것은 중국에 달려있음을 지적하고, “우리가 날짜를 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11월 말까지 뭔가 결과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12월 넘어서까지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6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

- 이에 대해 리 국장은 “6자회담은 우리와 미국이 결정하는게 아니고, 의장국인 중국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서로 연계해야 될거 같다”고 애매하게 말해 양측 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남아있음을 내비쳐 실제 6자회담이 성사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힐 차관보는 미국의 정권이양과 관련한 북핵 협상에 대해 “정권 이양기에 새 정부에 완전하게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새 정부가 어떻게 진전을 이룰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정권이양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확인하고자 하고 있고, 나는 완전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

● 北, 핵시설 샘플채취 불허 통보(11/6, 교도통신)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북한내 핵시설 검증을 위한 샘플 채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6일 보도. 교도통신은 박의춘 외무상이 10월 15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만나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
- 박 외무상은 당시 회담에서 북핵 당사국들에게 핵시설 접근과 핵프로그램 관련 자료 논의 및 해당 인력과의 인터뷰는 허용하겠지만 검증 과정에서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물질도 북한 영토 밖으로 유출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나. 북·미 관계

● 北·오바마 당선인측 첫 접촉(11/8, 연합뉴스)

-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당선인측이 북한 정부 대표단과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첫 접촉을 가짐.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중인 북한 외무성 리 근 미국국장과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가 7일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 주최 한반도 전문가 회

의에 함께 참석한 것

- 이날 회의에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윈스턴 로드 전 동아태차관보, 스테이플턴 로이 전 주중 대사, 도널드 자고리아 현태대 정치학과 교수, 또 리 국장과 북핵 협의를 가진 성 김 미국무부 북핵특사 등이 참석했지만, 관심은 차기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진 자누지와 리 국장간의 대화 내용에 모아졌음.
- 특히 리 국장은 전날 북핵 협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여러 행정부를 대상(상대) 해 왔고 우리와 대화하려는 행정부, 우리를 고립하고 억제하려는 행정부에도 대상했다”며 “우리는 어느 행정부가 나와도 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에 맞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오바마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
- 그러나 평소 북·미 접촉시 극도로 발언을 자제해 왔던 북측 대표가 ‘오바마 당선에 관한 의중’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건 답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힌 것은 북측이 오바마 정권과의 직접 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 리 국장과 전날 만찬회동을 가진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북미 간 현안이 오바마 정부로 제대로 인수인계되는지 (북측이) 확인하고 싶어 해,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했다”고 밝혀 북한의 관심이 현 정부 대화 채널이 아닌 차기 정부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
- 이날 NCAFP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이뤄져 자누지와 리 국장의 구체적 발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음.

● 北, ‘오바마 당선’ 이틀만에 신속 보도(1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7일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보도. 조선중앙방송은 7일 오후 9시15분 “미국에서 4일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국회 상원의원, 47살, 흑인,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당선됐다”며 “오바마는 내년 1월에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게 된다”고 논평없이 보도
- 그러나 방송은 “그는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상원의원 매케인을 많은 표 차이로 물리쳤다”고 밝힘. 북한이 이번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이틀

만에 신속하게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주목

※ 2000년 11월 7일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으나 북한 매체들은 침묵하다가 조선중앙방송이 10여일 뒤인 18일 대선 실사를 논평없이 보도했었으며, 2004년에는 미 백악관이 11월 3일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사실상 선언하고 닷새가 지난 9일 노동신문이 “재선된 미국 대통령”이라는 말로 부시 대통령의 재선 사실을 전달

● 北, 美에 아태지역 무력철폐수 요구(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과 그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한다며 아태지역에 배치된 미군 기지의 철수를 주장
- 신문은 이어 과거 소련의 남하 방지를 이유로 이 지역에 미군 무력을 주둔시켰다면 “냉전이 종식되고 군사적 경쟁 대상이 없어진 오늘에 와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기지와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을 조건과 명분이 없다”고 강조

● 北, 美 팜기지 확대계획 비난(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무모한 선불질 기도를 버리라’ 제하 논평에서 미국이 팜을 태평양지역 전략지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운 데 대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에게도 정당방위, 자주권 수호를 위한 선제공격의 선택권”이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이어 “적들의 선제공격 기도에 대비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

다. 북·일 관계

● 日, 北 우라늄 강제 재조사 주장 안해(11/5, 연합)

- 일본 정부는 북핵 6자회담 예상 합의문에 대해 입장을 원만하게 정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일본 고위 외교관이 4일 밝힘. 북핵 현안에 정통한 이 외교관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대한 강제적인 재조사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 합의문에 북한의 플루토늄

검증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언급, 또한 플루토늄량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북한 핵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한다는 북·미 간의 협의 내용이 문서에 세부적으로 기술돼야 한다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대표, 유엔 연설서 日 과거청산 촉구(1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표가 10월 29일 유엔총회 제63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일본만은 여전히 지난 시기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에서 감행한 엄중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배상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과거청산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그는 또 일본 당국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동포들도 차별·탄압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깨끗한 과거청산과 현실 자각이 없이는 밝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 北, 日·EU 대북 인권결의안에 “주권 침해”(1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부당한 인권소동’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유엔 총회에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하려는 것은 “자주적인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행위”라고 비난
- 통신은 특히 일본을 지목, “일본은 전대미문의 인권범죄를 청산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인권에 대해 논할 여지도 없다”며 “오늘 일본은 타민족에 대한 극심한 배타주의로 지난 시기의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새로운 인권죄악을 덧쌓고 있다”고 주장
- 통신은 또 만경봉 92호의 입항 금지로 인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회원들의 가족상봉이 차단됐으며 “저들의 인권범죄의 피해자들인 재일동포들에 대한 태도는 인권존중의 초보도 갖추지 못한 일본의 후안무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

※ 일본과 EU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63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제3위원회는 결의안에 대해 11월 말 표결, 총회로 넘기게 됨.

● 北, 日 조총련 산하단체 수색 비난(1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제 손으로 제 눈 찌르는 격의 자살행위’ 제하 논평에서 일본 공안 당국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산하단체 압수수색을 ‘납치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에 압력이 필요하다’는 우루마 이와오(漆間巖) 일본 관방부장관의 발언과 연관지으며 “우리 공화국(북한)을 압박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본 반동들 특유의 간악하고 비열한 흥계의 산물”이라고 비난

라. 기타 외교 관계

● 북·카타르 문화협조 협정 체결(11/9,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카타르가 5일 카타르 도하에서 정부간 문화협조 협정을 맺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카타르 주재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카타르측에서 문화예술유산성 총서기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보도

※ 북한은 1993년 1월 11일 카타르와 수교

● 북, 이란과 우호협력관계 증진(11/7, 신화통신)

- 북한이 이란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7일 보도

- 통신은 6일 양형섭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방북 중인 모하마드 아크바리 이란 부통령을 위한 리셉션 석상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보도. 양 부위원장은 “제국주의와 미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면서 형성된 양국 유대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언급

- 아크바리 부통령도 연설을 통해 “이란과 북한 양국 지도자들이 만들어온 양국 우호협력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

- 이란 민족청년조직을 이끌고 6일 평양에 도착한 아크바리 부통령은 7일 북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과 교류·협조 양해문을 체결

● 김영일 北외무성 부상, 미얀마 방문(11/7, 연합)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6일 오후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도착해 5일간의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고 미얀마 관리가 보도. 김영일 부상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미얀마 간 협력 강화 방침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니안 윈 미얀마 외무장관도 10월 27일 북한을 방문해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면담, 북한과 미얀마는 지난 1975년 수교했지만 1983년 10월 발생한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인해 단교했다가 지난해 4월 다시 외교관계를 복원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군수 물자 교역 제재를 받고 있는 미얀마는 최근 북한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프랑스단체, 北지방병원 3곳 재건 지원(11/7,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미어 어전스’가 지원하는 북한내 지방병원 3곳의 개보수 공사가 내달 마무리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이 단체의 아시아 담당인 린젤씨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보건성이 2007년말 홍수로 파괴된 병원 3곳에 대한 복구공사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평남 평성시의 도(道)병원은 이미 공사를 마쳤고, 황북 토산군 병원은 이달 말, 남포시 병원은 다음달 말 공사가 끝난다고 밝힘.
- 그는 병원 재건사업의 중요부분 중 하나로 의료장비와 기구들을 구비하는 것을 들고, “중국과 유럽에 주문한 의료장비들이 모두 도착하는 다음달 경이면 재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언급, 이들 병원 3곳의 개보수 비용으로 스웨덴 국제개발청과 프랑스정부가 지원한 80만달러가 투입됐으며, 완공되면 1년에 1만1천5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 이 단체는 2009년에는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북한에서 토끼 사육과 같은 식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포함한 내년도 대북지원 예산으로 90만달러를 책정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 北리희철 스웨덴 대사, 핀란드 대사 겸임(11/6,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리희철 스웨덴 주재 대사가 핀란드 대사를 겸임한 것으로 알려짐. 조선중앙방송은 6일 리 대사가 지난달 31일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보도
- 리 대사는 스웨덴에 주재하면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대사도 겸직
- ※ 북한과 핀란드는 1973년 6월 1일 수교 후 방송협조협정, 섬유협정 등을 체결

3 대남정세

● 北군부, 개성공단 현지 실태점검(11/8, 연합)

- 북한 군부가 지난 6일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짐. 정부 소식통은 8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인 김영철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부 조사단 6명이 6일 개성공단에서 공단 입주 업체 및 기반 시설들에 대해 실사를 진행했다고 보도
- 북측은 앞서 5일 국방위원회 명의로 조사단 방문 일정을 남측에 통보했으며, 당일 실사에는 우리 측 인사인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짐.
- 정부 소식통은 “조사단원들은 ‘실태요해’를 명목으로 공단을 방문, 현지 법 인장과 공장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오전 중 11개 입주업체들을 돌아보고, 오후에는 정수장과 오.폐수 처리장 등 기반시설들을 둘러봤다”며 “또 남·북측 근로자 수, 업체 현황, 봉급, 작업환경 등을 묻고 갔다”고 언급
- 특히 이들 조사단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철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취지의 언급까지 했다고 소식통은 보도

● 개성공단 탁아소설치 기금지출 심의(11/7, 연합)

- 정부는 내주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장 김하중 통일부 장관) 회의를 개최, 개성공단 탁아소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출건 등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짐.
-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지난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 이후 교추협 회의를 거쳐 남북협력기금 신규 지출을 의결한 첫 사례로 기록, 정부 소식통은 금강산 사건 이후로도 교추협을 거치지 않은 소액의 남북협력기금 지출은 있었지만 교추협 회의를 거쳐 신규로 기금을 의결한 건은 없었다고 보도

● 남북 통일염원 기도회 평양서 성료(11/6, 연합)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단 103명과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산하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교인 400여 명은 4일 오전 10시 평양 시내 봉수교회에서 3시간여 동안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회’를

개최, 이날 기도회에서는 특히 예배 참석자들이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으며 서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성찬식이 열려 의미를 더함.

- 미리 입장한 북측 교인들이 박수로 남측 참석자들을 환영하는 가운데 개최한 예배에서 강형섭 조선그리스도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단 60여 년이 흘러 해방둥이들은 어느덧 환갑을 맞아 머느리와 손자를 거느린 대가장이 됐다”면서 “통일을 후세의 손에 넘긴다면 이는 수치이자 민족에 대해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언급
- 권오성 NCKK 총무는 “기도하면 실현된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면서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 힘껏 기도하고,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공동번영을 간구하면 기도로 능히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강조

● 강진쌀 2천가마 ‘북한 간다’(11/6, 연합)

- 강진군은 “오는 10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사랑의 강진쌀 2천가마(가마당 20kg)가 북한 개성시 봉동역을 향해 출발한다”고 6일 보도. 이 쌀은 지난 6월초부터 강진군 등 각 기관과 사회단체, 주민 등이 모금한 8천만원으로 마련, 강진쌀은 차량으로 남·북측 출입구사무소를 거쳐 11일 오전 개성시 봉동역에서 북한에 전달
- 전달식에는 황주홍 강진군수, 이삼현 강진군의회의장, 관내 5개 종교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며 사랑의 쌀 전달과 함께 내년 8월로 예정된 청자 뱃길 재현사업 등 현안에 대해서도 북측 관계자와 논의할 계획

●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 표명(11/6, 통일부)

- 통일부는 6일 계속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뺨라)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제를 거듭 요청,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임진각 지역에서 남북자가족모임 등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 10여만장을 살포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련 단체들에 그동안의 남북간 합의정신과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전단 살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고 밝힘.

●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 관광 중단에도 투자 지속

- 금강산 관광 중단이 4개월째에 이르고 있지만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음. 4일 금강산 골프장 운영사인 에머슨 퍼시픽에 따르면 아난티 골프장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임직원 25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80여명이 상주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식당, 노천카페 등도 오픈 준비를 마치고 객실 내 시설을 업그레이드 함.

● WFP 식량실태 평가 이후 北지원 결정(11/3,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3일 대북(對北) 인도적 식량 지원과 관련,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식량사정평가를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언제든 북한에 식량을 제공할 준비는 돼 있지만, 북한이 현재 추수중인 만큼 상황을 보고 있다”고 언급
- 김 장관은 북한의 현재 식량 사정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

11.10-11.16

11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경제 관련
- 나. 김정일 동향
- 다. 기타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일 관계
- 다.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조선중앙TV, 김정일 공연관람 모습 공개 안해(11/16, 조선중앙TV;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TV는 16일 오후 5시 뉴스 시간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 공연을 관람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모습은 단 한 장도 내보내지 않은 채 북한군 중대군인들의 공연사진 12장만을 공개
 - 앞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새벽 일시나 장소를 밝히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이 김격식 군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을 비롯한 고위군 간부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 당 간부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32차 군무자 예술축전에 참가한 해군 제155군부대 관하 함(艦)과 제833군부대 관하 중대, 제1313군부대 관하 중대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
 - 중앙TV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 공연은 20여 명이 나란히 앉으면 딱찰 정도로 폭이 매우 좁은 소극장에서 진행됐으며 공연장에는 계단식 무대가 설치돼 있고, 무대 뒤쪽에는 군부대 마크로 보이는 4각형 깃발 12개를 만국기처럼 줄에 매달아 놓은 장식물이 걸려 있었음.
 - 중앙TV는 북한 해군 군인 87명이 계단에 앉은 채로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율동을 하며 합창하는 장면, 80여 명의 여군들이 일부가 분홍빛 조화를 흔드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하는 장면, 남자 군인 4명의 합창 장면,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남자 군인 3명이 소총을 메고 공연하는 장면 등이 담긴 사진을 내보냄.
 - 그러나 12장의 사진은 북한 군인들의 공연 모습만을 조금 멀게 또는 가깝게 찍은 것들이며, 무대 이외의 관람석 모습이나 김 위원장이 관람하는 모습 등은 찾아볼 수 없어 이들 사진이 실제로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때 촬영된 것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음.
 -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공훈국가합창단과 만수대예술단 등 중앙 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던 11월 6일에는 관련 사진을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음.

● 김정일 전용 열차 움직임 없어(11/15, 도쿄신문)

-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 8월 중순 이후 그가 이용하는 특별 열차가 평양에 있는 전용 역에서 정치한 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5일 보도

● 김정일, 10월 말 두번째 뇌졸중 발생(11/11, 일본 민방 TBS)

-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10월 하순에 두번째로 뇌졸중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미국 당국이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민방 TBS가 11일 보도. 방송은 한국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가 이런 정보를 확인해 줬다고 밝힘.

나. 정치 관련

● 北, 10·4선언 이행이 금강산관광 재개 길(11/15, 통일신보; 11/16,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이명박 정부가 “하루빨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며 “여기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고 북남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에 따르면, 신문은 금강산관광 개시 10주년(11.18)을 앞두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외세와 공조를 추구”하는 한 “금강산관광이 순조롭게 될 수 없고 북남관계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
- 신문은 남한 정부가 “올해 7월 뜻하지 않게 발생한 남조선 관광객 사망 사건을 반공화국 정치적 도발의 구실로 삼아 북남관계를 더욱 험악한 대결로 몰아가고, 나중에는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비난 공세
- 신문은 아울러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사실 공화국(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금강산 지역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며 당시 “정주영 선생의 소중한 마음을 귀중히 여기고 애국애족의 대응단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금강산이야말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무지개 다리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생동한 현장이었다”고 강조

- 北, '통미봉남론' 일축(11/15, 통일신보; 11/16,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공화국의 입장은 일관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관계를 단절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미국 대선 후 제기되고 있는 통미봉남론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조(북)미 사이 관계개선 문제는 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해결할 문제로 남조선(남한) 당국이 여기에 간섭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주장

- 北, 남북대화 분위기 마련돼야(11/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북침전쟁연습은 평화위협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15일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촉구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북남대화가 이뤄지려면 우선 그에 필요한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 北, 남북대화 중단 남측 책임 주장(11/14,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은 '북남대화는 왜 중단되었는가'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대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활발히 추진"됐는데, 이 대통령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면서 '비핵·개방·3000'이란 것을 이른바 대북정책으로 내들었다"며 남측 책임을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신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는 자들과 마주 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진심으로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그 이행의지를 밝히고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

- 김정일 9.5담화는 시정연설(11/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평양발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이 정권수립 60주년(9.9)을 맞아 노동신문 및 민주조선에 보낸 담화가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10월 10일 북한 언론에 공개된 이후 한달 동안 북한의 내부 동향을 소개
 - 신문은 특히 노동신문이 '담화'를 공개하기 전인 10월 2일 게재한 '인민이여 천만년 잊지 말자'라는 제목의 정론을 "누구나가 무심히 보지 않았다"며

“인민들은 지면을 통해 삼복철의 무더위를 헤치고 강행군을 이어나가신 영도자의 정열과 숭고한 뜻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전함.

다. 경제 관련

● 北, 심각한 전력난(11/16, 로이터통신)

- 로이터는 최근 남북 민간 단체 간 세미나 참석을 위해 나흘 일정으로 방북했던 한국인들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최근 전력난 실상을 16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이들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수속 과정부터 전력 부족에 따른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는데, 입국수속 과정에서 공항 터미널 컴퓨터 전원이 꺼지자 수속을 하던 한 북한 관리가 “어찌된 일이야”라고 불평을 쏟아냈으며, 다른 직원은 문 밖에서 비쳐지는 희미한 빛을 이용해 이들의 입국 수속을 진행하려 애를 썼지만 여의치 않았음.
- 통신은 또 입국후 평양에 들어간 후 해가 저물어 거리에 어둠이 깔렸으나 가로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아 주민들은 서둘러 귀갓길을 재촉하는 모습이었다고 전언
- 밤이 되면서 일부 아파트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나오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칠흑같은 어둠속에 쌓여있어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었음.
- 통신은 이어 정전이 한국 방문객들이 북한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도중에도 발생했는데, 실제 정전인지 아니면 연출 상황인지 몰라 박수를 쳐야 할 지 어색한 상황도 발생했다고 전언

● 北, 먹는 문제 해결은 중대 정치사업(11/1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식량문제는 북한의 현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 고리”인 만큼 이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독려

● UNDP, 北과 사업재개 방안 논의(11/14,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이 대북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북한측과 본격 논의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UNDP 이사회의 승인이 날 경우 상반기 중 평양사무소가 다시 설치돼 대북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UNDP 실무진이 일주일간 평양을 방문해 대북사업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고 지난 주말 미국으로 귀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현재 북한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a package of measure)이 마련되고 있다”고 언급

● **대북진출 오라스콤, 노키아와 협력 계약(11/14, 자유아시아방송)**

- 대북 사업을 벌이는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10월 27일 세계적인 통신회사인 핀란드의 노키아와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라스콤 텔레콤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에 노키아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노키아는 앞으로 오라스콤에 음악과 동영상, 네비게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라스콤측은 “노키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오라스콤사가 진출한 나라의 모든 오라스콤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올해 김장배추 작황 좋은 듯(11/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북한에서 연례적인 장마나 가뭄으로 늘 부족하던 김장배추가 올해는 비교적 풍작이라고 전망, 조선신보는 11일 김장배추를 실은 수송차량이 평양시내를 달리는 장면을 묘사한 기사에서 “보기도 한아름은 될 것 같은 통진(속이 짝 찬) 배추와 실한 무들은 올해의 남새(채소)농사 작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언

● **엔벤 대북무역 83% 증가(11/11, 연변일보)**

- 중국 엔벤(延邊)조선족자치주의 대북무역이 올해 들어 9월까지 크게 증가, 동포신문인 연변일보는 11일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무역수출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엔벤조선족자치주)의 대 조선(북한)무역이 쾌속 성장했다고 주정부가 밝혔다”고 보도
- 신문은 “통계에 따르면 9월까지 우리 주의 대 조선 수출입무역액이 3억3천 432만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동시기에 비해 82.72% 증가한 것”이

라며 “그중 수출액이 1억5천971만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동시기에 비해 47.1%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

라. 사회·문화 관련

● 17세 이하 여자축구월드컵 우승 보도(11/1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여자축구팀이 16일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축구 월드컵 결승전에서 미국팀을 2대 1로 꺾고 우승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외국서 교정기구 생산라인 도입(11/15, 조선신보)

- 북한의 장애인 교정기구를 생산하는 함경남도 함흥시 함흥영예군인(상이군인)교정기구공장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수입한 생산라인 운영을 위해 해외에서 기술교육을 받았다고 조선신보가 15일 보도
- 신문은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2006년 유럽연합(EU) 보건기구의 협력을 받아 폴리프로필렌 교정기구 생산라인을 수입해 설치했다며 EU 보건기구 관계자들이 직접 함흥 공장을 방문해 기술도 전수했다고 보도

● 北여자축구, 리금숙 은퇴할 듯(11/14, 조선신보)

- ‘아시아 최강’인 북한 여자축구팀의 간판 골잡이 리금숙(30)이 최근 결혼함에 따라 현역선수 생활을 그만 둘 가능성이 크다고 조선신보가 14일 보도. 신문은 “베이징올림픽 준결승팀인 브라질과 예선경기에서 득점한 것이 국가종합팀 경기조직자, 공격수로서 그(리금숙)가 차 넣은 마지막 골이 될 것 같다”고 그의 대표팀 은퇴를 기정사실화함.

● 평양 면모일신, 유경호텔 3년내 완공 예정(11/12, 연합)

- 북한이 수도 평양에 아파트를 짓는 타워크레인이 새 마천루를 형성하고 있고 16년간 폐허처럼 방치됐던 류경호텔 건설 공사가 재개됐으며 각종 건설 현장에 쓰일 석재 채취를 위해 거대한 준설 장비와 바지선이 강을 메우고 있음.
- 평양 소식통들은 북한 당국이 건국 60주년인 올해 이처럼 대대적인 공사를 벌이는 것은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12년까지 평양을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봄.

- 류경호텔 공사는 아랍에미리트(UAE) 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 첫 장애인 '예체능 훈련장' 건립(11/10, 조선신보)

- 북한이 처음으로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예체능 훈련장 성격의 '청소년예술 및 체육양성센터' 건설을 추진, 연내 문을 열 예정이라고 조선신보가 10일 보도

-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가 평양시 대동강구역에 짓고 있는 이 센터의 건립은 "예술과 체육에 소질과 취미를 가진 장애자들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주어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신문은 소개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정부, 6자차원 대북지원 집행(11/16, 연합)

- 정부가 핵 검증에 대한 북한과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핵시설 불능화의 대가로 주기로 돼 있는 경제·에너지 지원은 조만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외교 소식통은 16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핵시설 불능화와 연계된 것"이라며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이미 생산이 완료된 강관 3천t은 곧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

-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중·러 등 4개국은 북핵 비핵화 2단계인 신고·불능화의 대가로 북한에 '중유 95만t 상당'의 지원을 제공키로 하면서 이중 45만t은 중유, 나머지 50만t은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로 지원하기로 했었음.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중유 5만t과 중유 약 6만6천t에 상당하는 에너지관련 장비와 자재를 제공했으며 북에 주기로 합의한 물량 중 미제공분인 자동용접강관 3천t의 생산도 10월 말 생산이 끝나 언제든 지원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국 등 다른 참가국들도 약속된 중유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조선신보, 시료채취는 불능화단계 후 논의 가능(11/1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5일 북한이 핵검증의 최대 관건인 시료채취에 대해 핵시설 불능화 단계가 아닌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나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 신문은 “플루토늄에 대한 시료채취로 조선(북)이 추진한 핵계획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단서를 확보하는 시점이라면 마땅히 미국을 포함한 5자도 그에 상응한 행동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은 비핵화 노정이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지적
- 신문은 특히 “무력화(불능화) 단계는 핵시설 폐기 과정의 도입부에 지나지 않으며 핵무기 문제의 논의는 조선이 현존 핵계획을 포기한 다음의 의제”라고 주장, 시료채취가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사안임을 시사
- 신문은 북·미 합의에 시료채취가 포함됐는지 논란에 대해 “핵시설의 무력화 단계에서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행되는 검증에는 그것(시료채취)이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금후의 비핵화 노정을 내다보며 조·미가 검증문제를 논할 수 있고, 그 어떤 사항을 구두로 확인할 수도 있다”고 언급
- 신문은 검증과 관련해 북·미가 “문구로 합의한 내용”은 ‘10·3합의 완결 이후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 인터뷰’로 “한정적인 것”이었다고 지난 12일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내용을 재확인한 뒤 “10·3합의 이행 완결을 위해 6자 단장회담이 열릴 경우 각 측이 토의할 사안을 규제하는 것은 조미가 서명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

● **美, 시료 채취는 근본적 합의사항(11/12, 연합)**

- 미국은 12일 북한이 핵신고 검증의 핵심인 시료 채취(샘플링)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전문가들이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북한 밖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미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밝힘.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료 채취를 포함한 과학적 절차를 따라 핵시설을 검증한다는 10월 11일 북미간 합의내용을 되풀이하며 이같이 언급
-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시료 채취 거부 입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샘플링을) 허용 하느냐 아니냐에 관해선 말하지 않겠다”며 직접적 언급을 피함. 그는 “지금 이 같은 일부 언론 보도들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며 “나는 단지 샘플링 이슈와 관련해 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해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임.

-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북핵 검증에 관한 북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된다고 밝혀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음.

● 美, 北에 중유 5만t 제공(11/12, 연합)

-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 정부는 12일 북한에 제공할 중유 5만t을 선적하고 있다면서 중유가 11월 말이나 12월 초 북한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국무부 로버트 우드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는 행동 대(對)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의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北외무성, 북핵 시료채취 거부(11/12, 북한 외무성)

- 북한 외무성은 12일 북핵 검증에 관한 북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 “검증 방법은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 된다고 밝혀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함.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지체되는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그릇된 여론을 내돌리는 세력”이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더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
- 담화는 10월 초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때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10·3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전제로 취하게 될 검증조치들이 “문구로 합의됐다”며 서면합의된 검증방법에 시료채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 담화는 “검증대상은 2·13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궁극적으로 폐기하게 될 영변 핵시설로” 하고, “검증시기는 10·3합의에 따른 경제보상이 완전무결하게 결속된 이후로 한다는 것”이 당시 서면합의의 골자라고 언급
- 담화는 북미 간 검증합의 때 특히 북한의 “특수상황”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봤다”고 주장하며, 그 특수상황은 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하고 NPT 밖에서 핵시험을 진행하여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포한 나라이며 6자회담은 현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두번째 단계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

나. 북·미 관계

● 재미교포 84명 北이산가족 상봉(11/15, 자유아시아방송)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84명의 재미교포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북한의 가족을 만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15일 보도
- 국무부는 11월 10일 상하원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미국 시민과 북한 가족 간 상봉에 관한 보고서'에서 "한국계 미국 시민 84명이 남북한 정부가 주관한 16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다른 한국 국적 친지들과 함께 간접적으로 북한의 가족들을 만났다"고 밝힘. 국무부는 특히 현재 북·미 간 외교 관계가 수립돼 있지 않지만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면 정부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사관, 영사관, 연락사무소 등 외교공관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당한 시기에 다루게 될 것으로 전망
- 이어 미국 외교공관이 평양에 설치될 경우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와 북한 가족 간 상봉을 주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국무부는 또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일환으로 완전한 외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 간 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현재의 법적, 외교적 환경 속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주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도

● 美 의회조사국, 北테러지원국 해제 비판(11/13, 요미우리신문)

-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것과 관련, 미국 의회 조사국이 "김정일 정권이 중동 테러그룹이나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거나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에 배포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
- 보고서는 또 "미국이 향후 중동에서의 북한의 활동에 대처하려 해도 더 이상 협상의 지렛대가 없어졌다"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따라 북한의 중동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억제력이 없다고 지적

- 2009년 美유명미술관서 北미술 전시회 개최(11/1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현대 미술작품 전시회가 2009년 하반기 미국의 뉴욕 또는 워싱턴에서 유명 미술관 주관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
 - 그동안 미국에서 북한 미술품 전시회는 재미 한인들에 의해 소규모로 열린 적은 있지만, 미국의 유명 미술관이 주최하는 대규모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RFA는 설명

다. 북·중 관계

- 북, 중국인 육로관광 차단(11/13, 연합)
 - 북한이 10월 중순부터 중국인들의 육로 관광을 사실상 차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 북한 국적의 화교인 조교(朝僑)나 중국 체류 북한인들의 열차를 이용한 월경(越境)도 신분 확인 검사가 까다로워졌다고 신의주와 인접한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소식통들이 13일 보도
 - 단둥 K여행사 관계자는 이날 “10월 중순 이후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베이징(北京)과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항공편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 북한 나진·선봉과 인접한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에서도 11월 부터 북한으로의 기차 여행이 중단됐으며 훈춘의 여행 중단은 북한이 매년 할당하는 관광객 쿼터(quota)가 소진된 것이 원인이라고, 그러나 단둥 여행업계 관계자는 “단둥은 아직 쿼터가 남아 있는데도 북한이 항공편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언급
 - 북한을 드나드는 단둥의 무역업자들도 북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북한으로 싣고 간 물자를 북한 내에서 이동시키는 데 애를 먹고 있음.
- 中, 北 혼란 대비해 국경에 병력 증강(11/13, 파이낸셜타임즈)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가면서 중국은 지난 9월이후 북한과 접경지역에 군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울타리 설치도 늘리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13일 보도

● 北리근, 中에 北美회동 결과 설명(11/12, 연합)

- 북한이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북·미 간 회동 결과를 중국측에 설명하고 북핵 6자회담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짐. 뉴욕 방문을 마친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은 11일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12일 중국 외교부를 방문, 중국 측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고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이 전언
- 리 국장은 11일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미 기간에 좋은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미국 방문이 성공적이었느냐는 질문에 “잘 진행됐다”고 답변, 리 국장은 고려항공 정기운항일인 13일 오후께 북한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

라. 북·일 관계

● 北, 日에 추가 납치 피해자 존재 시사(11/13, 교도통신)

- 북한이 지난 6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실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일본측에 대해 추가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3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일본과의 물밑 협상 과정에서 북한측은 양측간 협상 진전을 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17명 이외의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정보 및 17명의 안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음.

● 민주조선, 日 6자회담 참가명분 희미(11/11, 민주조선)

- 북핵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조선은 ‘논리적 사고능력 이 마비된 자들의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11일 북한으로서는 “회담의 진전에 장애로 되는 일본을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거듭 주장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 이란 주재 대사에 서세평 임명(11/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이 김창룡 이란 주재 대사의 후임으로 서세평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6일 보도. 서 신임대사는 카라치 주재 북한총영사관

영사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약력은 확인되지 않음.

※ 북한과 이란은 1973년 4월 수교

● 北공군사령관, 쿠바 방문(11/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쿠바를 방문하는 공군사령관 리병철 상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 공군대표단이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리 사령관의 쿠바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올해 초 공군사령관에 오른 리 상장은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하는 등 북한의 공군이 최근 해외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어 주목

※ 북한과 쿠바는 지난 9월 경제교류와 관련한 두 건의 의정서를 체결했으며 10월에는 북한이 잇단 허리케인 피해를 본 쿠바에 물자를 지원하기도 하는 등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UN, 北 인권결의안 상정…20일전후 처리(11/14, 연합)

- 북한 내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 상정돼 20일(현지시간)을 전후해 처리될 것으로 보임. 유럽연합(EU) 등이 주도한 대북 인권결의안에는 우리나라도 이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상태, 이번 결의안의 표결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북한측은 이번 인권결의안 상정과 관련해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반발

※ 대북인권결의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192개 유엔 회원국들의 총의를 모은 것이며 총회가 북한 인권에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짐.

3 대남정세

● 강기갑, 北사민당 김영대 위원장 면담(11/16, 조선중앙통신)

- 방북 중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1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사민당) 중앙위원장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

신은 그러나 강 대표와 김 위원장 간의 대화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강 대표와 곽정숙 의원, 이영순 자주평화통일위원장, 박승흡 대변인 등 당원 20명으로 구성된 민노당 대표단은 북한 사민당과 정당 교류 차원에서 15일 4박 5일 일정으로 방북

● 정부, 민간단체 남북협력기금 지원 재개(11/14, 연합)

- 정부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했던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민간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에 10억 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키로 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언급

● 통일부, 北, 통신자재 받을 것(11/14, 연합)

-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정부의 자재제공 제의에 응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통신 자재는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요구해온 사안이고 북에서도 개성공단의 확대발전을 바라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전날 통신 자재, 장비 제공 협의를 위해 북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 대해 아직 북측으로부터 반응은 없다고 답변

● 北군부, 이제 남한 가서 사업하시라(11/13, 연합)

- 지난 6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벌인 북한 국방위원회 김영철 중장 등 군 장성들이 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제 (남한에) 내려가서 (사업을) 하시라” “(공장을) 옮기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13일 전해짐.
- 개성공단에 공장을 갖고 있는 한 남측 업체 대표는 “김 중장 등 북한 군 장성들이 6일 우리 공장에서 45분간 머물며 회사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으며 이 기업인은 “북한 장성들은 또 ‘여기(개성공단)는 군부 땅이다’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임.

● 北적십자, 판문점 경유 남북 직통전화 단절(11/12,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2일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

하고 북한 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힘. 북한 적십자회 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우리(북)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언급

- 성명은 북한이 남북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경고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경고와 내외여론을 무시하고 끝까지 동족대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부득불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면서 북한 적십자회는 “남조선 보수당국에 의해 조성된 엄중한 사태로 하여 더는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우리 측 대표들을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북남 직통전화통로를 단절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주장
- 성명은 특히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마저 완전히 차단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있다고 책임을 돌리면서 “앞으로 북남관계의 운명은 남조선 보수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강조

● 北군부, 분계선 통과 제한 발표(11/12,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이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지난 9개월간 경색국면을 이어온 남북관계가 중대국면을 맞게 됨.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의 김영철 단장은 12일 남측 군당국에 보낸 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통지문은 “우리의 거둬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남한 정부에 대해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11.17-11.23

11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경제 관련
- 나. 김정일 동향
- 다. 기타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러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 김정일 공연 관람 해외보도로 대내 선전(11/2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의 공연을 관람했다는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다”면서 해외언론들이 북한 매체들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동정을 다룬 것을 20일 보도
- 또 ‘사진 없는 김정일’ 보도(11/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오전 5시 김 위원장이 인민군 해군(海軍) 중대 군인들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역시 관람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 않음. 또 조선중앙TV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32차 군무자 예술축전 공연을 관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관람 모습은 한 장도 내보내지 않은 채 공연 사진 12장만을 공개

나. 정치 관련

- 北신문, 자력갱생 사회주의 고수 강조(1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정론’을 통해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라고 선전하는 ‘강계정신’의 발휘를 거듭 강조하면서 ‘강계정신’을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본태”를 지키는 “사회주의 결사수호 정신”이라고 규정
 - 노동신문은 공동필자들이 “천지개벽한 자강도의 새 모습”을 둘러본 르포형식의 이 글에서 “우리의 앞날은 휘황찬란하다”면서도 “원수들은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잘 사는 것도 바라지 않으며, 이 땅에서 사회주의 붉은기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거나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봉쇄의 칼바람은 1998년과 다를 바 없으며, 우리를 압살하려는 보이지 않는 공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외부 정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냄.
 - 또 ‘강계정신’이 배척하는 대상으로 “따끈한 아랫목이나 찾고 제 살림 불리는 데 재미를 붙인 사람들”, “조건 타발(여건이 열악하다는 불평불만)”, “남

을 넘겨다보는 사대주대주의”, “돈에 대한 환상과 자본주의 날라리 바람”, “사리와 공명을 추구하는 걸치레와 허풍치기” 등을 들으로써 북한 사회 내부의 사회주의 이완 현상을 드러내기도 함.

● 北,李大통령 발언들 시비하며 예민 반응(11/2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군부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이 없을 경우 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남북관계 발언을 일일이 시비하며 예민한 반응을 보임.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이 대통령이 최근 방미 중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최후의 궁극 목표”라고 밝힌 데 대해 “북침전쟁을 ‘최후 목표’로 선포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
-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제는 반공화국(반북) 대결 광증이 골수에 배길대로 배긴 이명박 패당과는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를 논할 추호의 여지도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이미 선포한 대로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통신자재 제공’ 제의에 열흘째 침묵 (11/22, 연합뉴스)

- 군 당국이 서해지구 군 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 문제를 협의 하자는 전화통지문을 북한 군 당국에 보낸 지 22일로 열흘째를 맞지만 북측으로부터 답신은 오지 않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우리가 12월 13일 통신선 정상화를 위해 자재 제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북측도 거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나와야 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다고 밝힘.

● 北인권결의안 채택...남북갈등 심화(11/21, 연합뉴스)

-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재확인. 이날 표결

에 참여한 181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이 95, 반대 24, 기권 62개국으로 나타난 것은 인권결의안에 내포된 국제정치적 의미를 차치하고라도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성매매,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심각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촉구

- 지금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 인권결의는 유럽연합(EU) 주도로 인권위원회에서 세 차례, 총회에서 두 차례 채택되었고, 이번 제3위원회 가결에 이어 12월 초, 총회 차원의 3번째 결의안이 채택되면,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 가중 효과를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날 표결에서 앞서 북한 유엔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가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무분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이고, 북한의 존엄성과 체제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한 것은 향후 남북 관계가 더욱 어두워 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
-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2007년 결의에 포함됐던 6·15공동선언과 10·4남북 정상선언에 대한 지지 대목이 삭제되면서 북측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측은 두 남북정상 선언에 대한 지지대목이 빠진 것이 한국정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를 남북 관계 단절의 구실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짐.

● 北김일철, 2012년 강성대국 실현해야(11/19, 연합)

-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19일 “경제건설과 주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으려는 우리 당의(김정일) 구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 김 부장은 19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린 항일빨치산 류경수의 50주기 중앙추모회에서 “인민대중의 강한 정신력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평화의 무기”이며 “강한 정신력으로 경제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
- 그는 또 “인민군대에서는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전군에 김정일의 유일적 영군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모든 간부와 주민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일심단결을 공고히 하고 장군님(김정일)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는 투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

- 이날 중앙추모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광범기·태종수 내각 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 등이 참석, 또 이날 김일철 부장과 함께 김기남 당비서, 최영림 서기장 등 고위 간부들은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있는 류경수의 반신상에 헌화

● **김정일, 김용순 회고(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참된 혁명가, 실력가들을 키워내는 위대한 품’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김 위원장이 김 비서가 “뜻밖의 일로 사망한 후 오늘까지도 그를 잊지 못하시며 자주 회고하신다”고 소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3년 10월 사망한 김용순 전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잊지 못하고 “그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한몫 단단히 할 것”이라고 아쉬워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언
- 신문은 특히 이날 소개한 김 위원장의 김용순 회고 시기를 “지난 8월 어느 날”이라고 밝혀 주목, 김 위원장은 8월 14일 보도를 끝으로 공개활동 보도가 장기간 끊겼으며, 한국 등의 정보기관들은 김 위원장이 8월 중순 뇌관련 질환으로 와병한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임.
- 노동신문의 이 기사는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간부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김용순 외에도 조평통 위원장을 지낸 허 담 전 대남비서, 연형묵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사망한 최측근들에 대해 회고한 사실이 북한 언론 매체들에 종종 소개된 바 있음.
- 김 위원장은 2000년 5월 중국 등 해외 방문이나 국내 시찰에 빠짐없이 김용순이 수행케 했으며, 최근엔 북한의 조선혁명박물관에 있는 ‘수령님(김일성)과 전우관’에 김용순의 자료를 전시토록 했다고 노동신문은 보도
- 김 위원장은 특히 2000년 6월 평양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자신 간 2차 정상회담에 앞서 환담하는 자리에 다른 간부들을 물리치고 김용순만 유일하게 왼편에 배석시킬 정도로 그를 각별히 신임했음. 김 위원장은 2003년 6월 김용순이 교통사고를 당한 후 그를 살리기 위해 “여러 나라들에서 유능한 의사들을 데려다 치료문제를 협의하게 하고 우리 나라(북한)에 없는 약과 설비면 지체없이 비행기를 띄워 날라오게” 했다고 노동신문은 소개

● 北, 美국방 핵발언에, 억제력 강화(11/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핵 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범죄 행위’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일정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 미국이 유엔총회에서 핵무기관련 결의안에 반대한 것 등은 미국이 “핵무기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며 그에 대처해 북한이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유럽 민·관, 금융위기속에도 北지원 계속(11/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을 지원해 온 유럽 국가들이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정부나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은 2009년 북한에 대한 농업 기술과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580만 스위스 프랑(약 480만 달러)을 책정했다고 캐서린 켈워거 SDC 평양사무소장이 밝힘. SDC는 1997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두고 농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개발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음.
- 2001년 평양에 개발협력 사무소를 개설한 이탈리아 역시 “내년에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물론 여러 협력 사업을 하고 정치적, 외교적 행사의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RFA는 보도. 이탈리아 외무부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인도적인 목적으로 1천500만 유로(약 1천800만 달러)를 지원했고, 2008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130만 유로(약 160만 달러)의 지원품을 북한에 보냄.
- 한편 북한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유럽의 비정부기구(NGO)들은 내년엔 식량개발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RFA는 보도
- 북한에서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던 프랑스의 ‘프리미어 어전스(Premiere Urgence)’는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부터 평양의 룡성농장, 황해북도 연탄, 삼훈, 미곡농장, 평안북도 광산, 청원, 소주농장 등 모두 7개 농장의 토끼 사육과 사료 생산을 지원할 계획,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약 9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토끼 사육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하며 이 사업을 통

해 약 1만3천명의 북한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스웨덴의 'PMU인터라이프'는 2009년부터 황해남도과 평안남도 지역 6개 농장에서 씨감자 배양을 지원하고 농기계 교육도 실시. 1995년부터 북한에서 활동했던 PMU인터라이프는 2005년 말 북한 당국이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모두 추방함에 따라 대북 사업을 중단했다가 2007년 북한 당국과 합의해 식량 개발사업을 재개했으며 주로 온실, 우유 가공시설, 농자재 지원, 감자 저장고 등의 사업을 벌여 왔음.
- 독일의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도 2009년엔 씨 옥수수를 배양하는 사업을 북한에서 진행, 이 단체 대북 담당자는 "평안북도 지역 농장에 품종이 우수한 씨 옥수수 재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해부터 평안북도 운산에서 진행해 온 옥수수 씨를 생산하는 설비 설치도 내년 6월 경이면 완공된다"고 말했다고 RFA는 보도
- 북한에서 간척지 개발 사업을 펼치는 프랑스의 국제인권단체인 '인도주의 삼각세대(Triangle Generation Humanitaire)'도 내년 상반기에 평안남도 온천군의 금성 간척지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식량 개발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

● 쿠웨이트, 北에 2천만 달러 차관 제공(11/20, 미국의소리방송; 11/18, 조선중앙통신)

- 쿠웨이트 정부가 설립한 '쿠웨이트 아랍 경제개발기금(쿠웨이트기금)'이 북한에 2천17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0일 보도
- 쿠웨이트기금은 이 기금의 방북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한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차관은 평양시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쓰일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평양의 하수처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환경과 공중보건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 그러나 방송은 쿠웨이트기금 대북 차관의 이자율이나 상환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음.
- 쿠웨이트기금은 쿠웨이트가 2001년 북한과 수교한 2002년 3월 평양시 상수도 재건 사업에 2천170만 달러의 차관(이자율 연 2%, 상환기간 24년)을 제공한 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같은 액수의 차관을 북한에 제공, 북한은

쿠웨이트기금의 차관으로 2003년 8월 평양시 상수도 재건 공사를 시작했으며, 2007년 2월 평양에서 쿠웨이트기금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 공사 준공식을 갖기도 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쿠웨이트기금 대표단의 방북 사실을 전하면서도 차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19일 기금대표단이 북한 도시경영성과 상호 협조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이것이 차관 제공과 관련된 합의서로 추정

※ 쿠웨이트기금은 1961년 쿠웨이트 정부가 아랍국가들에 대한 개발 용자와 기술 원조를 목적으로 설립했으나 1974년 모든 개발도상국으로 용자 대상을 확대했으며 주로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집중

● 美 5차분 지원 식량 北 도착(11/20,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키로 한 식량 50만t 가운데 5차분이 18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 VOA는 이번에 전달된 밀과 옥수수 2만5천60t은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노약자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배분될 것이라고 보도. 이로써 미국 정부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실제 제공된 식량은 총 14만3천330t에 달함.
- 현재 6차분 2만5천t을 선적하고 있는 미국의 식량선박은 12월 중순 출항해 2009년 1월 북한에 도착할 예정

● 국제기구, 북한산 의약품으로 北 지원(11/18,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자연맹(IFRC) 등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을 구매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의료지원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스위스 투자회사와 북한 평양제약공장이 공동 투자해 2004년 평양에 설립한 '펄스제약합영회사'의 펠릭스 앵트 회장은 이들 국제기구 뿐 아니라 해외의 지원단체 중에서도 북한산 의약품을 구매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앵트 회장은 "국제기구가 사들인 북한산 의약품은 다시 대북 의료지원에 쓰이거나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특히 북한산 의약품은

WHO의 국제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에 맞게 생산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신뢰를 갖고 구입한다”고 언급하고 북한산 의약품을 구매해 다시 북한을 지원할 경우 해외에서 구입할 때보다 운송비, 저장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

● 北, 3년간 200개 고려약공장 개·보수(11/17, 조선신보)

- 북한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 계획으로 고려약(한약)공장 개선사업을 벌여 200여 공장들을 개·보수했다고 조선신보가 17일 보도. 조선신보는 북한의 조용덕(57) 보건성 고려약생산관리국 기사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여러 단위들에서 고려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비들을 새로 제작하여 생산에 도입하였다”고 설명

● 北, 다수확 품종 보급 확대 주력(11/17, 조선신보)

- 북한 농업성이 11월 12~13일 평양에서 ‘전국농업부문기술경험발표회’를 열고 다양한 다수확 품종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각 도, 시, 군의 농업지도기관, 협동농장,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는 농산, 종자, 공업작물(공업원료용 작물), 관개수리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됨.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영화인, 김정일 지시로 합숙훈련(11/23, 뉴욕타임즈)

- 북한의 공훈예술가인 장인학 감독은 지난 9월 열린 제11회 평양국제영화축전(17~26일)에서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기자와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영화에 얽힌 김 위원장과의 일화를 언급
- 장 감독은 몇 년 전 김 위원장의 명령으로 수십 명의 영화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들이 호텔에 마련된 ‘영화훈련소’에 모여 6개월간 200여 편의 영화를 봤다고 언급, 이들이 관람한 영화들 가운데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신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브레이브 하트’, ‘트로이’ 등 ‘미제 영화’도 있었으며 합숙소에서 이들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본 뒤

영화제작 기술 등에 대한 각자의 소견을 담은 편지를 김 위원장에게 올렸다고 함.

- 김 위원장이 합숙소를 직접 찾지는 않았지만 장 감독은 “우리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와 시나리오 구성과 연기, 편집 면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다”며 “가끔 새벽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오시기도 했다”고 전언
- 신문은 김 위원장이 할리우드 영화광으로도 알려져 있다면서 평양에 250명의 직원이 24시간 상주하는 3층 높이의 빌딩에 2만 편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영화 필름을 소장하고 있다고 보도

● 北, 이혼하면 벌금·강제노역(11/22, 조선일보)

- 북한당국은 부부가 이혼하면 벌금 50만 원(한 달 근로자 평균 월급 3,000 원)을 내도록 하는 새 규정을 선포하고 최근 전국에서 시행에 들어감. 벌금 낼 돈이 없는데 꼭 이혼하겠다는 강제노역 6개월로 대치
-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혼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이혼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러한 엉뚱한 규정을 내놓은 배경에는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무질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함.
- 올 9월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강연회를 통해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미신행위나 매춘행위, 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들에 대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고 함.

● 北, U-17 여자월드컵 제패 대표팀 대대적 환영(11/21,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평양시민들이 21일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축구월드컵 경기를 제패한 북한 여자축구팀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방송은 평양 공항에 ‘세계청소년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1등을 하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구호판이 세워져 있었으며 평양 시민들과 체육인들은 축구팀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하자 꽃다발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다”고 보도. 공항에는 김종린 노동당 비서, 광범기 내각 부

총리, 박학순 체육지도위원장, 북한축구협회 위원장인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 리용철 청년동맹 1비서, 박병중 평양시 인민위원회 1부위원장, 리종무 북한군 중장 등이 나가 축구팀을 영접

● 北, 김일성 생가 거리 녹화사업 추진(1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평양시 만경대구역 광복거리를 녹화사업 시범단위로 지정, 김 주석의 100회 생일(4.15)이 되는 2012년 4월까지 녹화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 통신은 북한 내각의 도시경영성, 평양시, 만경대구역이 이 사업의 계획을 짰다며 “광복거리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총설계가 이미 작성됐으며 올해 가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부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고 소개

● 北국립교향악단, 2009년 3월 뉴욕 공연(11/2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지난 2월 뉴욕 필하모닉교향악단의 평양 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르면 2009년 3월 뉴욕에서 공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
- 뉴욕필의 평양 공연을 측면 지원했던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11월 초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뉴욕 공연에 대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함에 따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RFA에 밝힘.
-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레드 캐리어 부회장은 뉴욕필의 평양 공연 “1주년을 기념하는 날(2.26)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했으면 좋겠지만 연말 연시로 준비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 2월 26일 이후에나 열릴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빠르면 3월 공연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언급

● 북한의 ‘3부자 마술사’(2008년 11월호, 조선)

- 북한의 월간 화보 조선 11월호는 ‘요술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들 3부자 마술사를 소개, 북한 마술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노력영웅 겸 인민배우 김택성(75)씨와 그의 두 아들 철, 광철씨가 바로 주인공, 자강도 강계 출생인 그는 지난 1969년 평양교예단 요술배우가 된 이래 30여년간 체코의

카를로비바리 마술경연, 오스트리아 빈 국제마술경연 등에 참가해 호평받았고, 특히 카를로비바리 마술경연에서 3차례(10회, 14회, 16회)나 최고상을 받는 등 국제 마술계에서 명성을 날렸으며 조선요술협회장인 김택성씨는 무대 활동은 하지 않고, 서커스와 마술 전문학교인 평양교예학원에서 자신의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요술강사로 활동, 두 아들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민배우' 칭호를 받음.

※ 북한은 마술을 '요술'이라고 부르며, 2001년 10월 '조선요술협회'가 설립

● 北, 겨울나기 준비 분주(11/16, 평양방송: 11/13, 조선중앙통신: 11/11, 조선신보)

- 북한의 각 가정과 산업시설, 학교 등에서 혹한기를 앞두고 월동 준비가 한창으로 북한은 10~11월을 '겨울나기(월동)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요즘 조선의 모든 가정들에서 전통적인 겨울용 김치 담그기가 한창"이라며 "김장철에 여인들이 빙 둘러앉아 배추를 다듬어 씻고 절이며 양념 소를 넣는 모습은 오직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한 가을 풍경의 하나"라고 분위기를 보도. 북한은 올해 장마나 가뭄 피해를 겪지 않아 김장용 채소인 무, 배추 등의 작황이 비교적 풍작인 것으로 알려짐.
- 평양방송은 16일 "나라의 대동력 기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어야 뜻깊은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속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산악같이 일떠선 각지 탄광의 일꾼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을 부쩍 늘리고 있다"며 순천, 득장, 구장, 온성지구 등 주요 탄광연합기업소의 증산 노력을 소개, 겨울철에는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선 석탄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석탄공급이 필수

● 北, 새해 달력 발행(11/18, 조선신보)

- 조선화보사가 새해 달력을 발행했다고 조선신보가 18일 보도. 새 달력의 표지엔 백두산의 가을 풍경을 바탕으로 '위대한 수령...함께 계신다'는 구호와 그 밑에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체 98(2009)'라는 문구가 적혀 있음.
- 달력 1월은 '을밀대의 설경'을, 2월은 '2월의 백두산 천지' 풍경을 담았으며, 모란봉과 구월산, 금강산의 자연 풍경, 대동강변 도시 풍경, 묘향산 보현사의 만세루와 4각 9층탑 등의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해 달력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도 출판됐다고 신문은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북핵 6자회담 내달 초 개최 합의(11/22, 백악관)

-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6자회담을 내달 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22일 발표
- 테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신고 내역 및 영변 핵시설 불능화 검증문제 합의를 위해 12월 초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한 것으로 백악관이 발표
- 페리노 대변인은 “(한·미·일 3국 정상간에) 6자회담을 재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 다른 모든 참가국들의 일정을 확인한 뒤 중국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얼마 뒤 다시 “6자회담 개최시기는 내달 초가 될 것”이라고 언급
- 부시 대통령은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신고 내역 및 핵시설 불능화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기를 기대, 그러나 북한도 6자회담 재개에 대해 동의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음.

나. 북·중 관계

● 중문화부장, 중국은 북한의 진정한 벗(11/22, 조선중앙통신)

-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장은 북한과 중국 간 ‘경제문화협조협정’ 체결 55주년을 맞아 “중국은 조선(북한)의 진정한 벗으로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이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차이 부장은 지난 9월 북한의 정권 수립 60주년(9.9)을 경축하기 위해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으며 연회에는 후정위(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와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 등이 참석

● 北-中 변경무역, 찬바람(11/18, 대공보; 연합)

- 북중 양국의 접경도시를 통해 주로 이뤄지는 변경무역이 올해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홍콩에서 발행되는 대공보(大公報)는 18일자 신문에 민간 변경무역의 쇠퇴로 활기를 잃은 단둥(丹東), 투먼(圖們), 훈춘(琿春), 창바이(長白), 싼허(三合) 등 접경도시의 침체된 분위기를 상세하게 보도
- 단둥의 한 무역업자는 “조선(북한)에서 광산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번도 수입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광산물 중계무역으로 인한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 형편”이라고 불만을 표출, 작년까지만 해도 단둥시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북한 무역일꾼들도 감소
- 룡징(龍井)의 한 무역운수업자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아주 사라져버렸다”며 “조선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사람도 없고 조선에서 물건을 사가려는 사람도 없다”며 하소연
- 무역업자들이 “변경무역이 크게 감소했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통계상 북중 양국의 전반적인 교역규모는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국의 교역규모는 16억7천4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 대공보는 훈춘세관의 자료를 근거로 올해 변경무역의 감소원인으로 일반무역이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변경소액무역을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꼽음.
- 이와 관련, 단둥의 한 대북무역업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작년 10월부터 무역회사에 대한 검열에 착수,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던 무역 회사를 정리한 데 이어 시장 단속까지 강화하면서 재력을 갖춘 일부 북한 주민이나 화교의 보따리무역이 크게 위축된 것이 변경무역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다. 북·러 관계

● 방러 최태복, 모스크바시장 면담(11/22, 조선중앙통신)

- 러시아를 방문중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19일 유리 루쉬코프 모스크바시장과 발레리 야제프 국가회의(하원) 부의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

● 러 상원의장, 北초청으로 공식 방북(11/21, 러시아의소리방송)

- 세르게이 미로노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의장이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공식 방북한다고 ‘러시아의 소리’ 방송이 러 연방의회 공보실의 발표를 인용해 21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미로노프 의장과 최 의장은 11월 19일 모스크바에서 회담하고 양국 의회 대표단간 정기교류에 합의했으며, 미로노프 의장의 방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라. 북·일 관계

● 北, 일제의 조선인 납치부터 선결 해결 주장(11/19,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9일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일본이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를 이유로 독자적인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이나 추가 경제제재를 거론하는 것은 “심히 모순되는 행동”이라면서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연행 및 위안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마. 기타 외교 관계

● 북, 인도 대사에 림희성 임명(11/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인도 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로 림희성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림 신임대사의 구체적인 경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림 신임 대사는 2001년부터 2003년 말까지 파키스탄 대사를 역임, 북한과 인도는 1973년 12월 수교

3 대남정세

● 北, 개성공단 토공 간부급 추방할 것(11/23, 남북경협시민연대)

- 남북경협시민연대는 23일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한국토지공사 간

부급 상근자를 1차적으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시민연대는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12월부터 출·입경 통제를 강화하고 1차 추방대상자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 임원 상근자를 추방할 것”이라고 주장

- 12명이 근무하고 있는 토공은 3~4명, 45명이 상주하고 있는 관리위원회는 9~10명 정도가 각각 추방대상이 될 것으로 이 단체는 전망
- 이 단체 김규철 대표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북측은 관리위원회와 토지공사 상근자를 준공무원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광객 총격사망 사건 이후 금강산 지역에서 한국관광공사와 면회소 관련 인원들을 추방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주장. 그는 특히 토공과 관련해 “이달 초 군부대표단이 개성공단을 점검하면서 토지공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성공단 2단계 공사를 안하니까 토공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언

● 10월 남북교역 작년 대비 23% 감소(11/23, 통일부)

- 10월 남북간 교역액이 작년 동기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
- 23일 통일부 홈페이지의 남북 교역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교역액은 1억6천306만5천 달러를 기록, 작년 10월 2억1천237만8천 달러에 비해 23.2% 감소했으며, 이는 전월인 올해 9월의 1억6천782만1천 달러에 비해서도 2.8% 감소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10월 남북 간 상업적 거래량(전체 교역의 약 97%)은 1억5천808만7천 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2.7% 감소했으며 대북지원 중심의 비상업적 거래는 497만8천 달러로 작년 대비 84.1% 줄어듦.
-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교역액 감소 배경에 대해 “환율 상승 등 최근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금강산 관광 중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정부, 6·15청년학생본부 2명 방북 불허(11/22, 통일부)

- 정부는 22일 방북 예정이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표단 5명 중 2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21일 발표.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6·15 남측위 청년학생본부 대표단 5명의 방북 신청 건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3명은 승인을 했고 2명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불허했다”면서 “그 후 단체측은 방북 계획 자체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알려왔다”고 언급

● 동해 표류 北주민 6명 구조, 송환 예정(11/20, 통일부)

- 통일부는 20일 “18일 오후 10시 10분께 강원도 고성군 제진 북동방 10마일 해상에서 표류중이던 북한선박(동력목선, 15t)과 승선인 6명을 구조, 관계기관에서 보호 중”이라고 발표
-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신문 결과, 이들에게 대공 용의점이 없고 북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돼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인계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발표,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해사 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북측과 송환을 협의한데 이어 21일 오전 추가 협의를 거쳐 송환기로 함.
- 정부는 기존에 남북간 선박 구조 및 송환 등을 협의하는 데 이용됐던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에 최근 단절됨에 따라 해사 당국간 통신망을 통해 협의를 진행

● 민노당, 北, 북미관계 열쇠는 북한이 갖고 있다(11/20, 민노당)

- 민주노동당 방북단이 만난 북측 관계자들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북미관계의 열쇠는 북측이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0일 민노당이 전언
- 강 대표 등은 대북 전단지(빠라) 살포 문제와 관련해 “북측 핵심 관계자가 ‘북한의 강경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를 막아내는 것을 보면 빠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이 관계자는 빠라 살포 중단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언급
- 또 “조선사회민주당 김영대 중앙위원장이 ‘남측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사상의 자유를 가진 것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을 보면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언
- 이어 “평양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원활한 이행 등을 강조하려 했지만 북측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사안별로 풀 수 없고 남측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해야 일괄적으로 풀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고 언급

● 통일부, 남북기금 지원기준 투명성 강화(11/18, 통일부)

-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18일 발표.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간 지원기금 전용이 가능하도록한 범위를 대북지원 승인 금액의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하도록 '남북 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을 강화
- 또 정책지원은 예외이지만 기금의 지원은 1개 단체에 대해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 함. 이와 함께 기금을 지원받은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는 반드시 기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11.24-11.30

11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경제 관련
- 나. 김정일 동향
- 다. 사상교양 관련
- 라. 기타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관련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모범일꾼에 감사(11/30,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정보센터 다매체(멀티미디어) 창작실 기술자를 비롯해 각종 산업시설과 건설현장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평양방송이 30일 보도

- 김정일, 공군부대 시찰(11/30,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공군 제1016부대를 시찰했다고 북한 언론매체들이 30일 일제히 보도.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김 위원장이 이번 공군부대 방문에서 공군사령관 리병철 상장(남한의 중장)의 마중을 받았으며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과 함께 비행훈련을 지켜봤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적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해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하고 이어 군인회관, 교양실, 침실, 식당, 취사장 등 부대 시설을 둘러본 뒤 부대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밝힘.
 - ※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11월 24일 평안북도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신의주화장품공장 비누직장 시찰 보도 후 엿새 만이며, 군부대 시찰은 11월 4일 제2200군부대 및 제534군부대 직속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 훈련장 시찰 후 26일 만임. 북한 매체는 11월 15일과 16일엔 김 위원장이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 공연을 관람했다고 잇달아 전하는 등 이달 들어 모두 7차례 그의 공개활동을 소개

-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상 전달(11/27,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흥화학공업대학 연구사이자 공훈과학자인 차달성 교수(박사)와 의학과학원 함흥임상의학연구소 실장인 박재욱 교수(박사)에

계 각각 70회 생일상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7일 보도

● **김정일, 10월 하순 또 발작(11/26, 마이니치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하순에도 뇌졸중으로 발작을 일으켜 긴급 수술을 검토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됐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
-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 내용은 김 위원장이 10월 하순에 두번째로 뇌졸중을 일으켰다는 정보를 한국에 있는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로부터 입수했다고 보도한 일본 민방 TBS의 내용과 거의 일치, 당시 우리 정부는 “확인해 줄 만한 객관적인 팩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월 중순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면서 긴급 입원했으며 정밀검사 결과 심장내 혈전이 떨어져나가 뇌혈관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이에 중국과 프랑스 양국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평양에 갔으며 며칠 뒤 프랑스 전문의가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짐.
- 김 위원장은 왼쪽 반신에 마비가 남고 언어도 불명료한 상황이었지만 수술 후 약 두 달간의 경과는 비교적 순조로웠으나 10월 하순 재차 발작이 왔으며 증세가 심각해서 의료팀이 두차례에 걸쳐 긴급 수술을 검토했었음. 그러나 재수술이 실시됐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며 베이징(北京) 외교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현재는 소강상태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음.
- 김 위원장은 이전부터 당뇨병, 신장병을 앓아 왔으며 체내에 축적된 독소가 다른 장기 기능을 저하시켜 2007년부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곤 했던 것으로 전해짐. 한 외교소식통은 마이니치에 “김 위원장은 결재 사항인 핵문제 관련 담화가 11월 12일에 나온 만큼 일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건강상태는 분명히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
- 이와 함께 마이니치는 김 위원장의 건강악화로 인해 그의 매제인 장성택(張成澤)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주요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도

● **김정일 공장 시찰사진 공개, 근로자는 안보여(11/2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8월 건강이상설 속에 장기 은둔하다 공개활동을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신의주 산업시설을 현지지도 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하고 관련 사진 2장도 공개

- 공교롭게도 북핵 6자회담이 12월 8일 개최된다는 사실이 발표되고, 특히 북한의 군사분계선 통행 차단·제한 조치가 남측에 통보된 직후에 김 위원장의 건강 호전을 과시하는 원거리 현지지도 보도가 나오므로써 김 위원장이 이들 주요 정책을 직접 챙기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임.
- 통신이 공개한 사진은 김 위원장이 김평해 노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로 보이는 인물 등 수행원 2명과 함께 락원기계연합기업소 공장 건물 안의 대형 굴착기 옆에 서서 지배인으로 보이는 인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과 하얀 타일이 붙은 신의주화장품공장 건물을 배경으로 수행원 2명과 함께 찍은 것임.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무표정한 얼굴의 김 위원장은 이달 초순 공개된 북한군 축구경기 관람 때와 같은, 짙은 잿빛의 인민복 위에 부드러운 재질의 갈색 반코트를 걸치고 바닥이 평평한 구두를 신고 있음. 김 위원장은 곳곳이 선 채로 두 손 다 반코트 주머니에 넣고 있음. 이번 사진에는 공장 근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나. 정치 관련

● 범민련, 6·15, 10·4선언 이행 투쟁(11/30,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 북, 해외 본부는 30일 범민련 결성 18돌을 기념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보도
- 범민련은 결의문에서 “6·15 통일시대, 우리 민족끼리의 시대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대세”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공화국(반북) 대결정책”이라고 비난
- ※ 범민련은 1990년 8월15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제1회 범민족대회에서 창립키로 결의된 후 해외(1990.12), 북측(1991.1), 남측(1995.2)에서 차례로 결성됐으나 범민련 남측 본부는 1997년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음.

● 北, 南 대결자세 비난(11/29, 통일신보; 11/30,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남북 간 육로통행 제한, 차단 등 북한의 ‘12·1조치’에 대해 남한이 유감 표명과 함께 기존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대결 자세를 계속 드러내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

- 통일신보는 ‘대결기도를 다시금 드러낸 반통일 분자들의 광증’이라는 글에서 청와대와 통일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조치에 ‘심각한 유감’이나 ‘남북간 합의사항에 배치’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 대한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화해의 시대에 북과 남 사이에 이룩된 모든 합의들을 다 안고 있는 가장 큰 합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인데 “이런 공동선언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휴지조각처럼 차던지는 남한 정부가 ‘합의사항 위반’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가소로운 일”이라고 주장

● 北, 대북 삐라살포 정부 대책회의 비난(11/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남한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에 대해 “미지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삐라 살포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
- 노동신문은 ‘삐라살포 사태의 장본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11월 19일 통일부 차관 주재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전단 살포를 “몇몇 단체들의 행위로 공인 시키고 저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북남관계 파국의 책임을 모면하며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서푼 짜리 연극”이라고 비난
-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서로 적대시하지 않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통일문제를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면서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의 위기”에 처한 것은 “우리 공화국을 자극하고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반민족적인 삐라 살포 행위를 발광적으로 벌인 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된다”고 주장

● 민주조선, 남북관계 개선위해 대북정책 수정 촉구(11/27,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7일 ‘동족대결의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다시 촉구

- 신문은 “앞으로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가 더 악화되는가 하는 것은 대북정책을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며 “북남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 바꾸어야 할 것은 동족대결 자세”라고 주장
- 민주조선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는 ‘비핵·개방·3000’ 따위를 대북정책으로 내들지 않고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해치려고 날뛰지 않았더라면 북남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

● 南 인권문제 제기는 도발(11/2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파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 “도발”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권문제를 코에 걸고 외세와의 국제공조로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으로 몰아넣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도발 책동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연일 “대북정책 근본전환” 요구(1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북남관계를 어디로 끌고갈 심산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금 북남관계는 전면차단이라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고 있다”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걷어치우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는 발언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대북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언급을 거론,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계속 유지하며 우리와 끝까지 엇서나가겠다(반발해 나가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라고 규정, 또 신문은 “북남관계가 더 이상 방관시할 수 없는 최악의 위험상태에 처했는데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다고 하느냐”며 “그것이 북남관계가 전면적으로 차단되고 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고대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과연 말할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함.

다. 경제 관련

- 佛투자 北시멘트공장 “높은 생산실적”(11/30, 조선중앙방송)
 - 프랑스의 시멘트업체 라파즈사가 이집트 오라스콤그룹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투자한 북한의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가 2008년 설비 개선과 함께 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오라스콤은 2007년 7월 상원세멘트의 지분 50%를 취득하면서 1억1천5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2008년 공장 지분과 탄광 채굴권을 라파즈사에 넘김. 라파즈사는 2008년 9월 “북한에서 시멘트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상원세멘트 공장의 잠재력이 크다”며 공장 설비를 최신 것으로 바꾸고 기계와 시설 투자를 확대해 2010년까지 연간 생산량을 300만t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광산·전력 부문 투자도 병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北, 유망 지하자원 매장 다수 발견 보도(11/30,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0일 북한 각 도의 탐사관리국 산하 지질탐사대가 최근 탐사를 활발히 벌여 개발이 유망한 지하자원 매장지들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
 - 평안남도의 탐사관리국의 탐사대들은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매장지를 많이 확보”했고, 황해남도과 강원도의 탐사대들은 “철광석 탐사에서 실적”을 올렸으며, 양강도의 탐사대들은 “유색금속 광물탐사에서 유망한 광물 후보지를 마련했다”고 방송은 보도. 그러나 이들 탐사대가 찾아냈다는 지하자원의 종류나 장소, 매장량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北해역서 中어선 불법조업 성행(11/28, 신정보)
 - 중국 어선들이 서해상의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불법적인 조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중국 언론 신정보(新京報)가 28일 보도
 - 신문은 동강시 인근 해역은 어족자원이 빈약하지만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북한 해역은 자원이 풍부해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민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려면 허가증이 필요한데 이를 개인들끼리 불법적으로 거래하고 브로커를 통해 중국 해관과 해양경찰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이같은 불법 행위는 대형 회사들까지 등장해 성업할 정도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동강시 어정치(漁政處)의 한 관리도 “이런 현상은 동강에서는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인정했다고 보도

● 北, 2009년부터 중국산 중고차 밀매 금지(11/28,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2009년부터 북한의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중고 자동차 밀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북한에선 2007년 1월 일본이 일본산 자동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 이후 틈새를 노린 중국산 자동차의 밀무역이 성행했다고 RFA는 설명, 원래 북한에서는 평화자동차와 계약을 맺은 화천자동차 이외에는 중국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게 돼 있음.
- RFA는 또 “북한은 내년부터 자동차 수입 관세도 대폭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동안 중국 상인들이 북한의 낮은 관세를 이용해 판매했던 미국 GM의 뷰익과 독일의 폴크스바겐 등 일부 자동차의 판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그러나 “북한 당국이 관세를 올리더라도 기증이나 물물교환 형태의 편법 매매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北, 개성공단 축소하고 신의주특구 개방(11/26,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공단을 축소하고 신의주특구를 대외교역 기지로 본격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은 26일 북한이 개성공단 축소 방침을 발표한 지 하루만인 25일 새벽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신의주 산업시설을 시찰했다는 보도가 나온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신의주특구 개방을 시사하는 하나의 수순으로 관측된다고 보도
-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에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중국과의 국경지대인 신의주 산업시설을 시찰한 것은 신의주특구 개발과 개방에 대한 열의와 의지를 읽게 해준다고 소식통들은 보도. 신의주특구 개발은 중국측과도 협의를 한 것이며 중국측도 신의주특구 개발·개방과 연계해 인접도시인 단둥(丹東)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식통들은 언급
- 베이징 당국은 신의주-단둥 연계 개발을 위해 군부와 상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이 조만간 북한에 7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할 계획인데 이 차관이 신의주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추측

● 北, 2009년부터 시장기능 대폭 축소 시도(11/25, 오늘의 북한소식)

-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5일 북한 소식지를 통해 북한 당국이 11월 6일 북한 전역에 '상업성 지시문 61호'와 '도 지시문 23호'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전국 (종합)시장을 모두 농민시장으로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
- '평양의 한 간부'는 이 지시에 대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1일장(매달 1일, 11일, 21일 등 열흘만에 열리는 비상설 시장)으로 바뀌고, 앞으로 식량은 양정사업소에서, 공업품은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 류경호텔 외벽 유리공사 착수(11/24, 연합)

- 16년간 공사가 중단돼 평양의 흉물로 방치돼왔던 북한 평양의 류경호텔이 최근 외벽유리 부착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됨. 24일 연합뉴스가 최근 평양을 방문한 방북자들로부터 입수한 사진에 따르면 평양 류경호텔 건물 6개면 중 2개면 하단부에서 유리를 붙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사진판독 결과 현재 유리공사는 지면으로부터 30층 높이에서 시작돼 아래로 20여개층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됨. 류경호텔 유리공사가 시작된 시점은 대략 11월 초 이후인 것으로 추정
- 이와 관련, 다련(大連)의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 선박이 다론헬에서 류경호텔 유리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들어갔다”고 전하고 “북한은 이집트 오라스콤사로부터 우선 1억 달러 투자를 받아 건물 아래쪽 공사를 먼저 끝마치고 비즈니스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이집트 오라스콤사는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가로 류경호텔에 투자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북한을 다녀온 방북자 P씨는 “일부 북한 당국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이미 시범 서비스는 시작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전했다.

라. 사회·문화 관련

● 北대표 작곡가, 성동춘 사망(1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국립민족예술단 소속 작곡가인 성동춘(71)이 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7일 고인의 빈소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1937년 생인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애창곡인 '동지애의 노래'와 대표적인 통일 가요인 '조선은 하나다' 등을 작곡하고 1995년 8월부터 2001년까지 조선음악가동맹 중앙위원장을 지낸 북한의 대표적인 작곡가 가운데 한 명이며, '김일성상'을 수상하고 '인민예술가' 칭호도 받았음.

● 北인구연구소, 고령자 현황 연구발표회(1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인구연구소는 26일 평양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인구학적 특징과 교육수준,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 참석자들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 말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도, 함경남도의 60개 동과 리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노인 인구상태 연구조사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통신은 "2007년 노인 인구상태에 대한 연구조사 자료는 노인들을 위해 취해질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학적 대책의 수립과 노인들을 위한 여러가지 새로운 활동계획 작성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게 된다"고 소개

● 北, 메탄가스 가정이용 적극 장려(11/26,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극심한 에너지난 속에서 농촌 가구의 부족한 연료와 조명을 개선하는 데 메탄가스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6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이 11월 19~21일 평양 인민대학 습당에서 '메탄가스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전국 기술강습'을 열어 농촌 가정에서 메탄가스를 연료와 조명에 이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

● 北, 책읽기 생활화, 전공 공부 매진(1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인재가 많아야 나라가 흥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인재양성을 위해 책을 많이 읽고 전공분야에 대한 학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우리 당은 강성대국 건설에서 인재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며 "누구나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온 사회에 혁명적인 독서기풍을 세워 누구나 책을 생활의 길동무로 삼고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실지 사업에 활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며 "모든 부문에서 자기 전공분야에 정통하기 위한 강행군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촉구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라이스, 6자회담 초점은 핵검증서 승인(11/26, 연합)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내달 8일로 예정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의 초점은 북핵검증을 위한 북미 간 합의를 승인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26일 밝힘.
- 라이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참가하는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베이징에서 열 예정"이라면서 "이번 6자회담의 초점은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참가국을 대신해 서명한 검증의정서를 승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
- 그는 "우리는 (핵검증 문제를 다룬) 문서는 물론 (북미간 이뤄진) 몇가지 언질과 양해사항을 6자회담에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핵검증 의정서 추인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며 다른 목적이 없다"고 강조
- 라이스 장관은 "불능화가 재개됐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결론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검증의정서는 현 단계에서 핵심"이라고 강조

● 中, 다른 참가국들과 6자회담 일정 협의 중(11/25,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25일 “중국은 현재 다른 참가국들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12월 8일 6자회담을 개최하자고 다른 5개국에 제안했으며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
- 이에 앞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 페루에서 열린 APEC(아태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6자회담이 12월 8일 베이징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었음.
- 한국과 미국, 일본은 지난 주말 중국 외교부의 질의를 받고 12월 8일 6자회담 개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러시아는 미정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 北, 경제보상이 6자회담 진전에 중요(11/24, 조선중앙통신)

- 북핵 6자회담이 12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당국의 시료채취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5자의 경제보상은 6자회담의 앞으로의 진전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사태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한다’ 제목의 글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 언론들이 “6자 단장회담(수석대표회담) 개최가 늦어지고 5자의 경제보상 속도가 처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 무슨 시료채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듯”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들씌워 6자회담 자체를 파탄시키려는 극히 불순한 행위”라고 주장
- 특히 통신은 10월 초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때 합의된 문건에 “시료채취와 관련한 그 어떤 문구도” 들어있지 않은데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 등을 포함시킨 검증문건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과 미국이 북한의 “특수상황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고” 채택한 평양합의에 대한 “전면거부로 된다”고 주장
- 통신은 시료채취 문제의 제기에 대해 “서면합의 밖의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곧 가택수색을 시도하는 주권침해 행위”라고 비난하며 “지금 일부 세력들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언론들이 시료채취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는 6자회담 자체를 지연시켜 저들의 경제보상 의무를 태공(태만)하고 의무이행이 처진 것을 합리화해 보려는 데 그 속심이 있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2008년 북·중 교역규모 크게 증가(11/27, 연합뉴스)

- 2008년 북한과 중국 간 교역 규모가 10월에 이미 작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27일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북·중 교역액은 총 21억2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총 교역액 19억7천600만 달러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이런 추세라면 올해 북·중 교역규모는 25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같은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6억7천100만 달러, 수입은 14억5천300만 달러를 기록해 2007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38.8%와 2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양국 교역규모가 2007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교역 비중이 큰 광석과 광물성 연료(원유와 석탄)의 교역이 대폭 증가한 데 힘입은 것으로 분석됨.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북한산 광석수입은 1억8천740만 달러로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2% 증가했으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성연료도 4억6천700만 달러로 5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 북·중 교역규모는 2005년 16억 달러, 2006년 17억 달러, 2007년 19억7천600만 달러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북·중 교역규모가 남북한 교역규모를 2억 달러 가량 초과했음.

● 北-中, 체육교류의정서 체결(1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와 중국 국가체육총국이 25일 평양에서 2009년 체육교류의정서를 체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이 의정서에는 북한의 박학선 체육지도위원장과 중국의 류평(劉鵬) 국가체육총국장이 양측을 대표해 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 북한과 중국은 2007년 11월 28일 베이징(北京)에서 2008년 체육교류의정서를 조인하는 등 해마다 평양과 베이징에서 번갈아 이 의정서를 체결

● 연변에 北청진시대표단 방문(11/24, 연변일보)

- 북한의 청진시인민위원회 대표단이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를 방문. 동포신문인 연변일보는 “(연변)주정부 부주장 서문순기는 23

일 연변백산호텔에서 조선 청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리광남을 단장으로 한 청진시방문단을 회견했다”고 보도

- 신문은 시먼순지(西門順基) 부주장은 “리광남 일행의 연변 방문에 환영을 표하면서 두만강지역 국제합작개발의 새로운 형세에서 연변은 청진시로 통한 물류통로와 육로—해상연합운수통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며 “통로건설은 두 지역 간의 경제합작 및 관광업 발전에 깊은 의의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발전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다. 북·러 관계

● 무역촉진위 대표단, 러시아 방문(11/27, 조선중앙통신)

- 무역성 부상인 리명산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27일 비행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라. 북·일 관계

● 日경찰, 조총련 관련 시설 또 압수 수색(11/27, 연합)

- 일본 도쿄 경시청公安부는 27일 무자격으로 세리사(세무사) 업무를 한 혐의(세리사법위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전직 간부(54)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경시청은 27일 오전 도쿄 우에노(上野)에 있는 재일본조선상공연합회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였음.
- 경시청에 따르면 이 간부는 재일본조선도쿄신주쿠(新宿)상공회 부회장이었던 2006년 3월 초순 음식업을 경영하는 상공회 회원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리사 자격이 없음에도 2005년 확정신고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음. 경시청은 10월 29일에도 신주쿠상공회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음.

● 日 대북 제재 “안 통한다” 주장(11/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부질없는 반공화국 제재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일본이 납치문제와 관련해 대북 추가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제재는 “우리(북한)에게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무의미하다”고 주장

마. 기타 외교 관계

- **北경제대표단,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11/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리룡남 무역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정부경제대표단이 2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이날 보도. 그러나 대표단의 구체적인 방문 목적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 북한은 1973년 6월 말레이시아, 1975년 11월 싱가포르와 각각 수교

- **北김영남, 테러행위 절대 용납 불가(11/28, 연합)**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8일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에게 보낸 위로전문에서 인도 뭄바이에서 일어난 인질테러행위와 관련해 “무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잔인한 테러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언급

- **폴란드, 北평양외대에 교육설비 기증(11/27, 조선중앙통신)**
 - 폴란드 정부가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60돌에 즈음해 27일 평양외국어대학에 교육설비를 기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기증식에서 이바슈케비츠 대사는 “평양외대의 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양국간 친선 협조관계가 더욱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
 - ※ 앞서 이바슈케비츠 대사는 10월 16일 평양에서 궁석웅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한 관리들을 초청한 가운데 양국 수교 60돌 기념 연회를 개최하였음.

- **北최태복, 카자흐스탄 상원의장과 회담(1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24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크야프 카자흐스탄 상원 의장과 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 **北, 앙골라 대사에 조만석 임명(11/25, 평양방송)**
 - 북한이 조만석 민주콩고 주재 대사를 앙골라 주재 대사로 겸임 발령한 것으로 25일 전해짐. 평양방송은 25일 조만석 대사가 11월 13일 호세 도스 산토

스 앙골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내는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

※ 북한은 민주공고와 1972년, 앙골라와는 1975년에 각각 수교

3) 대남정세

● 北, 신문·잡지 반입 금지, 적발시 방북 불허(11/30, 연합)

- 북한이 12월 1일부터 남북 간 출입 제한·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데 이어 남측의 신문, 잡지 반입도 금지한다고 30일 남측에 통보
- 정부 소식통은 30일 “북측은 오늘 전화 통지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 남측 정기 출판물을 반입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반입 금지 물품을 들여올 경우 인원 및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밝힘. 특히 북측은 현재 제한적으로나마 신문, 잡지 반입이 허용되어 온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됨.
- 북한 당국은 방북하는 남측 인사들에게는 신문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9개 종류의 신문 20부를 반입토록 허용해 왔음. 또 일반 방북자가 신문·잡지를 소지한 채 방북하다 적발될 경우 압수 및 주의 조치만 취한 뒤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았음.
- 북측은 이미 민간단체의 대북 빼라살포 문제가 본격 제기된 10월 하순부터 개성공단관리위로 들어가는 신문·잡지에 대해 검열을 거쳐 문제시되는 내용은 삭제한 채 반입토록 해 왔음.

● 남북 통행 시간대 1일부터 대폭 축소(11/30, 연합)

- 북한이 예고한 ‘12·1조치’에 따라 남북간 육로통행 시간대와 각 시간대별 출입 가능 인원 수가 다음달 1일부터 대폭 줄어들음.
- 우선 경의선 도로를 통한 출경(방북) 횟수가 오전 9,10,11시 등 하루 세차례(현재 12차례)로 줄어들고 매 시간대 출경가능 인원과 차량도 250명과 150대 이하(중전 500명, 200대 이하)로 감축, 또 입경(북귀) 횟수도 오후 3,4,5시 등 하루 3차례(현재 하루 7차례)로 줄어들고 입경 가능 인원 및 차량 수

도 같은 폭으로 감소됨.

- 동해선 도로의 경우 현재 하루 2차레씩 각각 출·입경할 수 있지만 12월부터 매주 화요일 1차레씩만 오갈 수 있게 됨.
- 경제협력과 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남측 인사의 육로 방북도 12월 1일부터 예외적인 허용사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단됨. 또한 북측은 이 통지문에서 “가족 사망, 구급환자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출입계획 변경이나 추가 통행은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힘.
- 개성관광과 경의선 열차 운행은 지난 28일을 마지막으로 이미 중단됐으며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역시 문을 닫음. 그러나 ‘12·1 조치’의 하나인 개성공단 내 남측 상주 체류자 감축 건에 대해서는 북측이 아직 구체적인 감축인원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유동적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힘.
- 현재 개성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은 680여 명이며 이들 중 철수 대상으로 최종 분류되면 12월 1일 이후 철수할 것으로 예상됨. 또 금강산 지역의 현재 체류자(192명) 중 철수 대상자들도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에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발표

※ 북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12·1조치’는 개성공단 남측 인력과 관련, 관리위원회의 경우 50%, 생산업체는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 현대아산 협력업체는 30%, 건설·서비스 업체는 절반 정도만 각각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강산 지구 내 체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였음.

● 현대아산, 인력철수 박차...금강산 내주 완료(11/30, 연합)

- 북측이 12월 1일부터 육로 통행을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아산은 30일자사 직원을 개성 지역에서 철수시키는 작업을 진행. 현대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30일 개성 상주 직원 91명 가운데 68명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철수
- 개성에 잔류하는 현대아산 직원들은 개성공단 시설물 건설과 관리에 꼭 필요한 인력이며, 개성 관광을 담당했던 직원 4명은 1명만 남기고 남측으로 귀환
- 현재 현대아산 필수직원 25명을 포함해 200여 명이 체류하는 금강산 지역 또한 북측이 내달 초까지 100명 미만으로 줄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내주 중으로 북측과 합의해 단계적으로 인원을 철수할 계획

● **경의선 마지막 운행, 개성관광도 중단(11/28, 연합)**

-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 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치' 시행을 사흘 앞둔 28일 경의선 철도가 마지막 운행을 하고 개성관광도 일단 중단
- 경의선 열차는 28일 화물을 싣지 않은 채 기관차 1량과 차량차 1량만으로 오전 9시30분께 도라산역을 출발, 북측 판문역으로 갔다가 오후 2시20분께 회차. 2007년 12월 11일 56년여 만에 재개통된 경의선 열차는 북한이 12월 1일부터 운행을 중단키로 하면서 이번 운행을 마지막으로 다시 개통되는 날만 기다리게 됨.
- 개성관광객 210명도 28일 오전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출발, 개성에서 마지막 관광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 5시10분께 돌아옴.
- 개성공단과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으로부터 다음 달 1일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도록 통보받은 우리 측 개성공단 인원은 현재까지 1천 600명 이상”이라고 언급했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은 37명이 잔류하게 됨. 통일부는 “북측은 체류증을 소지한 개성공단 관련 인원 4천168명을 감축 기준으로 삼았다”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전체 인원 수요를 취합, 2천여 명에 대해 잔류신청을 했는데 북한은 그 중 현재까지 1천600~1천700명을 허가했다”고 발표함.
- 북측은 또 12월 말 종료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개성 만월대 유적 발굴 현장의 남측 조사 인원에 대해 12월 1일 이후에도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입장을 남측에 공식 통보

● **北, 지원단체 실무자 방북 제한 다소 완화(11/2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2월부터 남북간 육로통행을 대폭 제한하면서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해서도 지원물자와 함께 후원인들이 대규모 방북하는 것을 불허하고 실무자 1명만 방문토록 엄격히 제한하려다 이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알려짐.
- 개성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관계자는 “27일 개성에서 만난 북측 명승지개발지도총국 담당자로부터 연탄과 함께 실무자 방문은 허용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한번에 4~6명의 실무자가 방북할 수 있을 것”이라고 28일 전언. 명승지개발지도총국은 11월 25일 실무협약에서는 12월부터 연탄나눔운동의 지원물자와 인솔자 1명만 개성지역에 방문할 것을 요청했었음.

12.01-12.07

12월
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3. 대남정세: 남북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美, 김정일 건강 심각하다고 판단(12/5, 요미우리신문)

- 미국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상상 이상으로 나쁘다'고 판단하고 김 위원장의 실각 또는 사망을 전제로 대응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미국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일시 김 위원장이 건강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봤으나 그후 정세 분석에서 김 위원장의 용태가 예단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 좌반신(左半身) 불수인 김 위원장이 핵 문제를 포함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판단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봄.

● 김정일의 유력 후계자는 미공개 아들(12/2, 텔레그래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할 경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아들이 후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2일(현지시간) 보도. 텔레그래프는 북한 전문가인 시계무라 도시미쓰 와세다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보도
- 시계무라 교수는 “지금까지는 김정남과 김정철을 지지하는 두 세력 사이에 내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아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주장
- 그는 “이 아들은 현재 30대로, 군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왔다”며 “그가 군부의 지지를 받는다면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
- 시계무라 교수의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일은 건강이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김정일의 후계자와 관련한 추측들이 잇따르고 있음.

● 김정일, 동물원 시찰사진 공개(12/2, 조선중앙TV)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보수 공사가 끝난 평양의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한 것과 관련, 조선중앙TV가 2일 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 14장을 포

함한 동물원 현지지도 관련 사진 27장을 공개

- 중앙TV가 이날 저녁뉴스를 통해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시종 선글래스를 낀 채 오른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키거나 만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왼손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음. 김 위원장은 동물원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오른손에 낀 장갑을 수차례 벗기도 했으나 역시 왼손에 낀 장갑은 벗지 않음.

● 김정일, 양손 머리 높이 들어 박수(12/1,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이상설' 제기 이후 처음으로 양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리고 장갑을 낀 양손을 머리 높이에서 세운 채 박수를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됨. 조선중앙TV가 1일 오전 공개한 그의 북한 공군 제1016부대 시찰 사진 36장 가운데 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16장임.
- 종래와 마찬가지로 선글라스와 회색 파카 차림의 김 위원장은 추운 날씨 때 문인 듯 진한 갈색의 방한모와 회색 방한장갑을 끼고 있음. 이들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실외에서 수행원 및 현지 부대 지휘관들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거나 실내에서 양쪽 벽에 붙은 선전물을 보며 걷는 모습, 지휘관들 앞에서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말하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음. 또 의자에 앉아 오른팔을 등받이에 걸치고 왼팔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사진도 있음.
- TV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군인들 사진에 이어 김 위원장이 두 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려 박수를 치는 모습과 두 손 다 머리 높이까지 치켜들어 박수를 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내보냈음.
- 김 위원장은 실내에서도 내내 방한장갑을 양손 모두에 끼고 있으나, 실외에선 오른손은 맨손인 채 왼손에만 장갑을 끼고 걷는 사진도 2장 공개되었음.

나. 정치 관련

● 北조평통, 南 책임전가는 도발행위(12/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일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 파탄의 책임을 북측에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비난
- 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개성관광 중단 등 북한의 '12.1조치'와 관련

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등을 언급하며 “현 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보려는 책동은 북남관계 파탄의 주범으로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고 북침전쟁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략”이라고 주장. 이어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나가다가는 이제 어떤 극단적인 사태가 빚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

● 北, 남북관계 위기 南책임 주장(12/4, 민주조선;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4일 ‘죄 지은 자들의 발버둥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북한의 제한·차단조치는 남한 정부의 “반공화국(북한) 대결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정당한 조치”라며 남한측이 ‘상투적 헐박’ 등이라고 시비하는 것은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의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 신문은 “더 늦기전에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인정하고” 대북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인용 보도
- 노동신문은 ‘붙는 불에 키질하는 정치 송장’ 제목의 논평에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불건전한 남북교류 정리’ 등 대북 발언에 대해서도 “반민족적 추태”라고 비난

● 北, 경제난 속 우상화물 건립 확대(12/4, 연합)

- 북한 당국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체제 결속을 위해 북한 전역에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시설물 건립을 지속적으로 확대
- 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97.10)된 이후부터는 각 지역에 김일성 부자를 주제로 한 모자이크 벽화를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혁명사적 표식비 등도 속속 세우는 추세임. 모자이크 벽화란 섭씨 1천200도에서 구워낸 색 유리와 타일 또는 가공된 천연석 등을 벽체에 붙이는 방식으로 김 주석 개인이나 김 위원장과 함께 있는 모습, 김 위원장 생모인 김정숙의 얼굴 등을 주로 담고 있음. 모자이크 벽화는 2000년대 들어 도입되기 시작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도, 시, 군, 리나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북한 곳곳에 건립되고 있음.

- 2000년대 들어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기준으로 보면, 2000년엔 1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엔 4개가 건립됐다고 보도됐고 2003년부터 19개로 급격히 늘어나 2004년 49개, 2005년 70개가 이어 2006년에는 55개, 지 2007년에는 67개였다가 올해의 경우 11월 말 현재 88개에 달함.
- 모자이크 벽화의 규모도 대형화 추세, 일반적으로는 길이와 높이가 각각 5~10m 정도이지만 최근엔 길이 30여m, 높이 20m가 넘는 것들도 만들어 지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2007년 4월 김 주석의 95회 생일을 맞아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와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에 세워진 벽화로써 김일성 부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위대한 내 나라 내 조국이며, 천만년 무궁번영하여라’는 길이와 높이가 각각 42m와 25m에 달함.

● 남북 함정통신, 사실상 기능상실(12/3, 연합)

- 남북이 서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004년 6월 개통한 함정간 무선통신 망이 북측의 비협조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남. 국방부는 3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보고한 ‘남북군사관계 현황과 대비’란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기준으로 남측은 함정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104회 호출 했으나 북측은 단 한 차례 응답했다”면서 “충돌방지 합의사항 이행률도 극히 저조하다”고 밝힘.
-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북간 함정교신 횟수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면서 “11월에도 북측이 응답한 횟수는 한자릿수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 하다”고 답변

● 北매체, 서방 인권공세 용납 불가(1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인권유린 왕초들의 주제넘은 짓이라는 글에서 11월 채택된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가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주도로 제안된 데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고 1일 주장
- 통신은 특히 일본과 EU는 “침략전쟁, 살인전쟁을 감행한 역사상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국”으로서 “그 누구의 ‘인권상황’에 대해 논란 자격을 잃은 나라들”이라며 “오늘에 와서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전쟁에 자기 나라 병력을 파견하였던 것도 바로 일본과 EU의 성원국”이라고 비난. 통신은 그러나 남한이 이번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다. 경제 관련

● UAE 기업, 대북사업 진출(12/6, 자유아시아방송)

- 아랍에미리트(UAE)의 기업들이 최근 대북사업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
- RFA에 따르면 UAE의 투자회사인 아부다비 투자회사(ADIC)는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자회사 중 하나인 오라스 인베스트를 11월 약 1억8천만 달러에 인수했음. ADIC는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오라스 인베스트에 관한 모든 권한을 넘겨 받게 되며, 오라스콤측은 이 회사를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
- ADIC측은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에서 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업에 당장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수 기간을 거친 뒤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고 RFA는 보도
- 또 얼마 전에는 UAE의 다른 기업이 광산 개발권을 대가로 평양 류경호텔의 재건축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UAE의 국영 부동산개발업체 회장이 류경호텔에 관심을 나타내고 2007년 평양을 방문했다면서 그가 류경호텔의 자금 지원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RFA는 보도

● 北, 상습 범람 北대동강 제방 낮춰(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1월 강안(둔치) 정리공사를 끝낸 평양의 대동강 일부 구간의 제방 높이를 풍치를 감안해 공사 이전보다 낮췄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통신은 평양 옥류관과 충성의 다리 사이의 대동강 제방이 이전보다 낮아졌다면서 “이번에 이미 있던 제방을 낮춘 것은 대동강의 하류에 서해갑문이 건설되고 강을 따라 올라가며 미림갑문, 봉화갑문, 성천갑문, 순천갑문 등이 일떠서 수위 변화가 조절돼 큰물 피해를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통신은 “제방의 높이가 낮아져 주체사상탑을 비롯한 동평양지구가 풍만한 대동강의 흐름과 어울려 더욱 환하게 안겨오게 됐다”면서 “강안에는 도로들이 새로 형성되고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꽃나무들로 원림이 조성됐다”고 보도.
- ※ 평양시는 2007년 4월 대동강 ‘강안 정리공사’ 1단계 공사를 마친 데 이어 2008년 5월 2단계 공사를 시작했었음.

● 北라선시, 경공업공장들 생산정상화 박차(12/5, 조선중앙방송)

- 지난 1991년 '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됐던 북한의 라선(라진·선봉)시의 경공업공장들이 생산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5일 보도
- 방송은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두 달이나 앞당겨 끝낸 라진음료공장과 라선 어린이식료품공장, 라선식료공장, 라진가구공장, 라선제지공장, 선봉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라진가방공장의 일꾼과 노동자가 혁신의 앞장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고 소개. 이들 공장에선 "원료와 자재보장 사업을 앞세우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 날마다 맛있는 식료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

● 北, 올해 쌀 수확량 140만t(12/5, FAO; 미국의소리방송)

-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140만t으로 작년 120만t에 비해 20만t 증가했다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 FAO는 최근 발표한 '식량전망(Food Outlook)' 보고서에서 또 외부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되는 쌀 60만t을 포함하면 2009년까지 북한의 가용 쌀은 2백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5일 보도
- FAO는 북한의 옥수수 생산량 역시 작년 1백30만t에서 올해 1백9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양은 20만t으로 작년의 70만t보다 적어 내년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은 올해 2백만t보다 약간 늘어난 2백10만t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쌀과 옥수수, 밀가루 등을 제외한 도정하지 않은 곡물의 올해 수확량은 2007년 1백50만t보다 60만t 늘어난 2백10만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었음.
- 앙리 조세랑 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의 수확량이 지난해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를 맞추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언급, 또 폴 리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사무소 대변인도 "이번에 조사된 수확량 수치들은 북한에 식량 부족 우려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 北-싱가포르, 투자 협정 조인(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부와 싱가포르 정부가 2일 싱가포르에서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

는 리룡남 무역상과 림 흥 키양 싱가포르 무역공업장관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이날 북한 상업회의소와 싱가포르기업연맹은 상호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통신은 보도

※ 북한과 싱가포르는 1975년 11월 수교

● 북-예멘, 협조 합의서 조인(1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예멘총인민대회가 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친선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와 압둘라흐 아흐메드 가님 예멘총인민대회 총위원회 위원 겸 정치부장이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 北냉면명가 모란각, 청량음료점 변신(12/2, 조선신보)

- 평양시 모란봉구역 모란봉 산정에 위치한 ‘냉면명가’ 모란각이 청량음료점으로 변신한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신문은 “모란각 기본건물에 잇달아 산지세를 그대로 2층으로 된 식사실과 자연미 그대로의 노천식탁이 새로 건설됐다”면서 이같이 보도

- 모란각의 이런 변신은 지난 6월 5일 개보수를 마친 모란각에 들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모란봉을 찾는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도록” 청량음료 판매시설을 새로 갖출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

- 새 시설은 창기외를 씌운 전통 건축기법의 2층짜리 식사실과 야외 식탁코너로 나뉘져 있으며 1층은 전면 통유리로 둘러막힌 130석 실내 식사실로, 2층은 96석의 개방형 식사실로 각각 꾸며짐.

● 北, 연말 맞아 증산투쟁(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연말을 맞아 각 경제부문의 연간 생산계획을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독려하는 ‘연말전투’를 대대적으로 독려. 조선중앙방송은 1일 “채취공업 부문의 일꾼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신년)공동시설의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다”며 문평제련소와 상능, 리원, 은파광산 등의 생산혁신 소식을 보도

- 북한 내각의 경공업성 김기철 처장은 11월 30일 방송에 출연, 올해 북한 당국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구호로 내건 사실을 상기하며 신의주, 사리원방직공장과 삭주, 해주직물공장 등 경공업성 방직공업관리국 산하 공장에서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

● 北, 경제건설에서 국방공업 우선 강조(1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이라는 글에서 1일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강력한 국방력을 다지는 동시에 경제 전반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를 상기시키며 경제건설이 "강성대국 건설의 주공전선"이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소개한 뒤 "오늘의 시대는 국방공업의 발전 정도에 의하여 국가 경제력이 좌우되는 시대"인 만큼 "국방공업이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경제구조를 확립하여야 자립적이며 튼튼한 경제 토대를 축성할 수 있다"고 강조

라. 사회·문화 관련

● 상하수도 개선사업 적극 추진(12/7, 평양방송)

-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식수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물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7일 보도. 평양방송은 내각 도시경영성에서 "전국의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상하수도 관리가 새로운 높이에서 진행되도록 경제조직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평양시 식수 생산능력을 수요에 맞게 조성하는 동시에 평양시 주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2008년도 결산(12/7, 조선중앙방송)

- 2008년도 한 해 동안 10여 개 단위가 '3중 3대혁명붉은기'를, 210여 개 단위가 '2중 3대혁명붉은기'를, 880여 개 단위가 '3대혁명붉은기'를 각각 쟁취했으며 이 과정에 12만 5천370여 명의 '3대혁명 기수'들이 배출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 보건성, 신형 소독기 보급(12/5, 조선신보)

- 북한 보건성이 음이온과 오존을 동시에 발생시켜 실내 공기를 소독하는 ‘음이온오존발생 소독기’를 새로 만들어 수술실, 소독실, 병실 등에 보급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5일 보도

● 北, 학교시설 현대화사업 추진(12/5, 평양방송)

- 북한 각 지역에서 올해 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해 설비와 자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큰 성과를 이뤘다고 평양방송이 5일 보도. 방송은 “종합된 자료”를 인용해 “전국 각지의 후원단체들에서 교육기관들에 3천500여종에 114만점에 달하는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 수많은 학교보수용 자재와 설비를 지원했다”고 보도
- 방송에 따르면 황해북도는 2008년내에 도내 각급 학교에 수천대의 컴퓨터를 지원하는 계획을, 황해남도 당위원회는 학교마다 교육용 녹화촬영기를 지원하는 계획을 각각 추진, 또 평양시는 시내 모든 학교의 교실에 다매체 교육을 위한 교육설비를 지원했고, 함경남북도도 평남북도도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계획을 진행

● 北, 한의학 전자사전 제작(12/5, 조선신보)

- 북한의 한의학 연구기관인 고려의학과학원은 최근 한약재와 처방, 경락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다매체 전자사전’을 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5일 소개
- 신문에 따르면 이 사전에는 2만9천700여 개의 한의학 용어, 수천여 개의 한약재와 처방 등은 물론 조선 후기 한의학자인 이제마와 동의보감 편찬자인 허준 등 수십 명의 인물자료, 수백 건의 문헌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사전은 지난 10월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 제19차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 北당국, 평양서 휴대전화 재개통(1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12월 중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중국의 대북 무역업자 말을 인용해 보도. 이 무역업자는 방송에서 “북한 당국이 최근 평양에서 휴대전화 가입 희망자들에게 기기를 대당 700달

리에 판매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며 “1차적으로 평양에서 개통하고 차츰 도·시·군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언. 그러나 그는 “휴대전화 사용을 당 간부나 특정인에게 국한하는지, 아니면 일반주민까지 확대하는지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고 언급

- 이번 휴대전화 재개통은 올해 1월 사업권을 따낸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짐. 오라스콤은 지난 5월 시험 통화에 성공했음.
- ‘러시아의 소리’ 방송도 최근 “오라스콤이 15일 평양에서 투자설명회를 연다”며 “(북)조선에 곧 새로운 이동통신회사와 인터넷회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도

● 北주민들, 오바마 당선에 북미관계 개선 기대(제255호, 오늘의 북한소식: 12/3, 연합)

-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북미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일 보도
- 북한 주민들은 북미관계 개선의 효과로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쓸 돈이 자신들의 생활 개선으로 돌려지거나 군대에 식량과 물자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등의 혜택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소식지에 따르면 강원도 원산시장의 한 주민은 “노예로 미국에 팔려온 조상을 둔 후손인 만큼 잘 사는 자본가 출신의 역대 백인 대통령들처럼 오만 무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일제 중고품을 판매하는 김모씨는 “조미관계가 좋게 발전한다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거나 원거리 미사일 개발에 인력과 재력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우리 부담도 적어지고 생활도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평양시의 한 간부는 북미관계의 진전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더 과시해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나라 인권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당당하고 강경하게 나서야지 조금이라도 비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소식지는 보도

● 北보건성, 에이즈 예방사업 강화(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리봉훈 보건성 부상(차관급)은 '세계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의 날'인 1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에이즈기구(UNAIDS)를 비롯한 국제기구·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에이즈 예방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 부상은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에이즈의 날 행사 개막연설에서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도 에이즈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이날 행사에는 북한의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간부들과 북한 주재 국제기구,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

● 北김향옥, 세계女복싱대회 금메달(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여자 복싱선수 김향옥이 11월 22~29일 중국에서 열린 제5회 세계 여자복싱선수권대회 50kg급 경기에서 금메달을 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 김 선수는 지난 9월 인도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여자복싱선수권대회에서는 은메달을 받았음.

● 北, 전역 도서관의 전자화 추진(11/19, 노동신문)

- 노동신문 11월 19일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 최대 도서관인 평양 인민대학습당의 전자도서관을 중심으로 "온 나라 도서관을 전자도서관화" 하도록 지시한 결과 9월 현재 "각 도 도서관들이 우리 식의 봉사운영 방식과 현대적인 정보설비들에 기초해 독자들에게 대한 정보 봉사를 시작한 데 이어 시, 군(구역) 도서관들에서 정보봉사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신문은 "각 도 도서관들이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정보봉사 중심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며 자강도,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도서관이 이미 전자도서관으로 개축됐고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량강도에서는 "전자도서관화 되는 도서관의 품격에 맞게 새 도서관을 일떠 세울(건립할) 목표를 내세우고 건설전투를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 北, 라면 대량생산 통해 식량난 극복(12/1, 연합)

- 1990년대 후반 이후 10년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라면 대량생산에 나서고 있음. 북한을 상대로 무역과 임가공사업을 하는 대북 사업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인민들에게 라면을 대량 공급하고 외화벌이도 하기 위해 라면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음.
- 북한은 이를 위해 평양시 락랑구역 통일거리 옆 전진동 3만평 부지를 한국의 대북사업체인 (주)G-한신에 제공하고 하루 빨리 라면 대량생산에 나설 것을 독려 중임. 전중무 (주)G-한신 대표는 “지난달 21일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면서 “우선 2천 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언급. 전 대표는 “공장이 완공되면 월간 최대 1천80만 봉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서 “50%는 주민들 공급용으로 배급하고 나머지 50%는 한국 등 외국시장에 수출할 예정”이라고 답변
- 라면을 ‘즉석국수’라고 부르는 북한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 홍콩 자본 유치를 통해 평양시 대동강변에 북한 최초의 라면공장인 ‘대동강즉석국수’ 공장을 건설한 바 있음. 그러나 라면공장 가동에 필요한 중유 등 연료 부족으로 북한 국산 라면이 자취를 감추면서 북한 전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라면은 중국산 등 대부분 외제임.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들어 평양시 만경대구역 삼흥동에 위치한 평양밀가루기공공장에 무연탄 보일러를 설치하고 북한산 밀가루를 원료로 국산 즉석국수 생산에 들어갔음.
- 또 전라북도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공동으로 2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평양시 만경대구역 식품가공단지 안에 라면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12/7, 연합)

-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베이징에서 8일 개막하는 6자 수석대표회담을 앞두고 7일 러시아측과 양자 회동.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간)부터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러시아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을 만나 검증의정서 채택을 비롯한 회담 의제에 대해 의견을 논의

- 김 본부장은 오후 4시부터는 차이나월드호텔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및 일본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함께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질 계획
- 김 본부장은 앞서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회담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
- 6일 베이징에 도착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다른 곳과 양자접촉을 가지지 않은 채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외무성, 6자 수석대표회담서 日과 상종 않겠다(12/6, 북한외무성 대변인)

- 북한 외무성은 6일 일본이 10·3합의에 따른 비핵화 2단계의 경제적 보상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일본과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본이 “10·3합의 이행이 마감단계에 이르도록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면서 “회담에는 계속 주제넘게 참가하겠다고 설치”고 있다며 “설사 일본이 수지도 느끼지 못하고 염치없이 회담장에 찾아온다 해도 우리는 일본을 참가국으로 치부하지 않으며 상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
- 대변인은 “6자회담 참가국 중 유독 일본만은 자기의 의무이행을 전혀 해오지 않았으며 지금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6자회담 밖의 다른 나라들이 일본 대신 경제보상에 참가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는 조건에서 일본이 없어도 10·3합의는 이행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
- 대변인은 그러나 이 회담의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 명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회담의 기본과제는 “우리(북한)의 무력화(불능화) 속도에 비해 뒤떨어진 5자의 경제보상 속도를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맞게 따라세우며 검증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자는 것”이라고 강조

● 조선신보, 시료채취 명기는 동시행동원칙 부정(1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6일 북한이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최대 현안

인 ‘시료채취’ 명문화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 조선신보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지난 10월 초 방북 때 북미간에는 “현 단계에서 핵신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하게 될 검증조치만 문구로 합의”했을 뿐 “시료채취는 상정되지 않았다”며 “핵문제의 핵심당사자들인 조(북)미 쌍방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화(불능화)단계에서 적용되지 않는 검증방법을 실시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결국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부정하고 비핵화 과정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생트집이나 같다”고 주장

- 신문은 “미국과의 (평양)합의는 검증의 방법과 범위를 한정했으나 이것은 조선측이 전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과정에 제기될 검증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검증문제에서도 단계론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 북한이 시료채취 명문화문제를 이번 회담이 아닌, 추후 비핵화 3단계에서 논의할 입장임을 밝힘.
- 신문은 이번 6자 수석대표회담은 “비핵화 2단계의 행동조치를 명기한 10·3합의 이행의 완결을 위한 회합”이고 “협상의 초점은 늦어진 5자의 경제보상을 마무리짓는 전망을 뚜렷이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
- 또 힐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싱가포르 양자회동을 언급하며 “어렵게 마련된 조미(평양)합의를 다자외교의 틀거리안에서 확인하지 못할 경우 6자회담의 전망은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시료채취 명문화가 쟁점이 될 경우 부시 행정부 임기내 마지막 6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것임을 내비침.
- 이어 6자 수석대표 회담의 개최 날짜를 주최국인 중국이 발표하는 관례를 깨고 미 국무장관이 공개발언을 통해 먼저 제시했다며 “임기 말에 들어선 부시 행정부에도 2단계를 빨리 매듭 짓고 대조선 정책의 계주봉을 차기 정권에 정확히 넘기려는 의향이 있는 듯하다”고 평

● 北·美, ‘시료채취’ 합의도출 못해(12/6, 연합)

- 북한은 4~5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6자 수석대표 간 회동에서 최대 현안인 ‘시료채취’ 명문화에 대한 미국의 절충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이번 북미 회동을 통해 시료채취 명문화를 포함한 검증의정서의

- 내용을 사실상 결정하려던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8일부터 열리는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다시 이를 놓고 담판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핵 6자 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5일 오후 싱가포르의 미국 대사관에서 2차 북미회담이 끝난 후 북한 대사관저로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간에 걸쳐 10·3 합의의 마무리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했다”며 “시료채취는 검증방법에 관한 문제이며, 앞으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 그는 검증방안 일부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비공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토론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크게 합의 보기 위해 모인 게 아니고 쌍방의 목적을 조율하는 게 목표였다”고 답변
 - 힐 차관보도 기자들에게 “북한 측은 지난 10월 미국과의 합의에 대한 존중을 재확인했으나 그것을 문서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노출됐다”면서 “문제는 얼마나 그들이 이를 문서에 담아내려고 하는가다”라고 답변
 -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제시한 절충방안에 대해 북한이 시료채취 명문화를 수용하면 문서형식은 비공개 양해각서에 담는 방안과 구체적인 표현을 북한측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검증 단계를 세분화해 각단계별 이행의정서를 만드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
 - 중국은 최근 6자회담 일정과 관련, 8일 오후에 시작해 10일 오후 폐회하는 방안을 참가국들에게 비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계관 부상은 “우리는 8일 회담개최에 반대 없다”고 답변
 - 이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참가국들은 회담 전인 6~7일 베이징에 모여 8일 오전까지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접촉을 갖고 시료채취를 핵으로 하는 검증의정서 문제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 6자회담 8~10일 개최 비공식 통보(12/5, 연합)

- 중국이 북핵 6자회담을 12월 8일부터 베이징에서 갖자고 참가국들에 비공식 통보. 외교 소식통은 5일 “중국이 공식발표는 안 했지만 각 나라에는 알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 이에 따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참가국들은 6~7일 회담

장인 베이징에 모여 8일 오전까지는 다양한 양자 및 다자간 접촉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이 소식통은 개별적 양자협약에 언급, “일요일 오후 한·미·일 3국 마지막으로 협의할 예정이고 나머지 국가들에도 요청은 다 해냈다”면서 “우다웨이 부부장이 경협 관련 업무로 국외에 있어 (중국과 일정은) 마지막에 잡힐 것”이라고 전언

● 김숙, 한·미·일, 내년 3월까지 비핵화 2단계 완료(12/3, 연합)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일 “한국과 미국, 일본은 가급적 내년 1분기 내에 비핵화 2단계(핵불능화 및 핵신고)를 매듭짓고 3단계(핵포기)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언급
- 비핵화 2단계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와 이에 따른 나머지 5개국의 중유 95만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당초 10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검증 방법 등에 대한 이견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있음.
- 김 본부장은 8일 개막할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에서 논의할 핵심의제인 검증의정서와 관련, “3국은 합의에 시료채취 등 검증의 핵심요소들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어떤 종류의 합의가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거기엔 시료채취가 의심의 여지없이 임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변
- 그는 또 일본이 납치문제 진전을 조건으로 걸며 동참하지 않고 있는 대북 중유지원 20만t에 대해 “국제모금하는 방안을 이번 회담에서 합의하기로 했다”면서 “국제모금을 하더라도 6자회담의 구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북, 키신저에 평양방문 요청(12/6, 연합)

-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한나라당 한미비전특위의 정몽준 위원장은 4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키신저 전 장관을 면담했을 때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힘.

- 정 위원장은 “키신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라고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방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언

다. 북·일 관계

● 日경찰, 조총련 산하단체 간부 체포(12/3, 연합)

- 일본 도쿄 경시청은 3일 무자격으로 세리사(세무사) 업무를 한 혐의(세리사법 위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단체 재일본조선도쿄도신주쿠상공회 간부인 엄모(33)씨를 체포.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소속 회원들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할 당시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확정신고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음. 경시청은 앞서 11월 27일에도 신주쿠상공회 전 간부인 서모(54)씨를 같은 혐의로 체포
- 경시청은 상공회의 다른 직원들도 무자격으로 세리사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지속, 조총련측은 경찰의 잇단 조총련계 인사 체포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

● 北,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격 없어(1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정치난쟁이의 주제넘은 행실’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대해 “자격도 없다”고 비난하고 우선 과거 청산과 국제적 신뢰 회복을 촉구
- 노동신문은 최근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합법성’을 강조한 사실을 거론,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입에 올릴 체면도, 자격도 없으며 또 그럴 처지에 있지도 못하다”고 주장

● 北, 日과는 반드시 결판볼 것(1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국제적 망신과 고립을 면치 못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움직임 등을 지적, “일본과는 반드시 결판을 보아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다”고 주장

라. 기타 외교 관계

● 몬테네그로 대사에 조승주 겸임(12/7, 조선중앙방송)

- 조승주 몬테네그로 주재 북한대사가 12월 1일 필립 부야노비치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불가리아 주재 대사인 조 대사는 마케도니아, 터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대사를 겸직

※ 북한은 2006년 6월 신유고연방으로부터 독립한 몬테네그로와 2007년 7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음.

● 체육지도자대표단 라오스 방문(12/6, 조선중앙방송)

- 박학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체육지도위원회대표단이 6일 항공편을 이용해 라오스 방문길 올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3 대남정세

● 北, 12·1조치 전 민경련 베이징사무소 재가동(12/6, 연합)

- 북한의 '12·1조치'로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가 폐쇄되기 직전 북한이 또 다른 대북사업 협의채널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에 직원을 다시 상주시키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6일 정부와 업계의 남북경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이후 직원이 자리하지 않았던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에 11월 말부터 실무 직원이 상주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음. 대북사업 컨설팅업체인 포인비즈의 김병수 대표는 "임시로 나와 있던 삼천리 총회사 관계자가 10월 중순 떠난 이후 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던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에 12·1조치 사흘 전쯤부터 실무 직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소개
- 이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개성 경협협회사무소를 폐쇄한 후에도 남북경협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자체 계획에 따라 직원을 파견한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

※ 민경련 베이징 사무소는 대북교역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민경련 단둥(丹東) 대표부와 달리 IT관련 업무로 특화돼 있음.

● 개성공단 인력 4일 철수 완료(12/4, 연합뉴스)

- 북한의 '12·1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상시체류자 명단에서 제외된 인력들의 철수가 4일 마무리될 예정.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마지막 남은 개성공단) 비상주 체류인원 16명이 철수함으로써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고 언급
- 김 대변인은 “원래는 어제 철수를 다 해야했지만 탑승 차량에 대한 행정절차가 늦어져 오늘 오후 3시에 복귀하는 것으로 됐다”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오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 그는 이어 “금강산 지구는 순조롭게 철수가 진행돼 오늘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오늘 내국인 8명, 중국인 23명이 철수함으로써 100명으로 잔류인원이 최종확정된다”고 언급
- 통일부는 또 12·1 조치 이후 상주체류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던 조치를 12월 4일 부터 해제, 북측이 허용한 방북은 일단 신청한대로 허가
- 김 대변인은 현대아산이 12월 2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는 금강산관광에 이어 개성관광까지 중단된 상황과 이 과정에서 현대아산이나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힘.
- 4일 현재 북한 지역에는 개성공단에 상주체류자 668명과 일시체류자 7명, 금강산에 59명, 평양에 일시체류자 20명, 해주지역에 모래채취사업 관계자 19명 등 상주체류 727명과 일시체류 46명을 합쳐 모두 773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 대북 인도지원 물자 개성 수송 차질(12/2,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방문 차량을 하루 450대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지원물자 북송도 차질을 빚고 있음.
- 개성에 연탄을 지원하고 있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니눔운동’의 윤유선 실장은 “3일과 4일 각 5만장의 연탄을 25t 트럭 8대에 실어 전달할

계획이었지만 하루 개성지역을 드나들 수 있는 차량 쿼터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9일이나 연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힘.

- 윤 실장은 “지난 28일 통일부에 차량 방북을 신청했지만 이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자수송 차량을 중심으로 선착순 접수가 끝났더라”면서 “인도지원 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北, 개성공단 상주인원 880명으로 제한(12/1, 통일부)

-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1일 “북한이 11월 30일 밤 11시 55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구두(口頭)로 개성공단 상시 체류(상주)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힘.
- 880명은 평소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 1700여 명의 절반 수준이어서 공단 입주기업의 경영에 차질이 예상됨. 다만 북한은 880명 외에 기존 체류증을 가진 남측 인원(4200여 명)의 방북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최장 7일간 허용하겠다고 밝혀, 실제 개성지역 체류 인원은 1,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

● 北, ‘금지물 반입’ 방북자 6명 돌려보내(12/1, 연합)

-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12.1 조치 시행 첫날인 1일 북측이 사전 허가를 받고 출경한 우리 측 인사 6명을 금지물품 반입 및 서류 미비 등 사유로 즉시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됨. 정부 소식통은 “오늘 방북 승인을 받고 경의선 남측 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한 인원과 차량 중 인원 6명과 차량 5대가 북측 CIQ에서 체류증 불소지 등 서류미비,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 소지(1명, 1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즉시 되돌아왔다”고 전언

〈첨부1〉 개성공단 인력 관련 北통지 [전문]

다음은 통일부가 1일 밝힌 북측의 통보 내용.

1. 12월1일부터 체류등록증 및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 가운데서 증명서 유효기간내 공업지구에 상시 체류할 수 있는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①관리위원회 27명 ②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 ③현대아산 개성사업소 40명 ④송악프라자 그밖의 건물에 있는 노래방,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오락시설(위락장) 경영인은 체류할 수 없다, ⑤송악프라자의 식당, 숙소 경영 관리인 5명 ⑥송악프라자의 상점 커피점 2명 ⑦개성공업지구 남측 협력병원 2명 ⑧건설 및 생산업체와 그 밖의 기업(관리위원회 시설관리, 소방대 포함 7명) 800명

2. 12월 1일부터 승인된 인원의 체류 형식과 방법

①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27명, 토지공사 개성사무소 4명은 상시체류 인원을 고정하고 인사이동 등 기타 사정으로 완전 출국하는 경우에만 (교체인원이)들어와 체류할 수 있다.

②그밖의 다른 모든 업체 인원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승인된 체류인원 수 범위안에서 임의 날짜에 교대 체류할 수 있다.

③승인된 상시체류인원의 체류등록증, 거주등록증을 발급받은 인원의 출입은 해당 증명서로 출입할 수 있으며 1회 체류기간은 7일만이다. 정해진 체류기일은 연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한 제재를 적용한다.

④출입변경은 본인병 위급, 부모형제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출입을 신청하였으나 정해진 날짜의 시간에 출입하지 않은 인원은 다시 신청해야 하며 재신청한 인원이 연속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출입계획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려는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까지 출입을 중지시킨다.

- ⑥승인되지 않은 출판물, CD등 전자매체를 비롯하여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인원은 이유에 관계없이 즉시 추방한다.
3. 하루 출입 인원과 차량의 출입은 군사통지문에 지적된 대로 한다.
4.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상시체류하려는 인원명단을 12월 1일 오전 9시 까지 작성하여 출입국사업부에 제출하고 승인받을 것이며 그밖의 인원은 가장 빠른 시일 안으로(72시간) 수속하고 내보낼 것이다.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08-12.14

12월
2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사회 관련
- 마. 기타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 다. 북·일 관계
- 라. 북·러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프랑스 의사, 김정일 치료한 적 없다고 주장(12/13, AP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 치료차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뇌신경 전문의인 프랑수아-자비에 루 박사는 13일 A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을 치료했다는 프랑스 언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
- 앞서 르 피가로 11일자에 따르면 루 박사는 “김 위원장은 뇌혈관 사고의 희생자이나 실제로 외과적 수술을 받지는 않았으며 건강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며 “요즘 공개되는 사진들은 진짜로 보인다. 그는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또 르 피가로는 루 박사가 “진료에 관한 비밀과 나라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었음.
- 그러나 루 박사는 이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은 김 위원장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 루 박사는 지난 4월 몇몇 동료들과 최신 척추 수술법을 가르치기 위해, 10월에는 24시간에 걸쳐 신경외과 의료기관에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도 “다른 프랑스와 독일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차례 방북했지만 지도자를 본 적은 없다”고 답변

● 김정일, 농장원들 편지에 ‘친필’ 보내(12/12,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원들이 보낸 편지를 받고 자신의 “친필(서명)”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2일 보도. 김 위원장은 미곡협동농장 농장원들이 지난달 25일자로 보낸 편지를 보고 ‘2008년 12월 10일 김정일’이라고 직접 쓴 “은정어린 친필”을 보냈다고 중앙방송은 날짜를 각각 명기해 보도
- 농장원들의 편지와 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친필” 공개는 그가 미곡협동농장과 사리원담공장, 사리원 시내 ‘민속거리’ 등 사리원 지역을 시찰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11일 오후 보도에 이어 나온 것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추정됨.

- 김정일, 사리원담공장·농장·민속촌 시찰(12/11, 조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현대화 공사를 마친 황해북도 사리원담공장과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사리원시내의 '민속거리'(민속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1일 보도. 그러나 방송은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일 김 위원장의 평양 중앙동물원 시찰을 보도한 이후 9일만임.
 -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에는 최룡해 황해북도당 책임비서, 박남기 노동당 부장,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북한군 현철해, 리명수 대장이 수행

- 김정일 뇌출혈, 수술은 안해(12/11, 르피가로)
 - 지난 10월 김정일의 치료를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신경외과 전문의 프랑수아 자비에르 루(Roux)는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이 뇌출혈 피해를 입었지만 수술은 받지 않았으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나. 정치 관련

- 北, 美경제위기, 군사비 지출 때문(12/14,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4일 '미국의 경제 해일의 화근은 무엇인가'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군사비 지출' 때문이라고 주장,
 - 신문은 “미국은 막대한 전쟁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증가, 아무런 담보도 없는 각종 채권발행, 다른 분야의 지출축소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미국의 예산적자 위기를 격화시키고 경제전반의 목을 조이고 있다”고 주장

- 北, 南 '북한인권법안', 독소조항 가득(12/13,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13일 '남잡이가 제잡이 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나라당의 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이라고 비난

- 통일신보는 통일 후 인권침해자 처벌을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를 명문화한 대목에 대해 “통일은 민족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북한인권대사 설치에 대해서도 “동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
- 신문은 대북 전단지 살포 지원과 대북방송 원상복귀 조항과 관련, “한나라당이 반공화국 뼈라살포행위의 공범자이고 대결에 환장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런 동족대결의 악법이 만들어질 경우 북남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임.

● 北, 6자회담 의장성명 보도(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의장성명을 상세하게 보도. 통신은 “회담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2단계 행동조치를 이행하는 데서 긍정적인 진전이 이룩된 데 대해 인정했다”며 “회담에서는 10.3합의에 명기된 대로 무력화(불능화)와 병행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100만t의 중유에 해당하는 경제 및 에너지 보상을 완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
- 통신은 또 “참가국들은 6자합의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 이행을 전면 거부한 일본 대신 국제 공동체가 경제보상 제공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했다”며 “회담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경제 및 에너지 협조 실무그룹회의와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보체계 실무그룹회의 그리고 다음 번 6자회담을 각기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그러나 의장성명에 든 검증관련 대목은 언급하지 않음.

● 北, 美, 핵활동 이중기준 철폐해야(12/11,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 민주조선은 9일자에서 ‘국제적 비난의 대상—미국의 부당한 핵 이중기준 정책’ 제목의 글에서 시리아의 민수용 핵개발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원 방침에 미국이 반대하는 것을 지적,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중기준’ 철폐를 촉구

● 北, 평화목적 우주개발 권리 계속 행사(12/11,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11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보도물을 통해 “우주를 인류의 생존과 발전 번영을 위한 평화적 목적

에 개발 이용하는 것은 현 시기 하나의 세계적 추세”라면서 “세계 평화애호 인민들은 미.일의 위협천만한 우주군사화 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면서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 분야에서 자기의 권리를 계속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 평양방송은 1월부터 10월까지만도 세계적으로 총 85개의 위성이 발사됐는데 그중 러시아가 35개, 인도가 12개, 중국이 10개를 쏘아올렸다면서 이들 나라의 우주개발 노력을 ‘평화적 목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선 “우주 군사화 책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비난

● 北, 핵무기 보유국 美보고서 관심 표명(1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의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int Operation Environment 2008)’의 연례보고서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한 사실을 짚막하게 보도. 통신은 이 보고서가 “아시아 대륙에 이미 5개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있다”면서 “중국, 인도, 파키스탄, 조선(북한), 러시아 등을 차례로 밝혔다”고 전언
- 통신은 “미국이 정부 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무기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설명

● 조선신보, 南 중재자 모습 사라져(12/1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0일 ‘6자 단장회담, 허물어진 북남공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을 과거 6자회담 때와 비교하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간 “중재자”의 옛 모습은 더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노선이 다국간 외교의 전략까지도 대폭 전환시킨 듯 하다”고 주장
- 조선신보는 한국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검증의정서와 경제지원간 연계를 천명한 것을 가리켜 “일본과 한패로 분류될 수 있다”고 불만을 드러냄.

● 北, 인권의 날에 北인권 제기 비난(12/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이자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판이한 인권기준이 가져온 인권 실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등

이 제기하는 ‘인권문제’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정부 전복, 압살 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

● **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해 넘길 듯**

- 북한이 당초 지난 8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제12기 대의원 선거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음.
- 북한은 2003년 8월 3일 임기 5년인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687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지난 7, 8월에 차기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아직 선거시행 공고가 없어 올해 실시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상 선거 두달 전쯤 선거를 공고

다. 경제 관련

● **에스토니아, 北에 4만2천 달러 식량지원(12/13,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연합(EU) 가맹국인 에스토니아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용으로 세계식량계획(WFP)에 현금 50만 크룬(4만2천달러)을 기부했다고 에스토니아 외무부가 발표. 에스토니아 외무부 대변인은 “내년에도 북한에서 식량 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870만명의 북한 주민이 긴급하게 식량지원을 필요로 해서 이번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

● **北, 유엔기구에 소액대출사업 재개 요청(12/12,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이 지난 19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북한의 협동농장 주민을 위한 소액대출 지원사업을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2010년 이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
- 사업평가를 위해 지난주 방북한 IFAD의 북한담당자 가네쉬 다파씨는 “12년동안 북한의 9만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미화 50달러 미만의 소액대출을 지원해왔다”며 소액대출을 받은 협동농장과 가구들은 대출금으로 돼지나 씨감자를 구입해 “예전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언급.
- 다파씨는 IFAD가 북한에서 소액대출 지원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북한 당국의 요청에 따라 내년에 대북 사업전략을 준비해 2010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

- IFAD의 대북 소액대출 지원사업은 북한의 조선중앙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면 이 은행이 자체 자금을 더해 군 단위의 지방은행을 통해 선정된 협동농장과 주민들에게 대출해 주고, 이 돈을 받은 농장과 주민들은 가축이나 영농기구를 마련해 농업생산을 향상시킨 후 잉여 가축이나 식량을 팔아 지방은행에 갚는 방식으로 운용됐었음.
- IFAD는 지난 12년간 북한의 잠업개발 사업(1996~2002), 축산복구지원 사업(1997~2003), 산간지대 식량안보 사업(2001~2008) 등을 위해 모두 6천 910만달러(약 933억원)를 10년 거치, 40년 상환에 수수료 0.75%의 조건으로 빌려줬음. IFAD는 북한에서 식량이 부족한 지역의 소득이 낮은 협동농장, 협동농장 내에서도 저소득 여성을 우선 지원하는 기준을 갖고 있으나 대출 대상자의 선정 과정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힘들다고 다파씨는 설명. 다만 IFAD 직원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식량농업기구(FAO)의 도움을 받아 감시 활동을 펴고 있다고 언급
- IFAD 외에도 호주의 마라나타 신탁회사가 2004년부터 북한 재무성과 합작으로 '조선-마라나타 은행'을 설립해 북한의 공장과 기업, 일반 주민에 자금을 대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소액대출 민간단체인 '키바(KIVA)'도 대북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북한 당국과 합작없이 민간차원의 대출 사업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북한 진출을 무기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

● 北학교, 스위스지원으로 새 건물 신축(12/11, 조선신보)

- 2008년 홍수 때 완전히 폐허로 변했던 북한 강원도 법동군내 산골학교들이 스위스-베트남소규모대상재단의 후원으로 새 교사를 완공하고 정상 수업에 들어갔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 교육분야를 후원하는 스위스의 스위스-베트남소규모대상재단은 지난 3월부터 작년 홍수에 완전히 침수된 법동군 비암중학교와 수침중학교의 새 교사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덕분에 이들 학교는 약 2천500㎡에 달하는 새 교사를 완공하고 임시건물에서 수업하던 학생들도 2학기부터 정상적인 학과생활을 시작
- 조선교육후원기금의 채량일(64) 회장은 “스위스-베트남소규모대상재단과

조선교육후원기금은 법동군에서 자체 원천을 최대한 동원해 다리도 새로 건설하고 교구비품 보장과 난방시설 설치, 야외 보조건물 건설 등으로 교육환경을 완전히 일신시켰다”고 언급

- 스위스-베트남소규모대상재단은 앞으로도 조선교육후원기금과 협력하에 (북한의) 교육부문을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황해남도 여러 학교들에 대한 후원을 진행하겠다”고 발표

● 北류경호텔에 홍콩기업도 투자(12/11, 자유아시아방송)

- 16년만에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평양의 류경호텔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북한은 1987년 프랑스 기술과 자본으로 평양 보통강구역에 105층짜리 피라미드형 류경호텔을 짓기 시작했으나 1992년 외부 골조 등 60% 공정을 보인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이집트 통신 회사인 오라스콤의 1억 달러 투자로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공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영부동산 개발회사인 ‘에마르’가 북한의 광산개발권을 대가로 이 호텔 공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홍콩의 “유명한 기업체”도 류경호텔 건축 투자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보도
- 이 방송에 따르면 홍콩의 유명 투자회사 고위 관계자는 홍콩의 유명한 기업체가 류경호텔의 재건축 투자에 뛰어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기업체의 대북 진출을 위한 교두보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최근 외벽에 유리를 붙이는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류경호텔은 2011년까지 3개층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사무실과 국제회의장 등으로 활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北 유럽재보험사에 승소, ...7백억 원 수령(12/11,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 북한이 영국 등 유럽 재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겨 3천920만 유로, 한화로 약 700억 원을 받게 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
- 신문은 이날자 경제섹션 헤드라인 기사를 통해 런던고등법원 심리에서 영국 로이드를 비롯한 재보험사들이 북한 조선국영보험공사(KNIC)에 대한

사기 및 서류 조작 주장을 철회하고 보험금 청구액의 95%인 3천920만 유로를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했다고 보도. 공산주의 국가가 외국 법정에서 열린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 북한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재보험 컨소시엄에는 영국 로이드 신디케이트에 속한 3개사를 비롯, 유럽의 3대 보험사인 독일 알리안츠, 이탈리아 제너럴리와 함께 인도 제너럴, 이집트 미스르도 포함돼 있으며, 컨소시엄의 일원인 벨기에의 항공 전문 보험사인 아비아벨은 조정을 거부
- 앞서 조선국영보험공사는 지난 2005년 7월 북한 고려항공 소속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 창고에 추락, 창고에 보관중이던 식량과 의류, 의료품 등 구호물자가 모두 불탄 뒤 고려항공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면서 재보험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 美, WFP 통한 대북 식량지원 잠정 중단(12/10, 미국의 소리방송)

- 미국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진행하던 대북 식량지원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 미국 정부는 지원 식량이 정확하게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미국측 요원을 북한에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 협의를 왔으나 이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이견이 있어 식량지원이 잠정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VOA는 전했다.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만수대창작사 통해 고려청자 재현 노력(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의 미술가들이 모인 만수대창작사에서 고려청자를 계승하는데 주력, 최근 이 창작사의 도자기창작단 인민예술가인 신현수씨는 2008중국 경덕진 국제도자기박람회에 '장생도 무늬 상감청자 꽃병'을 출품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北영화계 올해 화두는 '군인의 애국심'(12/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정권이 이른바 '선군정치'를 통치구호로 내세우고 경제건설과 체제단속을 위해 '사회주의 애국심'을 주민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영화도 군인들의 애국심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위주로 제작된 것으로 분석
- 올해 북한에서 나온 영화는 불과 4편. 그중 3편이 선군정치, 특히 군인들의 애국심에 초점을 맞췄음. 1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4.25예술영화촬영소가 영화 ‘그날의 중위’를 출시, 이 촬영소는 11월과 10월에도 ‘우리를 지켜보라’와 ‘군항의 부름소리’를 각각 출시하였음.

● **옌지-룽징싼허-北칠보산 관광 육성(12/12, 연변일보)**

- 중국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가 2009년에 옌지(延吉)-룽징(龍井)싼허(三合)-북한 칠보산 관광코스를 집중 육성. 연변일보는 12일 “연길, 룽징, 도문 등 3개 도시에서는 명년에 3갈래의 관광코스를 육성하게 된다”며 “(대상은) 3개시의 구역, 경제와 관광자원에 따라 연길시구역 및 골프장-도문 국문-룽징 비암산 력사문화유적 코스, 연길-도문-조선(북) 남양 1일 관광코스, 연길-룽징삼합-조선 칠보산 3일 관광코스 등이다”라고 보도

● **北, AI예방사업 국가차원 전개(12/11,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률이 높은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예방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1일 보도. 내각이 ‘국가비상방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가운데 보건성, 가금지도국, 상업성 등 관련기관과 각 도에서 활동하는 국가비상방역대책위원회 위원들이 매주 한차례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
- 이와 함께 야생 조류의 이동에 따른 전염을 막기 위해 강과 호수를 낀 지역들에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국경 방역초소에서는 외국산 가금식품들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러 북핵 대표, 北 중유 공급 중단 동의한 적 없어(12/13, 리아노보스티 통신)**

-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8~10일)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이 주장한 대북 중유 제공 중단 합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고 13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13일 “북한의 핵 검증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이 북한에 대한 중유 선적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우리는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에 러시아 대표단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힘.
-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6자 비핵화 합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하며 다른 당사국들도 에너지 지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보로다브킨 차관은 13일 “3차분 5만t에 대한 선적을 12월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변

● 김계관, 중유지원 중단시 핵불능화 속도 조절할 것(12/13, 연합)

-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대북 중유 지원이 중단된다면 핵 시설 불능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13일 밝힘. 김 부상은 베이징에서 열린 6자 회담에 참석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에 도착,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에 대해 “우리로서는 그것이 중단되거나 공급되거나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그것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능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언급

● 美, 북 핵합의 거부로 중유지원 중단(12/12, 연합)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핵 검증 체제가 없으면 향후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한 중유선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나머지 5개국도 대북 중유 제공 중단을 양해했다며 이같이 언급
- 매코맥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공키로 한 중유가 이미 북한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앞서 6자회담 틀 내에서 동의했던 북핵 검증절차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이번 중유 제공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

● 6자회담, 끝내 검증의정서 합의 실패(12/11, 연합뉴스)

-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을 위한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의가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 회담 소식통은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으며 중국은 의장성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
- 11일 오전 북한이 지난 9일 중국이 제시한 의정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돌파구 마련이 주목됐으나 북한의 의견이 이른바 ‘국제적 기준’에 미흡한데다 일본이 보다 ‘명확한 표현’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한 것으로 전해짐. 북한이 제시한 의견서는 ‘향후 검증의정서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기는 내용’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짐.

나. 북·미 관계

● 美국무부, 6자회담 결렬 불구 문화적 교류는 지원(12/13, 워싱턴포스트)

- 북핵검증서 마련을 위한 6자회담의 실패로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지만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공연이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북미 양측간 문화교류를 통한 긴장완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
- 신문은 지난 2월 뉴욕필하모닉의 평양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미국 방문공연을 열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뉴욕필을 이끌고 2월 평양공연을 다녀온 자린 메타 뉴욕필 사장은 북한의 음악계 주요 인사들이 미국 공연 여부를 타진해 왔다고 밝히고, 뉴욕에 소재한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현재 북한의 유엔대표부, 미 국무부, 뉴욕필 등을 상대로 내년 뉴욕의 링컨센터에서 160명의 북한 교향악단이 미국 청중 앞에서 연주회를 갖는 방안을 중재하고 있다고 보도
-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프레더릭 카리에 부회장은 지난 10월 미 국무부가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을 잠정적으로 허가했으며 공연의 성사 여부는 북미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는지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언급. 카리에 부회장은 현재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행사를 위해 75만달러의 기금 조성을 준비 중임.

● 北, 식량분배 감시에 이례적 협조(12/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에 대한 분배를 감시하는 활동에 “이례적으로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들이 밝힘. 북한에 50만t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 정부로부터 10만t의 분배를 위탁받은 이들 구호단체는 12월 8일 대북 지원식량의 분배 현황을 미 의회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민간 구호단체 관계자들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 공화 양당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보고회에서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북한이 그동안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자강도 일대에서 감시활동을 펼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 또 한국어를 구사하는 감시요원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식량 저장소는 물론 식량 분배를 기록한 문서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원된 식량이 제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에 북한 당국이 이번처럼 협조적이었던 사례가 없었다”고 평가

● 美, 현재같은 북·미 양자접촉 없을 것(12/11, 연합)

- 미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개최해 온 북·미 양자접촉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에는 북·미 양자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부 당국자는 11일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진행해 온 6자 수석대표회담이 끝난 뒤 “미국측은 워싱턴으로부터 받아온 훈령에 따라 미·북간에 여태까지와 같은 양자접촉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회담 도중에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언급

● 美, 北핵보유국 표기 해명...수정은 안해!(12/10, 합동군사령부)

-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에 포함시켜 물의를 빚었던 미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가 10일 이는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보고서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음.
- 합동군사령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는 32 페이지에 핵보유국에 대한 언급을 담고 있다. 북한에 관한 언급내용은 (핵

과 관련된) 북한의 지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 “미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해명

다. 북·중 관계

● 중국방부장, 북중 군 교류·협조 강조(12/13, 조선중앙방송)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이 12일 중국 베이징 8.1청사에서 연경철 대좌(대령)를 단장으로 한 북한군 대외사업 일꾼 대표단을 만나 양국 군대간 상호 교류와 협조 강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 이 자리에는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대사와 대사관 무관이 참석

라. 북·러 관계

● 北철도성 조사단, 러 극동지역 방문(12/10, 러시아의 소리방송)

- 북한 철도성 조사단이 9일 러시아 극동지역 방문일정에 들어갔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10일 보도. 철도성 조사단은 16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면서 화물처리센터와 극동 국립교통운수종합대학, 하바로프스크센터 등을 방문하고 하바로프스크-2역 등을 둘러볼 예정
-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과 북한 라진항을 잇는 연장 54km 철도의 현대화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양측은 지난 10월 라진-하산 철도 개건과 라진항 개선을 위한 합영회사에 1억4천만 유로의 출자를 완료했었음.

마. 북·일 관계

● 日, 6자회담서 대북 대화 시도 불발(12/12, 연합)

- 일본 정부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6자회담의 기회를 이용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으나 북한측이 외면해 불발로 끝난 것으로 알려짐. 12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6자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 간에는 회담장에서 선 채로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는 정도의 접촉도 이뤄지지 않았음.

-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한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과는 개별 협의를 가졌으나 일본만은 제외시킨 것으로 전해짐.

바. 기타 외교 관계

● 北, 최수현 레바논 대사 겸임 발령(12/9, 연합)

- 북한의 최수현 시리아 주재 대사가 12월 1일 술레이만 레바논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9일 보도함으로써 최 대사가 레바논 주재 대사를 겸임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최 대사는 지난 8월 시리아 주재 대사로 임명됨. 북한 외무성에서 국제기구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으며 외무성 국장을 거쳐 1986년부터 외무성 부상으로 활동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대표로 연설하거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기구와 협상에 주로 나섰고,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아동기금 등 유엔기구와의 창구 역할을 하기도 함.

3 대남정세

● 2009년 남북협력기금 1조5천86억 원...8.6%증가(12/14, 연합)

-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정부 출연금의 대폭 삭감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인 1조5천85억6천100만 원으로 확정, 이 액수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인 1조3천887억4천100만 원에 비해 약 8.6% 증액된 것임.
-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 출연금이 당초 책정한 6천500억 원에서 3천500억 원으로 3천억 원 깎였지만 삭감된 3천억 원은 여유자금 회수 규모를 늘리는 형식으로 충당키로 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용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중 3천억 원을 내년도로 이월해 사용할 방침임.
- 내년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쓰일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당초 정

부 안대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6천437억 원으로 책정, 다만 정부가 이전까지 쌀 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온 당국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내년부터 무상지원으로 전환기로 함에 따라 지원 품목이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통일부는 발표

- 또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북핵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경협 4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의 6천101억 원에서 약 51% 감소된 3천6억 원으로 최종 책정

● 거래말큰사전 편찬위원회 개최(12/9, 연합)

- 남북한 언어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래말큰사전' 16차 편찬회의가 12월 13~16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남측 편찬사업회가 9일 발표. 편찬사업회에 따르면 남측 편찬위원장인 권재일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24명이 평양을 방문해 북측 편찬위원회(위원장 문영호)와 올림말 재검토, 사이시웃 및 두음 법칙 적용 협의, 각 4천개씩 어휘 집필, 새 어휘 교환 등 공동작업을 진행

● 통일부, 북, 식량지원할 긴급상황 아니다(12/9, 연합)

- 북한에 곡물 83만6천t이 부족하다는 국제기구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정부는 9일 북한의 식량사정이 요청 없이도 지원을 해야 할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살아있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검토한다는 입장도 살아있다"면서 "현재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아닌 상태로, 대북식량 지원에 관한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 김 대변인은 객관적 수치로 볼때 올해가 작년보다는 풍작이었다고 전제한 뒤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결과를 현재 유관 부처와 함께 검토 중"이라며 "대북지원 문제는 북한의 식량사정이나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

첨부1: 6자회담 의장성명 전문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11일 오후 제6차 6자회담 3차 수석대표회담이 끝난 뒤 주요 토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외교부가 배포한 비공식 의장성명 번역 전문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2008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다.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 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연방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 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에 의해 합의된 세 가지 사안이 의제였다. 1. 제2단계 조치의 완전한 이행 2. 한반도 비핵화 검증 3.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지도원칙.

참가국들은 이들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며 깊이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제2단계 조치이행에서 달성한 긍정적인 진전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 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그리고 경제.에너지 지원. 참가국들은 이와 관련 모든 참가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에 관한 10.3합의에 기술된 대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검증 조건에 관한 합의를 위해 이뤄진 진전을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검증 과정에서 IAEA의 지원과 자문을 환영할 것이다.

러시아 연방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관한 지도원칙 수정안을 회람했

다. 수정안은 참가국들에 의해 논의됐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참가국들은 상기 언급된 수정안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러시아가 의장을 맡고 있는 관련 실무그룹회의를 2009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관심사안 해결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의 진지한 노력을 장려했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키고,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008-12-12

12.15-12.21

12월
3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사회 관련

2. 대외정세

- 가. 6자회담 관련
- 나. 북·미 관계
- 다. 북·중 관계
- 라. 북·일 관계
- 마. 기타 외교 관계

3. 대남정세: 남북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매체, 김정일 공개활동 연 6일째 보도(12/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도자기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 이로써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연 6일째 자강도에서 산업 시설이나 군부대 등을 현지지도나 시찰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보도
 - 통신은 16일부터 이날까지 김 위원장의 자강도 강계시 전자업무연구소 등 강계시내 시찰, 자강도 성간군 소재 2월제강종합기업소 시찰, 자강도의 '리종옥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시찰, 자강도내 제955군부대 지휘부 시찰, 자강도 노동자들과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 관람을 매일 보도
 - 김 위원장의 공장 현지지도에는 박도춘 자강도당 책임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

- **김정일, 자강도 노동자들과 공연 관람(12/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노동계급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 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날짜를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자강도의 노동계급은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치켜들고 준엄한 난국을 타개한 영웅적인 로동계급"이라며 "그날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계속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과 함께 박도춘 자강도당 책임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과 도급 기관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관람

- **김정일, 북한군 제955부대 지휘부를 시찰(12/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955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

신이 19일 보도

- 부대 시찰에서 김 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부대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위하는 데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한 전투력이 강한 부대”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으며 이 부대는 북한 언론매체 보도에 처음 등장한 부대임.
- 김 위원장은 부대 군인들과 기념촬영도 했으며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정일, 리종옥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12/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리종옥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김 위원장의 이 기계공장 시찰 보도는 16일 자강도 강계시의 전자업무연구소 등에 대한 현지지도와 17일 자강도 성간군의 2월제강종합기업소 현지지도 보도에 이은 것임.
- 김 위원장은 이 공장이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 과학화를 적극 추진해 기계 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보도. 김 위원장은 식당, 목욕탕, 도서실, 선전실 등을 돌아보고 공장 기술자, “노력 혁신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도 했으며, 박도춘 자강도 당 책임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주규창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수행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정일, 자강도 강계시 시찰(12/1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강계시를 방문, 새로 세운 전자업무연구소와 자강도 도서관, 고려약공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16일 보도. 북한 방송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자강도 전자업무연구소를 방문, 프로그램 개발 자료전시장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설비상태와 연구상황을 파악한 후 도내 여러 경제부문의 정보화 실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자체적으로 건설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방송은 보도
- 이번 강계시 시찰에는 박도춘 노동당 자강도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주규창 노동당 제1부부장, 북한군 대장들인 현철해, 리명수가 동행

● 김정일 국방위원장 감사 전달(12/1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강계철도분국 노동자 정명희씨 등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5일 보도. 정씨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뛰어들어가 위험을 무릅쓰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초상화를 구해냈다고 방송은 소개

나. 정치 관련

● 南, 대화타령 말고 10·4선언 입장 밝혀야(12/20, 통일신보; 우리민족끼리; 12/19, 조평통 대변인 담화)

- 통일신보는 20일 “남조선의 보수 집권세력이 대화에 대한 생각을 털끝 만큼이라도 하고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대결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 없이 떠드는 대화 타령은 한갓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보도
- 신문은 “집권 초기부터 6·15와 10·4선언을 부정한” 이명박 정부가 “지금 이 순간까지 대결정책에서 변한 것이란 단 하나도 없다”며 그러면서도 남북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반통일적인 범죄행위를 대화의 간판 밑에 합리화 하자는 것이고, 뒤에서 벌이는 대결소동도 모자라 동족과 마주 앉아서도 대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그러한 대화는 하나마나한 대화이고 안하는 것보다 못한 대화”라고 역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1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 당국이 “대화를 운운하기 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

● 南보수, '테러지원국 재지정' 주장 “고약해”(12/20, 통일신보; 우리민족끼리)

- 통일신보는 20일 남한의 보수세력들이 “반북대결”과 “대북압살”을 위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 통일신보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10.3합의에 있는 정치보상의 무 이행에 따른 것”이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볼 때 너무도 응당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이 동족을 원수 보듯

하며 테러지원국으로 몰아대지 못해 안달하는 것은 고약한 심보”, “망발”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 한미동맹 우선론 비난(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남조선 당국의 한미관계 우선론을 단죄함'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논평원 글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우선론'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분열과 대결을 추구하는 범죄적인 반통일 대결론"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도 노동신문은 한미관계 우선론에 바탕을 둔 "정치모략 각본"이라고 비난

● **민주조선, 신발투척 봉변 부시 조롱(12/1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응당한 봉변' 제하의 글에서 부시 대통령이 누리 알말리키 이라크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 때 당한 봉변을 상세히 소개하고 "강권과 전횡으로 일관된 '반테러전'을 강행해온 미국 집권자가 받은 봉변은 너무나도 응당한 것"이라고 주장

● **김정일 '9.5담화' 연구토론회 개최(12/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월5일자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가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한이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로 규정한 이 담화는 8월 중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온 이후인 정권 수립 60주년(9.9)을 맞아 김 위원장이 노동신문 및 민주조선에 보낸 것으로 노동당 창당 기념일인 지난 10월 10일에 북한 언론에 공개
- 토론회에는 최태복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진 교육상 등이 참석

● **김정일 테러임무 南포섭 北주민 체포(12/18, 보위부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는 18일 북한의 한 주민이 남한 정보기관 요원으로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정을 파악하고 해치라는 임무를 받

고 활동하던 것을 적발해 체포했다고 주장

- 보위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얼마전 괴뢰 정보기관으로부터 우리 수뇌부의 안전을 해치려는 테러임무를 받고 책동하던 리모라는 자가 적발 체포됐다”며 “밝혀진 데 의하면 놈(리모)은 올해 초 범질서를 어기고 국경을 넘어갔다가 우리나라의 국경 부근에 잠입해 불순분자들을 규합하고 있던 남조선 정보기관의 황모라는 자에게 흡수됐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보위부는 남한 정보기관은 “놈에게 일정한 훈련을 준 후 다시 우리 지역에 잠입시키면서 우리 수뇌부의 현지시찰 노정, 시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나중에는 수뇌부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한 음성 및 음향수감 추적장치와 극독약까지 들여 보냈다”고 주장
- 보위부는 또 “최근에만도 괴뢰 정탐모략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핵관련 정보를 내탐하려고 주요 군수공업지대의 흙과 물, 나무잎, 먼지 등 환경시료를 채집할 임무를 받고 책동하던 첩자들이 일망타진”됐고 “부화타락한 재중 동포여성을 첩자로 흡수하여 여행기회에 당, 국가, 군사 기밀자료들을 수집하며 주요부문의 우리 일군(간부)들을 유인도주시키려던 음모가 저지 파탄됐다”고 주장
- 보위부는 이밖에도 “종교의 탈을 쓰고 불순적대 분자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려던 비밀 지하교회 결성 음모가 적발 분쇄되었으며 전과자와 타락분자들을 유인 납치하거나 회유 도주시켜 우리 공화국의 잘 날조된 인권유린 자료를 생산해내는 공장을 꾸리려던 모략시도들이 감행되는 족족 저지 파탄되었다”고 주장

● 노동신문, 배신하지 말라(12/15,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15일 ‘동지애의 기치 높이 역세계 전진하자’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동지애’와 단결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배신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다. 경제 관련

● 北, 중국 내 대남 경제협창구 세대교체(12/21, 연합뉴스)

- 남북한 경제협력의 '우회로' 역할을 하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베이징 사무소 및 단둥(丹東) 대표부의 지도부가 최근 비리 의혹을 받고 물러난 뒤 젊은 실무 세대로 교체됐다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가 21일 소개
- 김 대표는 "북한은 비리 의혹이 많았던 민경련 대표들의 소환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단둥의 허광식 대표와 베이징의 허수림 소장을 물러나게 하고 젊은 경제 일꾼(간부)들을 새 대표들로 임명했다"며 "단둥은 전 셋별총회사 과장 출신인 리용남이, 베이징은 전 삼천리총회사 참사 출신인 유경종이 새 대표가 됨으로써 50대에서 40대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고 주장
- 그는 또 "북한은 금년 6월 평양에 대남 신규사업을 전담하는 '민경련총회사'를 설립, 민경련의 단둥 대표부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만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

● 北, 전국 농업과학기술 전시회 개최(12/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8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전국 농업과학기술 성과 전시 및 발표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
- 농업부문 과학연구, 교육, 생산지도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알곡작물 육종, 과학농사도입, 알곡작물재배와 농기계, 토양 및 농업화학분과 그리고 과수, 남새와 축산, 잠업분과 등으로 나뉘어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농업부문에서 이룩한 130여 건의 과학기술성과 자료들이 발표됐으며 129종, 260여 점의 새 품종 알곡작물, 식물성 농약, 농기계 등이 출품됐다"고 방송은 보도

● 평양 상점들에 휴대폰 가입 광고물 설치(12/21, 연합뉴스)

- 새해를 앞두고 방문한 북한 평양 시내 곳곳의 상점 유리 창문에는 휴대전화 가입을 홍보하는 '3세대 이동통신'이라는 글귀와 휴대전화 사진이 담긴 포스터가 붙어있었음. 12월 15일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북한에서 개통한 휴대전화 서비스인 '고려링크'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홍보물

들이 설치되어 있음.

● 北방송, 올해 철강재 생산 29% 증가(12/21, 조선중앙방송)

- 북한의 2008년도 철광석 생산이 전년도 대비 73% 증가했고, 철강재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 늘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 방송은 금속공업성 국장의 말을 인용, 철광석 생산이 이같이 증가한 이유로 무산광산연합기업소가 설비가동률을 최대한 높였으며 은률과 재령광산은 유망한 채굴장을 마련, 생산실적을 부단히 높인 결과라고 설명
- 또 철강재 생산에 있어서는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초고전력전기로’ 건설과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대형산소분리기 설치공사 완공, 보산제철소와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에서 새로운 “주체철 생산방법”을 도입한 결과 “성(省) 적으로 놓고 볼 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공업 총생산액과 주요 지표별 인민경제계획을 129% 이상 넘쳐 수행하였다”고 방송은 소개

● 北, 내년 외국인에 관광지 확대 개방(11/1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미국과 중국 등의 외국인에 개방하는 관광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중국 내 북한관광 전문 여행사를 인용해 보도
- 중국에서 북한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고려여행사는 북한 당국이 내년 새로 개방하는 여행지는 함경북도의 칠보산과 주변지역, 청진의 해변과 황해남도 해주시, 그동안 통제했던 평양 내 일부지역이라고 밝힘. 고려여행사는 올해 중국인과 미국인을 포함해 약 1천 명의 해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다면서 북한이 관광지역을 확대개방함으로써 2009년에도 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오는 2012년까지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던 아리랑 공연도 이전과 같이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열릴 것이라고 중국과 미국내 여행사 관계자들이 전망했다고 방송은 보도

● FAO, 北 내년 180만t 식량 외부 도입 필요(11/19, 자유아시아방송)

- FAO는 이달 발간한 전 세계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2009 곡물회계연도에 내부 식량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외부에서 180만 톤가량의 식량을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 FAO는 북한의 식량수요와 식량 생산량을 각각 512만9천t과 334만3천t으로 추정, 180만t을 외부에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사회의 무상지원 예상치 45만t과 북한이 돈을 주고 수입할 식량 예상치 50만t을 감안하면 83만6천t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추산

※ 북한은 2008 곡물회계연도에는 62만1천700t의 식량을 외부에서 지원 받았고 77만t을 돈을 주고 수입

● 올해 경제성과 선전(12/19,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정권수립 60주년(9.9)이었던 북한의 올해 경제는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많은 창조물”을 건설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자랑찬 성과”를 이룩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9일 주장
- 전력부문의 성과로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해 첫 시찰 대상이었던 황해북도 예성강청년1호발전소의 준공을 비롯해 원산청년발전소 1단계 공사 완공, 평안남도 녕원군의 녕원발전소 1호 발전설비 조립과 중소형 발전소들인 황해북도 연산군민발전소, 평안남도 성천발전소, 자강도 고보청년발전소 준공 등을 꼽음.
- 평양방송도 이날 “올해에만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다”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초고전력 전기로’ 도입과 함께 부전강발전소의 대형 발전기 축 보수기술 도입, 황해남도 송배전부에서 변전소 주변 압기 능력을 1.5배 향상시킬 수 있는 새 기술 창안,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기술자들의 석탄생산을 위한 새 채탄방법과 천공 발파방법 도입 등을 열거

● 北·체코, 투자 보호협정 의정서 조인(12/18,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체코가 17일 평양에서 양측 사이의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수정 및 보완과 관련한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 그러나 통신은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조인식에서는 북측의 구본태 무역성 부상과 체코측의 마르틴 톰 초 북한 주

재 대사가 각각 의정서에 서명

※ 북한과 체코는 앞서 16일에는 2008~2011년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 **북한 찾는 핀란드 관광객 증가(12/16, 헬싱키 사노맛 인터넷판)**

- 요즘 핀란드에는 호기심 반, 모험심 반으로 북한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핀란드 대표 일간지 헬싱키 사노맛 인터넷판이 16일 보도
- 유럽에서 가장 큰 북한 전문 여행사의 하나로 꼽히는 핀란드 올림피아 여행사 사장인 마티 팔레르마씨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 관광객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북한 사람들도 핀란드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를 이렇게 많이 방문하는지 궁금해할 정도”라고 밝힘.

● **이동통신 개통 축하연 개최(1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정부에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를 축하하는 연회를 15일 인민 문화궁전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이날 연회에는 오라스콤 텔레콤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과 북한주재 이집트 대사, 로두철 내각 부총리, 류영섭 체신상, 박명철 조선체신회사 사장 등이 참석, 오라스콤 텔레콤 대표단은 이날 방북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비행장에서 박명철 조선체신회사 사장과 북한 주재 이집트 대사가 대표단을 전송

● **北약학연구소, 잇단 신약 개발(12/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의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 파낙사디올 주사약을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 통신은 “생산된 주사약은 강한 면역부활제로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전이를 막는다”며 “백혈구 감소를 막고 사람들의 면역기능을 높여줄 뿐 아니라 노화방지, 식물신경실조증, 동맥경화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소개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올해 체육인들 훌륭한 성과(12/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체육선수들이 올해 여러 국내외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신기록

을 세우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주장. 통신에 따르면 올해 성적이 좋은 분야는 여자축구로,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열린 17세 이하 여자청소년월드컵에서 미국을 꺾고 초대 챔피언이 됐으며, 지난 6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에서도 2001년과 2003년에 이어 다시 우승,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박현숙, 홍은정 선수가 여자역기 63kg급과 여자체조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

- 또 제5차 세계여자권투선수권, 제11차 아시아마라톤 선수권대회, 제1차 국제권투연맹위원장집, 제8차 청소년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제4차 아시아태권도 선수권을 비롯한 국제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냈다고 통신은 소개

● 北 교육후원기금 후원 올해 최다(12/20,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은 올해 국내외로부터 가장 많은 후원금과 물자를 제공받았으며, 앞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조선신보가 20일 보도. 이 기금은 북한이 교육기관 후원을 위해 2005년 1월 26일 설립한 민간단체임.
- 조선신보는 올해가 기금에 대한 "물자와 자금의 기증이 가장 많았던 해"라며 기금이 캐나다.조선인기독교경제인협회, 스위스·베트남소규모대상재단, 호주 마라나타신용그룹, 프랑스의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한 가톨릭위원회(CCFD), 북한 주재 독일 대사관, 중국선양박원상무유한공사 등 많은 단체, 인사들과 협조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전언
- 량학순(53) 초대 기금회장은 "수많은 국내 기관, 단체가 자금과 물자를 희사했고, 해외동포들과 30여 개 나라의 단체와 인사들이 후원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힘. 기금은 현재 후원금으로 교사(校舍)와 기숙사의 건설 및 개선 보수,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교육설비 제공 등 60여 개 대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 기금은 또 2기 사업방향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조건과 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 특히 새로운 사업계획으로 평양 영어·컴퓨터 교원재교육강습소 건설, 농업대학·전문학교의 실험실습 조건 개선, 소·중학교와 교원대학, 사범대학의 외국어교육 조건 개선 등을 발표
- 한편 기금은 최근 평양에서 17개 기관,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총회를 열어 채량일 씨를 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사 4명도 새로

뽑았다고 조선신보는 보도. 채 신임회장은 30여년 간 내각 교육성에 근무하면서 국장, 해외대표부 참사직 등을 역임

● 北, 11월에 5천만 그루 식수(12/19, 조선신보)

- 북한에서 11월 한달간 가을철 국토관리사업을 벌여 5천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고 도로 건설과 관리, 강.하천의 정비가 이뤄졌다고 조선신보가 19일 보도. 함경남도는 수십여 정보(1정보는 3천평)의 소나무숲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잣나무숲으로 개조하고 수십t의 나무 종자를 채취했으며, 황해북도는 지력이 낮은 양묘장 토지를 지력이 높은 토지로 바꾸고 수십t의 나무 종자를 채취했다고 신문은 보도

● 北, 올해 태권도 최우수 선수·감독 선정(12/19,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는 올해 태권도 최우수 선수로 남자 박영범(23, 황해북도 태권도선수단), 리철옥(23,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박철(18, 평안남도 태권도선수단), 리향미(18, 황해북도 태권도선수단)를 선정했다고 조선신보가 19일 보도. 이 위원회는 또 최우수 감독으로 한충일(33,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김영순(38, 평양시 태권도선수단), 정휘성(31,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 리춘희(34,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를 선정
- 북한의 태권도 선수들은 올해 제4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4월, 카자흐스탄)와 제8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9월, 우즈베키스탄)에 출전해 각각 국가별 종합 1위를 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

● 北음악계, 올해 흐름은 기존가요 재창작(12/18, 조선중앙방송)

- 올해 북한의 음악계에서는 기존의 유명한 가요들을 독창과 합창곡 그리고 기악과 성악을 결합한 다양한 형식으로 재창작한 것이 특징이라고 조선중앙방송이 18일 보도
- 방송은 “올해는 음악예술에서 큰 전진을 가져온 특기할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정권수립 60주년(9.9)을 계기로 몇 달동안에만도 ‘충성의 노래’를 비롯하여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되리라’, ‘전사의 염원’, ‘천리마 선구자의 노래’와 같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가요들이 새로운 명작으로 재형상되었다”고 주장

- 11월 초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앙 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 때 이를 관람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예술인들이 최근 시기 새롭게 창작한 ‘눈이 내린다’, ‘번영하라 조국이어’, 여성 3중창 ‘강선의 노을’은 주체음악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선군시대의 특출한 기념비적 대결작”이라고 평했으며, 지난 7월 말에는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에 대한 ‘문예사상연구모임’이 평양에서 열리기도 했음.
- 방송은 또 가요 재창작과 함께 보천보전자악단, 조선인민군협주단을 비롯한 여러 예술단체에서 “당과 수령을 칭송하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투쟁으로 당원과 근로자들을 고무 추동하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음악작품”을 대거 창작했다고 보도

● 北, 고구려 유적 잇따라 발굴(12/15,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과 김일성종합대학 발굴팀이 잇달아 고구려 유적지 발굴에 성공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조선신보는 15일 “(북한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황해남도 신원군 장수산 일대 아양리와 월당리 지구에서 고구려 남평양 유적에 대한 조사발굴을 진행하던 과정에 고구려 토성 2개를 발굴하고 새로운 도로시설을 찾아냈다”고 보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라이스, 北 아무도 신뢰 안해(12/20, 미국의소리방송)

-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9일 미국 민간정책 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의정서를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그는 북핵 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미국의 중유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
- 그는 “북한으로부터 핵 관련 문서와 표본을 넘겨받은 후 솔직히 북한이 벌이고 있을 수 있는 행동들 중 일부에 대해 더욱 의구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고 VOA는 보도

- 그는 미국이 핵 검증의정서 합의 실패를 이유로 대북 중유 지원을 중단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수는 없다”면서 “불능화와 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북한은 원하는 중유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

● 호주-뉴질랜드, 대북 중유 대납 보류(12/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 핵검증의정서 합의 실패를 이유로 북한에 대한 중유지원을 중단할 뜻을 밝힌 이후 일본 대신 중유 지원국으로 거론됐던 호주와 뉴질랜드도 잠정 보류 입장을 나타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 익명의 호주 외무부 관계자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호주 정부가 6자회담의 성공적 합의를 위해 일본 대신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 일본, 한국과 논의해왔지만 6자회담이 결렬된 현 시점에서 지원 결정을 보류하게 됐다고 밝힘. 이 관계자는 6자회담이 다시 열릴 때까지는 호주 정부가 북한에 중유를 지원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시사
- 호주와 함께 중유 지원국으로 거론됐던 뉴질랜드의 데이브 코트니 외무부 대변인도 대북 중유 제공 문제를 놓고 그동안 6자회담 당사국들과 논의해 왔지만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난 15일 RFA에 밝힘.

● 北, 현 시점에서 검증의정서 채택 원치 않아(12/17, 연합뉴스)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6일 “북한은 미국과 합의했던 검증의정서와 관련한 합의사항을 ‘현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화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밝힘. 힐 차관보는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오찬모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베이징에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난 6자회담에 대해 언급
- 힐 차관보는 “북한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미국의 차기정권과 협상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비핵화 3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불능화와 중유공급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그것은 북한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6자회담 결렬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중유지원 문제와 관련, “80만t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에 약속을 거의 다 지켰고, 나머지 20만t도 6자회담에서 포괄적 합의에 이르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이 문제는 검증의정서 문제만 해결되면 해소될 사안”이라고 언급
- 힐 차관보는 검증의정서에서 다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서에 신고한 30kg의 플루토늄의 양이 정확한 것인지를 검증해야 하며, 우라늄 농축시설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 中, 대북 중유지원 계속 의사 표명(12/16, 연합뉴스)

- 중국은 최근 북핵 6자회담에서 검증의정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6일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은 핵 불능화의 대가”라고 밝혀 중유지원을 계속할 뜻을 내비침.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아 앞으로 대북 중유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이는 북한 외에 나머지 5개국과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힌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10.3 합의의 문구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
- 류 대변인은 “여러분은 이번 수석대표회담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면서 “성명에는 참가국들이 이번 회담에서 10.3 합의에 기술된 대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 분명하게 제시돼 있다”고 언급
- 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문제에 언급, “6자는 모두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검증하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다”면서 “의장국인 중국은 참가국들과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국 간의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

● 對北 중유지원 중단 러시아와도 합의(12/15, 미국무부 부대변인)

-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이 핵검증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유지원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 대북 중유지원 중단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러시아의 합의설 부인을 둘러싼 논란을 일축

- 로버트 우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중유지원)에 대해 다른 4개국 대표들과 논의했으며 검증의정서 합의가 없으면 미래의 에너지 선적을 진행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그 조건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
- 그는 “러시아도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북한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유지원 중단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증의정서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연료 선적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이해가 있었다고 전언
- 우즈 부대변인은 또 “북한이 나머지 참가국이 모두 동의한 핵검증의정서에 동의하지 않아 6자회담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난국이 타개되기 전까지는 선적 문제에서 앞으로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핵검증의정서 합의와 중유지원을 연계해 추진할 것이며 이것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나. 북·미 관계

● 美, 올해 대북 의료지원 400만 달러(12/20,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이 올해 북한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작년의 40배인 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 국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20일 보도
-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RFA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의료지원을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한 금액은 단 1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00만 달러를 미국 내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했다”고 밝힘. 이 관리는 의료지원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에는 단지 홍수 피해에 대한 의약품 지원에 그쳤지만 올해는 북한 병원의 시설을 교체하거나 기술지원 그리고 북한 의료진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 北·美, 평양서 한국어 감시요원 입북 논의 중(12/19, 자유아시아방송)

- 커트 통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등 미국 정부 대표단이 평양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의 분배와 감시 문제를 놓고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자유

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 방송은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 대표단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세계식량계획(WFP) 요원에 대한 북한의 입국 사증 발급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북한측이 비자를 내주지 않을 경우 대북지원 식량의 선적을 중단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전언

- 북한측은 지난 5월 미국과 맺은 의정서에 포함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요원의 배치’는 자신들이 WFP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 모두 14만3천330t의 밀과 옥수수를 북한에 전달했으나 북한은 예정보다 식량 전달이 늦어지고있는 데 불만을 나타냈다고 알려짐.

● 北평양예술단, 2009년 3월 美 방문 가능성(11/17, 연합)

- 북한이 지난 2월 뉴욕필하모닉의 평양 연주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내년 평양예술단을 미국에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외교관이 17일 밝힘.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이날 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북한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한 뒤 “아마도 그들(평양예술단)이 (내년) 3월 미국에 갈 것”이라고 언급, 그러나 이 외교관은 세부 방문 계획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

● 美 대북 지원 6번째 선적분, 12월중 도착(12/17,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가운데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이 12월 중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 이번 지원분은 세계식량계획(WFP)이 배분을 맡음.
-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국 정부가 식량배분 감시문제에 관한 북한측과의 이견으로 WFP를 통한 식량지원을 잠정 중단했다고 최근 보도했으나 미 정부는 이를 부인
- WFP 아시아사무소의 폴 리즐리 대변인은 “북한 정부의 이례적인 협조로 지난 두 달간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식량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며 “가장 외진 지역에도 식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세세하고 신중한 계획을 세웠으며 활동 장비도 다 구비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고 VOA는 전언

● 북미관계, 美 태도에 달려(12/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무엇을 노린 보고서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하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 "미 호전세력들이 떠드는 우리나라의 '군사적 위협'은 완전히 허구이고 저들의 대조선 침략정책과 '반테러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궤변"이라며 미국 하원의 한 위원회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에 대해 북핵 프로그램의 저지를 위해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것을 "조(북)미 적대관계를 극단적인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해 발광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향후 북미 관계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후진타오, 北 김정일에 신년 연하장(12/17, 조선중앙방송)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보도. 방송은 2009년 새해에 즈음해 후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이 16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통해 북한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에게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 최태복, 中공산당 대표단 면담(12.15, 조선중앙통신)

-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15일 중국 윈난(雲南)성위원회 리기항 부서를 단장으로 한 중국공산당 친선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리 단장은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베이징올림픽을 비롯해 중국에서 열린 행사들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

라. 북·일 관계

● 日, 에너지지원 제3국 전가는 무책임(12/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제 처지도 모르는 자들의 횡방질'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북핵 10.3합의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에너지 지원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제3국에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 신문은 “10.3합의서에는 일본도 포함한 5자가 에너지 제공 등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돼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 문서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 합의서에 배치되게 자기의 의무 이행을 지독하게 거부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

마. 북·러 관계

-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변강 러-조친선협회 대표단 방북(12/20, 조선중앙통신)
 - 방북 중인 알렉산드르 페도소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변강 러-조친선협회 대표단이 북측 관계자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

3 대남정세

- 北, 남북관계 중대기로…근본문제부터 풀어야(12/18, 연합뉴스)
 - 김영철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 국장은 18일 이틀간의 개성공단 실태조사를 마치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려야 한다”고 밝힘. 김 국장은 17일에 이어 18일 오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둘러본 뒤 문무홍 공단 관리위원장과 입주업체 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전언
 - 김 국장이 언급한 ‘근본적인 문제’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존중 및 이행에 바탕한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식통들은 보고 있음.
 - 김 국장은 또 “기업 법인장들이 자기 할 바를 잘 해야겠다”며 “현재 공단의 어려운 상황을 잘 개척해 나갈 힘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등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상황 타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길 바라는 듯한 언급도 했던 것으로 전해짐.
 - 군부 일행은 이와 함께 문 위원장 등 개성공단 관리위 측과 만난 자리에서

는 북측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고 김 대변인은 소개. 김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지난 11월 6일 북한 군부가 1차로 실태조사를 했던 때에 비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기업인들의 반응”이라면서 “다만 공단 관리위 측에는 좀 더 원칙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했다”고 전언

● **월드비전, 평양서 남북농업협력 토론회 개최(12/17, 연합)**

- 북한에서 씨감자 생산, 국수공장 건립, 채소온실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해 온 월드비전이 18, 19일 이틀간 평양에서 남북 농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농업과학심포지엄을 열어 남북 간 농업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심포지엄엔 남측에서 박효근 월드비전 농업연구소장, 박권우 고려대 교수, 윤태명 경북대학교 교수,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북측에서 농업성과 농업과학원 연구원들이 각각 참석, 박종삼 회장을 포함해 41명으로 이뤄진 월드비전 대표단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북

● **남북협력기금 18년간 총 8조2천억 원 집행(12/15, 통일부)**

- 통일부가 15일 펴낸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에 따르면 199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정부는 총 9조3천225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 이 중 8조2천267억 원을 집행,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종자돈인 남북협력기금이 1991년 설치 후 18년간 약 8조2천억 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됨.
- 이 가운데 다자간 북핵 협상 틀에서 합의된 대북 경수로 제공에 투입된 4조3천405억 원과 기금관리비, 대출금 회수분 등을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로 쓰인 액수는 3조8천483억 원에 달함.

12.22-12.28

12월
4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헌법절’ 맞아 군부대 시찰(12/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헌법절’(12.27)에 즈음해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 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고,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그러나 통신은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 이 부대가 “전투정치훈련에서 전군의 모범이 되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영도를 언제나 앞장에서 받아들여온 전통있는 부대”라고 강조하고 군인들의 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보도
 - 이날 제323군부대 지휘부 방문에는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군 대장들인 현철해, 김명국을 비롯한 군대 지휘간부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
 - 김 위원장은 또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 부대의 경계근무 수행상황을 살펴본 후 비행사들의 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보도
 - 공군부대 시찰에는 김정각 제1부국장, 군 대장들인 현철해, 김명국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리병철 공군사령관과 군부대 지휘관들이 그를 맞이했음.
- 김정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시찰(12/2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방송은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그는 시찰에서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것은 당과 인민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면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치켜올릴 것”을 주문했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김위원장이 이 기업소가 “초고력전기로를 자력으로 훌륭히 건설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

- 이번 현지도에는 박남기 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태남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주규창 리재일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행

● **김정일, 전용열차로 움직이는 듯(12/22,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실제로 현지 시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고위 정보소식통은 21일 “그동안 신의주 등을 김 위원장이 방문한 것으로 보도된 시점을 전후해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현지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며 “이런 점을 토대로 각종 정보를 종합한 결과 김 위원장이 실제로 이들 지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힘. 한·미 정보 당국은 미 KH-12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한국군 금강 정찰기 등을 통해 김정일 전용열차 등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 전용열차가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짐.
-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지난 8월 중순 쓰러져 북한 특권층 병원인 봉화진료소에 입원했던 김 위원장이 10월 초와 중순 사이에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언

나. 정치 관련

● **北, 대결정책 계속시 내년 남북관계 더 악화(12/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북남 대결을 계속 추구하려는 망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년에도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
- 이 매체는 최근 통일부 차관이 각종 행사에서 “지금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북한에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 등을 거론, 이는 “내년에도 반통일적 정책들을 계속 추구”하려는 “뚜렷한 증거”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

● **노동신문, 부시 “무가베 퇴진” 요구 비난(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본전도 못 찾을 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의 축출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은 무가베가 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엄중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 신문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무가베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백인 소유의 토지들을 흑인들에게 분배하였다”며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미국 집권자가 마치도 ‘국제 재판관’이나 되는 듯이 짐바브웨에 대고 샷대질을 하면서 내정간섭 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거듭 비난

● 선군정치 고수 연일 강조(12/22: 12/24,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12.24)을 맞아 ‘선군정치’ 고수와 국방력 최우선 강화를 연일 강조
- 노동신문은 24일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선군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기념사설에서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라며 “누구나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옹호관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선군혁명 노선의 요구대로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쏟으며 인민군 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적극 원호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 위원장이 “올해에도 정초부터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오늘까지 끊임없는 현지도의 길을 걷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
- 앞서 22일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군대가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세계정치라는 마차가 어떤 바람을 타고 어떤 길로 질주하건 우리는 선군혁명의 궤도에서 한 발자욱도 탈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北, 반통일적 반동세력 잣더미 만들것(12/23, 노동신문)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23일 남한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사소한 선제 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보다 신속하고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앞선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남조선

의 호전광들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타격수단에 의거한 우리 식의 선제타격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위에 통일조국을 세우는 가장 단호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

- 김일철 부장은 고 김일성 주석 출생 100회째인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을 데 대한 당의 웅대한 목표를 빛나게 실현해야 한다”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지켜 세우며 농업혁명,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려 식량문제, 인민소비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北,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 행사 개최 중(12/24,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과 그의 생모인 김정숙의 91회 생일이 겹친 24일을 앞두고 각종 기념 행사를 개최. 기념행사는 중앙보고대회를 비롯해 각계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경축 모임과 예술공연이 주류를 이룸.
- 북한에서도 성탄절을 맞아 평양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에서 성탄기념 예배나 미사를 보고는 있지만, 일반 주민은 크리스마스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이들 행사를 치르느라 분주함.

● 北, 연일 남북관계 악화 ‘南책임론’(12/22, 노동신문; 12/20, 통일신보)

- 북한이 연일 각종 보도매체를 동원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에 돌리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 노동신문은 22일 ‘속에 앙심을 품은 자들의 대화 타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모든 문제를 상생, 공영의 바탕 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거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껏 감행해 온 반공화국(반북) 대결 소동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대화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과 그 이행 의지부터 명백히 밝히는 것이 순차”라고 강조
- 통일신보는 20일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대화에 대한 생각을 털끝 만큼이라도 하고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대결

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 없이 떠드는 대화 타령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난

● 北, 美 핵무기 현대화…北경제심 불리(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도 저들은 핵무기를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인민의 경제심을 불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 금융위기 교훈은 ‘외자 위험성’ 입증(12/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자 ‘세계 금융위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시 미 행정부가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강행하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이것을 주는 교훈은 “서방 열강이 다른 나라, 민족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

- 이어 신문은 “올바른 경제이론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경제발전을 추동하지 않고 생존경쟁에 의거한 무질서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 언제 또 경제위기를 겪을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외자를 마구 받아들이다가는 민족경제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다. 경제 관련

● 北, 내각 금속공업상에 김태봉 기용(12/2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내각의 금속공업상(相, 장관)이 김승현에서 김태봉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됨. 이 같은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시찰한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종업원들이 28일 현지에서 쫄기모임을 개최한 소식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전하면서 이날 모임에 김영일 내각총리와 함께 “김태봉 금속공업상”이 참가했다고 보도함으로써 확인됨.

- 전임 김승현 금속공업상은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 때 금속기계공업상에 올랐다가 2005년 5월 금속기계공업성이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되면서 금속공업상을 맡아왔음. 신임 김태봉 금속공업상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음.

- **美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내년 1월 3일 도착(12/28,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 중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이 다음달 3일께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
 - VOA는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옥수수 2만1천t이 미 국적 선 ‘이스턴 스타’호에 실려 1월3일께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내 25개 군에서 분배할 계획이라고 전언

- **北 ‘복권형 채권’ 추첨(12/26, 조선중앙TV)**
 - 북한이 2003년 발행해 주민들에게 판매했던 ‘인민생활공채’의 7차 추첨행사가 22일 평양시 중구지점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
 - 이번 추첨에서는 액면가 500원 및 1천원권, 5천원권 순서로 각각 1~7등까지 당첨번호를 뽑았음. 당첨금은 등수에 따라 1등은 액면가의 50배를 지급받게 되며 2등 25배, 3등 10배, 4등 5배, 5등 4배, 6등 3배, 7등 2배를 받음.
 - 북한은 2003년 5~11월 500원, 1천원, 5천원권 등 모두 3종의 10년만기 인민생활공채를 판매했으며 1년 1~2차례 추첨을 실시해 당첨금과 함께 원금을 중도에 상환해주고 있음.

- **美 대북 지원식량 7차분, 내년 1월 중순 도착(12/26,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0만t중 7번째 선적분인 4천940t이 내년 1월 중순께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
 - VOA는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 1월 19일까지 남포항에 ‘옥수수와 콩 혼합물’과 식용유가 도착할 예정이라며 11월 중순 지원된 5차분 2만5천60t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적분도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내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이라고 보도
 - 미국 정부는 대북식량 지원이 시작된 6월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14만3천330t의 식량을 전달했으며 이 중 4만5천260t은 NGO들을 통해 분배됐고 나머지 9만8천70t은 세계식량계획(WFP)이 함경남북도, 량강도, 강원

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평양 등 8개 지역에 분배했음. 12월 말께 북한에 도착하는 6차분 2만1천t은 WFP에 의해 분배될 예정

● 北, UNDP 사업자금 전용방지책에 동의(12/2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은 내년 상반기 대북 사업을 재개기로 하면서 북한 당국, 북한인 직원과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는 달러, 유로화 등으로 교환이 가능한 일종의 외화태환권인 '외화와 바꾼 돈표'로 지불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외화와 바꾼 돈표'는 일반 화폐와 달리 북한 내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도록 조선대외무역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태환권이며, 8종(1, 5, 10, 50 전과 1, 5, 10, 50원권)이 유통되고 있음. 미국이 UNDP의 대북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 때 가장 문제삼았던 것이 지불수단으로 달러, 유로화 등을 사용한 점이었음.
- UNDP의 대북 사업재개 조건으로 또 UNDP가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종래와 달리 최소한 3명의 후보자 명단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면담과 서류시험을 통해 1명을 최종 선발하는 경쟁채용 방식을 택하고, 이들 직원의 임금은 북한 당국을 통하지 않고 각 직원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직원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직접지급 방식을 취하기로 북한 당국과 UNDP는 합의
- 북한 당국은 이와 함께 재무와 금융 분야에서 UNDP의 명백한 서면허가 없이는 UNDP의 이름이나 상징(emblem)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이는 북한이 지난 2002년 UNDP 전용계좌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작 UNDP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RFA는 보도

● 北, 비료생산에 석탄가스 이용 시설 공사 중(12/23,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인 화학산업 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 대신 석탄을 태워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 비료를 비롯해 탄산소다, 폴리에틸렌 수지 등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신문과 TV방송 등은 이 공사 진척 상황을 자주 소개해 북한 당국이

이 석탄가스화 공정에 쏟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나프타 대신 석탄 연소 때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 화학제품을 만드는 이 공정은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각종 화학제품의 증산, 원료비 절감, 석유 의존도 완화 등 여러가지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이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석탄가스화 공정을 설치기로 한 것은 이 기업소가 있는 안주시는 물론 주변의 개천, 덕천, 순천 등이 모두 북한 굴지의 탄광들인 점을 감안한 것임. 이 기업소에 석탄가스화 공정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2006년 결정됐으나 실제 공사는 지난 5월 시작돼 11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언

라. 사회·문화 관련

● 농업과학원 창립 60주년 보고회(1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농업과학원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가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 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김영일 총리,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로두철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노동당 중앙위 축하문이 전달됐으며 계응상 농업과학원장이 보고를 했음.

● 평양 궤도전차 노반보수 마치고 운행 재개(12/27,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 만경대(송산역)에서 평양역까지 총 22km의 궤도전차 구간 중 평양역-광복거리입구(정임다리) 사이의 15km구간의 노반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인 24일에 맞춰 전차운행을 재개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보도
- 북한은 이번 노반 개보수를 통해 그동안 도로 중심선에 놓여있던 궤도전차 노반을 보도 옆으로 옮기고 노후한 레일을 교체했으며 전차도 20대 증차하였음.
- 신문은 이 공사가 지난 5월 말부터 진행돼 왔으며 이번에 공사가 완료된 1단계는 평양역부터 정임다리까지의 약 15km구간이라고 소개하고 광복거리 입구부터 차량기지인 만경대까지의 제2단계 공사도 내년 봄 시작된다고 보도

● 김일성대, '증보문헌비고' 번역 중(12/27,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이 고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문물을 종합 정리한 백과사전 격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대한 번역 사업을 2012년 완료를 목표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선신보는 27일 "방대한 민족고전으로 알려진 '증보문헌비고'에 대한 전면적인 번역사업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증보문헌비고는 조선 고대, 중세의 정치, 경제분야의 제도와 문화를 항목별, 연대순으로 나누어 서술한 책"이라고 소개

● 北, 아시안피겨트로피 金 2개 수상(12/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2월 23일 홍콩 주룽 '메가아이스' 실내링크에서 끝난 2008-2009 아시안 피겨스케이팅 트로피 대회에서 리성철이 남자부 시니어싱글에서, 송미향과 정영혁이 시니어 페어에서 각각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음. 또 리기향과 태원혁은 시니어 페어에서, 장주혁은 주니어 싱글에서 각각 동메달을 수상

● 北, 남한 드라마 막아라 통제 고삐(12/24, 연합)

- 북한 당국은 최근 남한 드라마가 담긴 DVD나 남한 방송이 잡히는 라디오 등을 통해 유입되는 '한류(韓流)'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통제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 대북 소식통은 24일 "남한에서 30회쯤 진행된 드라마의 경우, 이르면 10회쯤 되는 내용이 중국 등에서 DVD로 복사돼 북한에 들어와 북한 전역의 장마당을 통해 금방 주민들에게 퍼진다"고 했으며 이를 단속해야 할 국경수비대나 보위부원들 상당수는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주는 것으로 전해짐.
- 지난 17~18일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국방위원회 김영철 정책실 국장(중장)은 공단 관계자들을 만나 남측에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이산'의 대사 중 "백성은 소용돌이 치는 물이고, 임금은 물 위에 뜨는 배"라는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음.
- 정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IT산업을 발전시킨다며 2006년 자체 DVD 플레이어 개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남한 드라마를 퍼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최근

소식지에서 “12월 초부터 청진시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뒤에 성인영화를 붙여 넣은 ‘알판’(DVD)이 발견돼 보안원(경찰)들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소개됨.

- 라디오도 한류 확산에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됨. 원래 북한에서 라디오는 보안서(경찰서)에 신고한 뒤 주파수 채널을 납땜으로 고정해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중국에서 라디오가 대거 들어오면서 남한 방송을 몰래 듣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함. 정부 당국자는 “최근 탈북자를 만나보니 남한 드라마 주인공은 물론 뉴스 진행자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고 전언. 또 평양 이남 지역에선 위성 안테나를 달면 남한 방송이 잡히기 때문에 “일부 고급 간부는 남한 저녁 9시 뉴스는 물론이고 아침 뉴스까지 보고 출근한다”고 정보 당국자는 전언

● 北 10대 사변에 對美관계 2건 포함(12/24,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선정한 북한의 올해 10대 뉴스에서 5개를 대외 관계에 할애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과 관계된 것이 2개나 포함되어 있음.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평양 공연(2번째)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9번째)가 선정됨. 또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은 6번째, 러시아와의 라진-하산 철도 연결 공사의 착공은 8번째로 들고, 남북관계 악화를 가장 마지막인 10번째에 뒀음.
- 조선신보는 제일 먼저 내세운 ‘경축행사와 9월 5일담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총화’라는 항목에서 “건국 60돌을 맞은 평양은 명절을 경축하는 분위기로 들끓었다”며 “경축 행사장은 강성대국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조선(북한)의 국력을 내외에 과시”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월5일자 담화는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주장
- 2번째 뉴욕 필의 평양 공연에 대해 신문은 “새로운 정세 발전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변으로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고 평. 3번째 사건은 ‘평양시 개건현대화’. 조선신보는 “일대 계기점을 맞이한 올해 수도 평양의 면모가 크게 달라졌다”며 “내년 이후도 개건현대화 사업은 계속된다”고 전언
- 4번째의 성화 봉송에 대해 조선신보는 “일부 불순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세계 각지의 봉화이어달리기에서 혼란이 빚어졌으나 중국측은 평양에서의 행사는 가장 훌륭한 행사였다고 사의를 표했다”고 평

- 신문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 기념 전국 예술축전'을 5번째로 꼽고, 6번째인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에 대해선 “조중(북중) 관계의 강화발전을 상징”하며 “날을 따라 발전하는 조중 친선협력 관계를 내외에 널리 과시했다”고 설명
- 신문은 9번째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조미(북미) 신뢰조성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고, 마지막으로 든 '12.1조치 단행, 전면차단 기로에 선 남북관계' 항에선 “남조선(남한)에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의 반복 대결 정책으로 인해 북남관계는 전면차단의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북측은 12.1조치가 1차적이라며 후속조치도 시사하였다”고 덧붙임. 신문은 8번째인 라진-하산간 철도 연결 착공은 북한과 러시아간 “첫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새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어'를 선보인 것도 7번째 10대 뉴스로 선정

● 겨울 민박온천 '인기몰이'(12/12, 조선중앙통신; 12/11, 조선중앙방송; 'NK In & Out' 7호)

-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존의 온천 요양 및 휴양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온천이 많은 지역들에 별도의 손님 방을 갖춘 민박 형태의 살림집을 많이 건설해 “전국적으로 온천요양생 수용능력이 거의 2배”로 늘어났음.
-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경성온천, 평안남도 강서·석왕사 약수를 비롯해 온천과 약수 원천이 풍부한 지역에 (민박) 요양마을이 늘어났다”며 “지난해부터 온천, 약수가 나오는 곳마다 요양소들을 개선(개선)하거나 새로 꾸리는 것과 함께 치료용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고 전언
- 조선중앙방송도 최근 “온천요양 마을들의 집집마다 온천욕이 한창”이라며 몇몇 지역에 “농촌문화주택 형식의 요양마을들이 새로 일떠선 후 전국적으로 1만 수천명의 주민이 온돌방에서 숙식을 하며 광천 의료봉사를 받았다”고 소개
- 온천은 휴양 뿐 아니라 치료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음. 평안남도 양덕온천요양소를 비롯한 많은 온천시설들에서 초단파, 초음파, 자외선, 적외선, 레이저 치료 등 물리치료와 함께 감탕(진흙) 치료도 병행, 특히 온천과 감탕치료

를 병행할 수 있는 요양 및 휴양시설은 북한 상류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평양의 부유층 사이에서 이곳 요양권이 북한 돈 20만 원(노동자 한달 월급 평균 3천 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평양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각종 회와 털게, 가리비 같은 조개류, 오징어와 물회 등의 싱싱한 수산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좋다”고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EU, 북핵검증 합의 실패 유감(12/23, 연합)

- 유럽연합(EU)이 12월 8~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핵 검증의정서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EU 이사회는 22일 의장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무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최근 회의가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주목한다”고 지적
- 성명은 “EU는 지난 2년간 괄목한 성과를 낸 6자회담을 지지하지만 최근 회의에서 (북한의 핵 폐기) 검증에 관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임. 성명은 이어 “EU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및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끝을 맺음.

나. 북·미 관계

● 검증 합의 실패후 北악단 美공연 불투명해져(12/24,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추진해 온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방미 연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

-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 연주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단체들이 자금 지원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 그는 특히 최근 북핵 6자회담에서 핵검증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후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초청에 부정적인 견해가 미 국무부내에서 일부 제기됐다고 전언
-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번스 리비어 회장도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를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고 VOA는 보도. 리비어 회장은 다만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에 대해 국무부 내에 조용한 지지가 있다”면서 “그같은 지지가 앞으로 몇달 동안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 국무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계속(12/23, 미국무부)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12월 말께 2만1천t의 식량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3일 밝힘. 이번 달 말에 북에 도착하는 식량은 6차 지원분임. 미국은 그동안 5차례 걸쳐 북한에 옥수수과 밀, 콩 등 곡물 14만3천330t을 보냈고 지난 5월 1년에 걸쳐 5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인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2만1천t의 식량이 배달돼 북한 전역에 전달될 것”이라고 언급
- 하지만, 매코맥 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북한과 접촉 계획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언급

● 라이스 미국무장관,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12/21, 미국의소리방송)

- 콘돌리자 라이스(Rice) 미 국무장관은 19일 외교관계협의회(CFR)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북한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검증의정서를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수는 없다”며 “불능화와 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북한은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또 원하는 중유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 라이스 장관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검증의정서가 있긴 하지만 일부 모호한 점이 있으며, 북한은 의정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호한 점들에 대해 문서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 라이스 장관은 또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해 “2005년 6자회담 개시 이후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등 6자회담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

다. 북·중 관계

- **주북 中대사, 내년 북중교류·협력 높은 수준 발전(12/27, 조선중앙통신)**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과 중국 간 수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 양국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언급. 그는 26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신년 연회 연설에서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해인 200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될 것”이라며 “이 해에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중·조 친선협조 관계의 보다 휘황한 장을 아로새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소개
 -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연회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조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각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며 “앞으로도 조중 친선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 동지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中랴오닝성 군인, 北선박 어민6명 구조(12/26, 흑룡강신문 인터넷판)**
 -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력을 잃고 사흘 째 표류중인 북한 어선을 구조하고 어민 6명 전원을 24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흑룡강신문이 26일 인터넷판에서 보도. 이 신문은 인민해방군이 랴오닝성 단둥 근해에서 동력을 잃은 채 유빙에 얼어 붙어 있던 북한 어선 한 척을 구조하고 배에 타고 있던 남자 5명과 여자 1명 등 어부 6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
- **中대사, 北언론인 초청 연회(12/23, 조선중앙통신)**
 - 새해를 앞두고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 대사가 22일 대사관에서 북한

언론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류 대사는 이에 앞서 인민무력부와 외무성 간부들을 위한 연회도 개최함.

라. 기타 외교 관계

● 北-이집트 문화협정 50돌 친선모임(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이집트간 문화협조협정 체결 50돌을 기념한 북한과 이집트 친선모임이 25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모임에는 타레크 아흐메드 마흐푸즈 북한 주재 이집트 임시대리대사와 북한에 체류 중인 이집트 인사들이 초대되었음.

3 대남정세

● 제주감귤 북한 보내기 중단 위기(12/26, 연합)

- 제주도민들이 노지감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사업이 11년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임.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감귤과 당근을 북한동포에 지원하기 위해 물자수송비로 신청한 20억4천 만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
- 제주도 관계자는 “남북협력도민운동본부가 10년간 지속돼 온 이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제주도는 이 기금이 지원되면 2008년산 감귤과 당근 1만t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었음.

● 北, 네비게이션 작동 차량 출입금지(12/24, 연합)

-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차량의 네비게이션과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밝힘.
- 24일 관리위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경의선 육로를 사용하는 개성공단 출입

차량의 네비게이션과 GPS 사용을 금지하며 적발시 인원 및 차량을 남으로 복귀토록 한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측에 통보해옴.

● 北,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용의 표명(12/22, 연합)

- 북한은 냉랭해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의 하나로 6.25전쟁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중 일부를 송환할 의향이 있음을 한국측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과 가진 비밀 접촉에서 이같은 뜻을 전하면서 대신 남북 경협을 신속한 재개를 희망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22일 전언
-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중 일부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보내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임.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진정한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는 현재 560여 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귀환 국군포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북한은 남북 경협의 우선 사업으로 ▲무산 철광석 부근에 제철소 건설 ▲나진·선봉지역에 석유화학 단지 건설 ▲식료품 공장 건설 ▲평양 주택 10만호 건설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소개. 북한은 특히 최근 실세의 하나로 떠오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추진 중인 '평양 주택 10만호 건설' 사업에 남측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함.

KOREA INSTITUTE

FOR Monthly

NATIONAL North Korea

월간

UNIFICATION 북한동향
Review

12.29-01.04

12월
5주차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나. 정치 관련
- 다. 경제 관련
- 라. 군사 관련
- 마. 사회 관련

2. 대외정세

- 가. 북·미 관계
- 나. 북·중 관계

3. 대남정세

- 가. 대남 보도
- 나. 남북 교류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새해 첫 공개활동…군부대 시찰(1/3,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첫 공개활동으로 북한군 ‘근위서울 류경수 제 105탱크사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통신은 3일 오전 2시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채 “새해에 즈음하여”라고만 소개했지만, 뒤늦게 나온 조선중앙TV와 중앙방송이 “사단의 전체 장병들은 새해의 첫 아침에 친히 부대에 찾아오신 장군님(김정일)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고 보도해 지난 1일 시찰이 이뤄졌음을 시사
-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이 내보낸 김 위원장의 시찰 사진 중 두툽한 장갑을 낀 왼손을 책상에 올려놓은 모습이 있으나 여전히 동적인 면을 찾아보기 어려웠음.
- 특히 이번에 시찰한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은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시작된 본산으로 선전되고 있음.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현철해, 김명국, 리명수 군 대장 등이 수행

● 北, 김정일에 각국 지도자 연하장 보내(1/1, 조선중앙통신)

- 2009년 새해를 맞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으로 연하장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낸 주요 지도자는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및 라울 카스트로 현 국가평의회 의장,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베트남의 농득 마잉 공산당 서기장, 라오스의 촘말리 사야손 국가주석,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대통령, 필리핀의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알제리의 압델아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 등임.
- 이밖에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세르게이 미르노프 의장, 렌나트 바

게 유엔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재,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 등도 연하장을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

-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새해 축전을 보냈다고 평양방송은 전언

● 김정일, 12월 현지지도 특별열차 이용한 듯(12/30, 연합)

- 정보당국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12월 들어 자주 이동하고 있으며 이달에 집중된 현지지도(시찰) 때 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은 “북한 언론 보도나 특별열차 이동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 김정일 위원장은 대부분 특별열차를 이용해 현지지도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고 언급. 김 위원장은 12월에만 군부대를 두 차례 방문하는 등 모두 13회에 걸쳐 공개활동에 나선 것으로 북한 언론은 전하고 있으나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이 한 차례 더 있다고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일, 국립교향악단 공연 관람(12/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그러나 통신은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의 공연 관람 보도는 28일 ‘헌법절’(12.27)에 즈음해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고,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이를 연속 나온 것임.
- 김 위원장은 “주체교향악은 오늘 선군시대에 최전성기를 수놓으며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교향악을 우리 인민의 비위와 감정에 맞게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한 국립교향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과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장성택, 김양건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들인 리용철, 리제강, 김경옥, 리재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차승수를 비롯한 책임간부들과 현철해, 리명수 북한군 대장이 공연을 관람

나. 정치 관련

● 北, 10·4선언 떠나 북남관계 개선 없다(1/3,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3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 하자'는 제목의 논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떠나 북남관계 개선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
- 신문은 신년 공동사설의 남북관계 부분을 해설하면서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평양방송이 전언
- 신문은 이어 "우리민족끼리"를 거듭 강조하고 "해내외의 정당·단체들과 각 계층 동포들이 민족적 화해와 협력을 위해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며 연대연합과 공동행동"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남측 국민에게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촉구

● 북한 고위직 교체·임명(1/3, 연합)

- 북한이 최근 장관급 2명을 교체하고 노동당 핵심 보직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2일 확인. 북한 매체는 최근 장관급인 금속공업상을 김태봉으로, 전력공업상을 허택으로 보도. 두 자리는 종전에는 각각 김승현과 박남철이 담당, 북한은 특히 당(黨)·군(軍)·정(政)을 모두 통제하는 노동당 조직지도부(부장 김정일)의 제1부부장으로 김경옥이란 이름을 처음 보도
- 신임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은 지방 당(黨)조직을 총괄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전해짐. 조직지도부에는 4개 부서가 있으며, 중앙당은 리제강, 공안은 장성택, 군사는 리용철, 공석이던 지방당은 김경옥이 제1부부장을 각각 맡게 된 것으로 관측됨.

● 北, 대남 기존노선 유지할 것(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공동사설이 지적하는 <역사의 분수령>, 2012년 향한 <비약과 기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대한 해설 기사에서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기존 노선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신문은 남한 이명박 정부가 "북남관계에 대해 아무리 허울좋은 말을 늘어

놓아도 선언(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기본이념인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실천행동으로 증명해보이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 강경입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

- 반면 신문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조치를 가리켜 “조선의 대외 경제활동의 조건에 그 무슨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정책전환의 첫발을 떤 것만은 사실”이라고 해석하고 “공동사설은 현재의 비핵화 과정을 계속 전진시켜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적대국들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풀이

● 北공동사설, 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1/1,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 북한은 1일 2009년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6·15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문제를 거론
-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지에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제목으로 실린 공동사설은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바란다면 북남공동선언들을 옹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

● 군이 당·수령에 충성심 가장 강해(12/3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선군후로의 원칙’이라는 글에서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원칙은 혁명 위업 수행에서 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운다는 것”이라며 이는 “군대는 사회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하며 조직성과 규율성, 단력에서도 가장 강하”기 때문이라고 31일 주장

● 北, 한·미, 올해 2천200여 회 공중정탐(12/30, 조선중앙통신)

- 국군과 미군이 올해 모두 2천200여 차례 북한에 대한 ‘공중정탐’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주장, 통신은 ‘군사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말하고 이는 북한에 대한 한·미군의 “침략전쟁 준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

● 北, 국회의장·한나라당 비난(12/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강토를 전쟁터로 만들 셈인가'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최근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3명이 경기도 연천의 전방 부대를 위문한 것에 대해 "군사적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
- 신문은 한나라당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았다는 등으로 비난하면서 "오늘의 파국적인 남북관계를 놓고 볼 때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6·15통일시대의 성과들이 다 날아가고 북남 사이의 대결이 격화되며 종당에는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

● 北, 김정일 '건강 기원' 장시 게재(1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하는 장시를 게재. 문용철과 한광춘이라는 시인이 공동으로 쓴 '그이는 오늘도 행군길에 계신다'라는 제목의 장시는 "한 해는 다 저물어가도/ 그 해와 달에 엮고산/ 장군님 건강을 바라는 우리의 소원/ 인민의 간절한 소원은 가슴에 그냥 남아/ 더더욱 그리운 아버지 장군님"이라며 김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

다. 경제 관련

● 北경공업성, 올해 '입는 문제' 우선 해결(1/4, 조선신보)

- 북한 경공업성은 올해 생활필수품 가운데서도 '입는 문제' 해결에 우선 주력할 방침이라고 조정웅 부상이 언급. 조 부상은 4일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중시하는 것은 방직부문"이라며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풀어간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생활필수품의 생산에서도 먼저 입는 문제와 관련된 것부터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고 언급
- 그는 2006년부터 평양방직공장의 개보수를 중요 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종래의 방직설비를 전면 갱신, 제품의 질을 높이고 생산능력을 "몇 십배로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하면서 경공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북한에 있는 것은 "적극 동원·이용"하고 "없거나 모자란 것은 무역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

● 나진에 태양열 온실 시범 건설(1/2, 미국의소리방송)

- 국제기술지원(EMDI)이라는 국제 개발자원봉사 단체가 2008년 함경북도 나진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태양열 온실을 건설, 약 50명의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감자와 가지, 토마토, 오이, 배추 등 다양한 채소를 연중 재배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
- 이 온실은 전기 사정이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전력이 필요없고 겨울에도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나진의 한 마을에 시범적으로 만들어짐.

● 北, 새해 첫날부터 경제 '대고조' 부각(1/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2008년 연말 경제분야에서 50년대의 천리마운동을 상기하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대중선동을 시작한 가운데, 새해 첫날 북한의 주요 기업소와 발전소 등에서 대규모 발파와 증산 투쟁이 벌어졌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
- 방송은 북한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황해북도 곡창지인 미루별 관개수로, 북한 최대의 철광산인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에서 "강선 노동계급의 전투적 호소가 담긴 편지와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 공동사설을 받아"안아 생산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

● 北김정일, 2012년 목표 '경제 전면전' 준비(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작년 12월 평안남도 남포시 소재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에 대해 미국의 정권교체 등 대외정세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경제부흥의 전환 국면"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
- 조선신보는 2008년의 마지막 달 "최고영도자(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중대 계기점으로 하여 경제부흥의 전환 국면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이 "결단은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자기 나라의 이해와 역량의 타산 등에 기초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
- 국제정세에 대해 신문은 "작년 6자합의 이행 등에서 일련의 진전이 있었고, 미국은 조선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미국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지적, 또 "천리마(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는 격동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

- 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을 향한 전민 대진군의 진두에서 새로운 공세와 대담한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선군노선에 의해 다져진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해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김일성의 100회 생일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
- 신문은 김 위원장의 제강소 시찰 직후 북한에서 “대중적 운동을 호소하는 대내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2012년을 향한 조선의 대내외 정책은 현상 유지를 배격하고 변혁을 요구하는 진보성, 자기 힘에 의거해 더 높고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는 적극성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즐기치게 전개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 北 새 경제동원구호, ‘강선의 봉화’ 등장(12/30, 연합)

-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평안남도 남포시) 시찰을 계기로 새로운 경제 구호인 ‘강선의 봉화’를 제시, 주민 동원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12월 24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 2012년까지 ‘강성대국’ 달성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옛 이름)” 노동자들이 여기에서 ‘선봉’에 설 것을 주문했었음.
- 노동신문은 30일 ‘강선의 본때로 용감무쌍하게 앞으로’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천리마의 고향 강선에서 위대한 불길이 타올랐다”며 처음으로 ‘강선의 봉화’를 언급. 이 신문은 천리마제강 종업원들이 28일 쫓겨모임을 열어 북한 전역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채택한 것에 화답하는 형식의 정론에서 “위대한 장군님 몸소 지퍼주신 강선의 봉화는 혼연일체의 봉화”라며 김 위원장과 주민 간 ‘혼연일체’를 강조했다.

라. 사회·문화 관련

● 북한은 역시... 달력마다 김정일 가족사 표기(1/2, 문화일보)

- 조선화보사 발행 2009년 북한 달력에는 매월 김 전 주석 가족사의 연표가 주요 사항으로 빼곡하게 기록돼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

● 왕건 어진 봉안 만월대 경령전 구조 확인(1/2, 연합)

- 개성의 고려궁성 '만월대' 구역 중에서도 태조 왕건을 비롯한 역대 고려왕 5명의 어진(초상화)과 신위를 봉안하던 공간인 경령전(景靈殿)과 그 주변 일대 건축물의 정확한 규모와 배치 상태가 확인됐음. 문화재청(청장 이견무)은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서중석)와 함께 2008년 11월 4일~12월 23일 만월대에 대한 제3차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1차 시굴조사에서 일부 확인한 경령전이 동서 22.67m, 남북 10.15m인 장방형 기단에 정면 5칸, 측면 3칸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2일 밝힘. 북한측에서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및 민족화해협의회가 발굴조사에 참여

● 평양 새해 맞아 명절 분위기(1/1, 조선중앙통신)

- 2009년 새해 첫날 평양 시민들은 명절 분위기를 즐김. 북한에서 신정인 1월 1일은 2일까지 이틀간 공휴일로 휴식
- 조선중앙통신은 1일 "대동문영화관을 비롯한 영화관, 극장, 문화회관은 관람자들로 붐비고 공원과 유원지에서는 행복에 넘친 시민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었다"고 보도. 옥류관과 청류관 등 평양 시내 음식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각 가정에서는 찰떡과 녹두지짐 등 명절음식을 차려놓고 장기와 윗놀이 등을 즐기면서 명절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
- 평양시내 거리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새해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등의 글이 내걸렸고 '새해를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를 담은 포스터와 그림판도 세워짐.

● 北, 10대 최우수선수에 여성 8명(12/31, 조선신보)

- 북한 체육지도위원회가 올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여자 도마의 홍은정, 여자 역도의 박현숙, 여자 축구의 간판 리금숙 등을 올해의 10대 최우수 선수로 선정
- 10대 최우수 감독으로 선정된 김춘필, 박혜정, 김길남, 류주성, 김광민, 김재식, 리응주, 김용경, 서은학, 박철수 가운데 김춘필, 박혜정 감독은 각각 홍은정, 박현숙 선수를 양성한 여성 감독임.

- 北, 중국 도강자 통제 강화(12/31, 연합뉴스,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 당국은 중국으로 도강하는 북한 주민들을 탈북하려는 것으로 간주해 국가보위부가 다루도록하는 등 도강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토록 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31일 보도
 - ‘오늘의 북한소식’ 제259호에서 북한 당국이 11월 28일 “국가보위부의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효율을 높이라”는 내용의 방침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언급, 소식지는 보위부가 도강자들을 취급키로 한 것은 “도강자들이 중국과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탈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며 “앞으로 국경 연선(접경)지역의 시, 군에서 붙잡힌 도강자들은 보위부에서 집중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北, 평성에 국립묘지 추가 건설(12/30, 조선중앙통신)
 - 평안남도 평성시에 우리의 국립묘지격인 열사릉을 새로 건설하고 30일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은 “평성열사릉에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게 일하면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일꾼(간부)과 근로자의 유해가 안치되고 돌사진이 붙은 묘비가 세워져 있다”고 전언
 - 준공식에는 리태남 평안남도 당 책임비서와 평성열사릉에 안장된 인사들의 유가족들이 참석
 - ※ 북한에는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신미리 애국열사릉 등 2개의 국립묘지가 있으며 이들 묘지에는 항일투쟁 참가자들과 북한 정권을 위해 ‘공로’를 세운 인사들이 안장되어 있음.

- 北, 문학의 임무는 김일성 부자 위대성 선전(12/13, 문학신문)
 - 북한은 최근 평양에서 올해 문학작품 창작 실적을 결산하는 ‘문예사상연구모임’을 열어 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대성’과 ‘선군시대’의 현실을 그린 작품이 많이 창작된 것을 성과로 꼽고, 2012년으로 설정한 ‘강성대국’ 달성에 전체 주민이 매진하도록 독려하는 “혁명적 문학작품” 창작에 주력할 것을 촉구
 -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 12월 13일자에 따르면, 이 모임

- 에서는 안동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장을 비롯해 강선규 4.15문학창작단 작가, 백의선 현승남 작가동맹 부위원장, 박찬수 작가동맹 아동문학분과위원장, 박영 문학예술출판사 부사장 등이 보고와 토론을 진행
- 이들은 올해 북한 문학계가 거둔 가장 큰 성과로 “‘백두산 3대장군(김일성, 김정일, 김 위원장의 생모 김정숙)’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을 대거 창작해 북한 문학의 성격을 뚜렷이 한 것을 꼽았음.
 - 그 대표작들로는 김 위원장이 1998년 3월 성진제강연합기업소(성강)를 시찰하면서 경제선동 슬로건인 ‘성강의 봉화’를 제시한 것을 그린 장편소설 ‘불’과 함경남도의 ‘대자연 개조’를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 ‘봄의 서곡’ 등이 거론되었음. 이들은 김일성 주석을 칭송하는 문학작품을 일컫는 ‘수령형상 문학’의 대표작으로는 단편소설인 ‘열다섯 번째 해’, ‘우리 수령님’, ‘봄 소나기’, ‘믿음의 세계’, ‘움트는 아침’ 등을 내세움.
 - 소설 뿐 아니라 서사시 ‘강계의 눈보라 이야기하랴’, ‘우리 조선 길이 받들리’와 장시 ‘해돋이’, 시조 ‘우리의 아버지, 행복한 우리집’, 시뭇음 ‘2월의 전선길’, 당시 ‘흙에 대한 답시’ 등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이상화 면에서 우수작으로 꼽았음.
 - 아동문학 부문에서 서사시 ‘영원히 빛나라 우리의 새날이여’, 단편소설 ‘올 기강의 아침’, ‘해님의 딸’ 등을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선정
 - 또 김 위원장이 통치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를 일컫는 ‘선군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 대거 창작됐다고 소설부문 대표작으로 장편 ‘조옥희’, ‘달라진 선택’, ‘인생의 악보’를, 단편 ‘적동색 머리수건’, ‘숲에 깃든 냇’이 거론되었음.

● 北, 살림집 건설 ‘봄’(12/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평양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일체식 및 조립식 공법의 ‘살림집(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 통신은 “평양시 만수대거리를 비롯해 수도의 여러 곳에서 살림집 건설이 한창”이며 “각 도, 시, 군들에서도 지방의 특성을 살린 살림집들을 건설” 중이라고 보도
- 통신은 “평양시 건설지도국에서는 만수대거리에 수도의 다른 중심거리들과 조형예술적으로 잘 어울리는 여러가지 형식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체식 공법과 조립식 공법을 받아들여 살림집 골재공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

- 통신은 올해 “평양시 형제산구역, 순안구역을 비롯한 여러 시, 군, 구역들에 건축학적 특성을 잘 살린 많은 살림집들이 건설”됐으며, 황해남도 재령군 래림리, 신원군 신창리 등 농촌지역들도 살림집을 새로 짓거나 개건보수했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北신문, 美에 핵전과 책임(12/2,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2일 ‘미국의 핵 이중기준 정책이 문제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이중적 기준을 갖고 각국의 핵 문제를 다룬다며 “편견적인 태도는 핵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날 최근 미 의회의 한 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이 폭발적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한 “반면 미국은 요즘 중동의 일부 나라들과 핵협정 체결을 시도”하고 있어 “미국의 핵연료와 기술, 지식이 조만간 이 나라들에 제공될 것”이라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北김정일-中후진타오 ‘친선의 해’ 다짐(1/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1일 새해 축전 교환을 통해 올해 성공적인 ‘북·중 친선의 해’를 다짐
- 후 주석은 1일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나는 이 기회에 당신과 함께 ‘중조 친선의 해’가 정식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에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며 “올해는 중조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후 주석은 이어 “‘중·조친선의 해’는 두 나라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

다는 상징”이라며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친선을 증진시키고 교류를 촉진하며 협조를 심화시켜 중·조 친선협조 관계의 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공동으로 개척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중·조 친선의 해의 원만한 성공을 축원한다”고 덧붙임.

- 김정일 위원장도 축전에서 북한과 중국간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2009년은 두 나라 인민이 ‘조·중 친선의 해’로 맞기로 한 뜻 깊은 해”라며 “새해를 ‘조·중 친선의 해’로 의의있게 장식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은 호상 이해와 친선을 더욱 두텁게 하고 조·중 친선관계 발전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

다. 기타 외교 관계

● 北김영남, 팔, 독립국가 수립될 것(12/31, 연합; 12/30, 북한외무성 대변인)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31일 팔레스타인 혁명 시작 44주년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반드시 수립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며 “합법적인 민족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친선적인 팔레스타인 인민의 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언급, 앞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30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을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고 “모든 군사행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

● 北최태복, 쿠바와 친선관계 강화(12/29, 연합)

- 노동당 최태복 비서는 29일 “앞으로도 쿠바 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최태복은 이날 호세 마누엘 몬타노 북한 주재 쿠바 대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을 맞아 주최한 연회에 참석해 “쿠바 인민이 사회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

3) 대남정세

● 개성과 고성에 연탄 각 5만장 전달(12/30, 연합)

- 대북 연탄지원 사업을 펼치는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사장 변형운)’은 30일 북한의 개성과 고성 지역에 올해 마지막 지원분으로 5만 장씩 각각 전달
- 원기준 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은 “오늘 지원분까지 합해 올해 모두 80만 장씩을 개성과 고성에 지원했다”며 “통상 100만 장씩 지원하는데, 그나마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남북 동포간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

● 北, 범청학련 南의장 실형선고 비난(1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반통일 분자들의 야수적인 폭거’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33) 의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를 “북남대결을 격화시키고 통일민주 세력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억지공사”라고 비난
- 신문은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칼질하는 것보다 더 반민족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

● 개성공단 탁아소 2009년 초 착공(12/29, 연합)

-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설 공사가 2009년 초 시작된다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가 29일 밝힘. 이 관계자는 “탁아소 설치를 위한 설계 작업을 마쳤으며 금명간 시공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공사는 내년 초에 시작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언급
- 공사는 2009년 1월 시작될 예정이지만 날씨 등의 사정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정부는 지난 달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200명 수용 규모) 건설 비용 9억 원을 의결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11월 01일	적십자대회(천리마문화회관, 10/29-30) 전국청년동맹 초급일꾼 열성자회의(청년중앙회관, 10/31-11/1)	평방(11/1) 중방(11/2)
11월 02일	김정일, 제11차 인민체육대회 폐막 축구경기 관람	중통(11/2)
11월 03일		
11월 04일	제6차 전국조선웃전시회 개막 제9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 개막	중방(11/4) 중통(11/4)
11월 0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제2200군부대 및 제534군부대 직속구분대 훈련장 시찰 우표틀(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7종) 새로 발행 전국 고려의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11/4-5)	중통(11/5) 중통(11/5) 중방(11/6)
11월 06일	김정일,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공연 관람 2008년 아시아 청소년축구대회 8강 진출	중통(11/6) 중방(11/6)
11월 07일		
11월 08일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 겨울철 답사 시작	중방(11/8)
11월 09일	미 대통령에 버락 오바마 당선소식 간략보도	중방(11/9)
11월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청진염소목장에 운전기재들과 설비 전달 김영남 상임위원장, 방북 이란 부통령 등 민족청년조직 대표단과 담화	중통(11/10) 평방(11/10)
11월 11일	박의춘 외무상, 주북 포르투갈 신임 특명전권대사화 담화	중통(11/11)
11월 12일	북적,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및 직통전화통로 단절 선포	중통(11/12)
11월 13일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강탈책동반대 남북공동토론회(평양) 제2차 세계청소년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결승 진출	중통(11/13) 중방(11/13)
11월 14일	조선인민군 4.25예술영화촬영소, 예술영화 '우리를 지켜보라' 제작	중통(11/14)
11월 15일		
11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선인민군 제32차 군무자예술축전 관람 제1차 세계청소년(17세 이하)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우승	중통(11/16) 중방(11/16)
11월 17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대표단(단장: 호세 미겔 메이아 정부상), 몽골 국방성 대표단(단장: 느크라이 보르바타르 국무비서), 평양 도착	중통(11/17)
11월 18일		
11월 19일	전승훈 내각 부총리,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대표단과 담화	중통(11/19)
11월 20일	전국농근맹초급선전일꾼 열성자회의 인민보건사, 의학도서 새로 출판	중방(11/21) 중통(11/20)
11월 21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이임 팔레스티나 대사와 담화 전국과수부문 과학기술발표회(11/19-21)	중통(11/21) 중방(11/22)
11월 22일	청소년여자축구선수단을 위한 연회(옥류관)	중방(11/22)
11월 23일	제10차 공산당 및 노동당들의 국제회의, 54개국 65개 공산당 및 노동당 대표단들 참가(브라질, 11/21-23)	중통(12/11)
11월 24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도미니카 정부대표단과 담화	중방(11/24)

북한 11·12월 동향 일지

일시	내용	보도일자
11월 25일	북 체육지도위-중 국가체육총국 '2009년 체육교류의정서' 조인	중통(11/25)
	김정일 국방위원장,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신의주화장품공장 비누직장 현지지도	중통(11/25)
	국제도자기박람회(중국)에서 '장생도무늬상감청자꽃병' 금상 수상	중방(11/25)
11월 26일	박의춘 외무상, 주북 영국 신임대사 피터 휴스와 담화	중통(11/26)
	노인 인구상태에 대한 연구발표회	중통(11/27)
11월 27일	2011년 아시아청년볼링선수권 대회 평양 개최 예정	조선신보(11/27)
11월 28일	김일성종합대 등,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역사교육지원프로그램 개발	중통(11/28)
11월 29일	정부경제대표단(단장: 이용남 무역상),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방 차 평양 출발	중방(11/29)
11월 30일	김정일,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6군부대 시찰	중방, 중통, 중앙TV(11/30)
12월 01일	6,000여종의 민족음식들을 소개하는 '조선요리전집' 편찬	중통(12/1)
	세계 에이즈의 날 관련 행사	중통(12/1)
	김양옥 선수, 제5차 세계여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획득	중통(12/1)
	북한 영화상영 주간행사(쿠바, 11/28-12/1)	평방(12/7)
	김정일동지전기 '독보회 및 영화 감상회(에디오피아)	중통(12/8)
12월 02일	김정일, 개건 확장된 중앙동물원 현지지도	중통(12/2)
	예멘 종인민대회와 '친선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중통(12/2)
12월 03일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김세정 학부장), 평양 도착	평방(12/3)
12월 04일	회령기초식품 공장, 2중 3대혁명붉은기 쟁취	중방(12/4)
12월 05일		
12월 06일		
12월 0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여러 단위들에 감사 전달	중방(12/7)
12월 08일	조선노동당출판사, 회상실기집 '인민들 속에서' 77권 출판	중통(12/8)
12월 09일		
12월 10일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스승의 품', '충성의 한길에서', '녀성의 노래' 등 출판	중통(12/10)
	미 정부, 북한 핵무기 보유국 공식 인정 보도	중방, 평방, 중통, 조선신보(12/10)
12월 1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건된 사리원닭공장과 미국협동농장 현지지도 및 새로 건설된 사리원시 민속거리 시찰	중방(12/11)
	평양예술단(단장: 한철 문화성 부상), 베트남 항발	중방(12/11)
12월 12일	조선혁명박물관 '수령님과 전우관', 김일성 혁명전우자료들 새로 전시	평방(12/12)
12월 13일		
12월 14일		
12월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계철도분국 공인용 노동자 정명회 등에 감사전달	중방(12/15)
	3세대 이동통신 개통식(평양)	중통(12/15)
12월 16일	김정일, 자강도 전자업무연구소 등 강계시 여러 단위 현지지도	중방(12/16)
	북-이집트 합작 '오라은행' 개업	중통(12/16)

일 시	내 용	보도일자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2월제강종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12/17)
	북-체코,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수정보충과 관련한 의정서 조인	중방(12/18)
12월 1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리종옥이 사업하는 기계공장 현지지도	중통(12/18)
	김정일 노작 중앙연구토론회 개최	중통(12/18)
	김정숙 생일 91돌 전국 풍경화 및 수공예품 전람회	중통(12/18)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955군부대 현지지도	중통(12/19)
	전국농업과학기술성과 전시 및 발표회(12/18-19)	중방(12/21)
12월 2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강도 노동계급과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관람	중통(12/20)
12월 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강도 희천도자기공장 현지지도	중통(12/21)
12월 22일	김책공대 정보과학기술대학 등, 표창장과 2중3대혁명 붉은기 수여	중앙TV(12/22)
	평양예술단, 베트남 하노이대극장 등 성황리에 공연	중방(12/30)
12월 23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7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중방, 중통, 중앙TV(12/23)
12월 24일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음악무용종합공연	중통(12/25)
12월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현지지도	중통(12/25)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및 김정숙 생일 91돌 관련 행사	중방, 평방, 중통(12/25)
	김정일의 사리원태지공장 현지지도 1돌 기념 보고회	중방(12/26)
12월 26일	농업과학원, 창립 60돌 기념보고회(인민문화궁전)	중방(12/27)
12월 27일	2008-2009 아시안 피겨스케이팅대회에서 금메달	중통(12/27)
12월 2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공군 제1017군부대 시찰 및 제323군부대 지휘부 방문	중통(12/28)
12월 29일	제11차 인민체육대회 겨울철종목경기(평양, 삼지연, 부전)	중통(12/29)
	국가과학원 산림과학분원 창립60돌 기념보고회	중방(12/30)
12월 30일		
12월 31일	체육지도위, 2008년 국내 10대 최우수선수 및 감독 선정	조선신보(12/31)
	공훈국가합창단, 동평양대극장에서 신년 경축공연	중통(12/31)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